

연구보고 2021-24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2021. 12.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송치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여성가족부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구요약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국가성평등지수는 2009년 우리나라 성평등 실태와 개선 정도, 성불평등이 심각한 분야와 그 원인을 파악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 제고와 국가 경쟁력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
- 2021년 연구는 현행 국가성평등지수 지표체계에 따라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하위 지표들의 분석하여 성평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더불어 성격차지수(GGI), 성불평등지수(GII) 등 국제성평등지수를 분석하여 한국의 성평등 위치와 성평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의 전략적 정책 방향을 검토할 목적으로 추진됨.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연구내용은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각 세부 내용을 분석함.

1.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및 추이 분석

- 2021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및 영역·분야별 최근 5년간 성평등 수준 분석
- 지수의 특징, 산정방안, 하위영역 및 분야, 세부지표의 내용분석, 자료원 정리

2.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성평등 위치 분석

- 국제성평등지수인 GGI, GII 등의 분석을 통해 한국 성평등 위치 파악
- OECD 회원국 등 주요 국가과의 성평등 수준 비교 분석

3. 양성평등 수준 제고 전략 도출

- 주요 성평 정책과 지표의 연계표 제시
- 지표별 관리 부처 연계

4.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별 통계와 특성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 연구 방법

첫째, 기존 문헌연구 및 통계수집·분석을 실시함. 성평등지수와 관련된 문헌연구, 성평등지수 관련 방법론, WEF, UNDP 등 국제기구의 성평등지수 등에 대한 문헌을 검토함. 또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양성평등기본계획,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 등의 정책을 검토함.

둘째,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한다. 전문가 자문은 성평등지표 활용을 위한 자문과 최종보고서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한 자문과 국가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내용에 대해 자문을 얻음.

3.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

- 2021년도 국가성평등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제시한 정책 영역별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지표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성됨.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 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교육·직업훈련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비빈곤인구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장애인고용률

영역	분야	지표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비율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가사노동 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성별 정보화 격차

4.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 방법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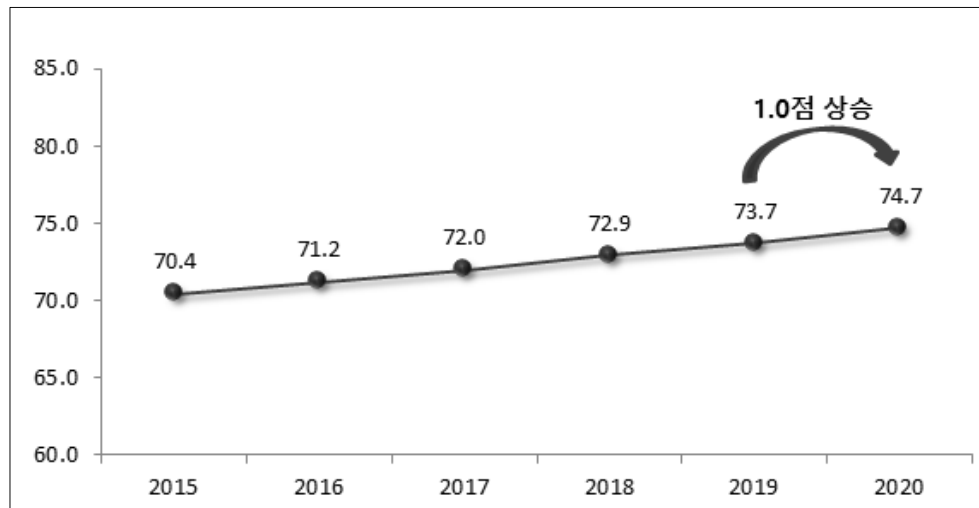
- 국가성평등지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첫째, 투입보다 성과를 측정하는 지수임.
 - 둘째, 성별 격차를 측정하는 지수임.
 - 셋째,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점검하고 정책의 관리를 목적으로 측정되는 지수임.
- 국가성평등지수는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걸쳐 산정됨.
 - 단계 1. 지표의 수준이 최소 0과 최대 100으로 표준화
 - 단계 2. 지표 값을 성비(Female-to-male ratio)로 전환
 - 단계 3. 비율로 전환된 지표 값에 관련 가중치(Weight) 부여
 - 단계 4. 분야별 지수 추정치 산정
 - 단계 5. 국가성평등지표의 복합지수 산정

5.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추이

-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통계생산기준으로 2015년에서 2020년까지의 성평등을 시계열로 측정하고 있으며, 성평등지수의 값은 '0.0'(완전불평등)에서 평등수준이 높아지면 이 지숫 값도 높아져 '100.0'(완전성평등)까지의 범주를 갖도록 하고 있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는 74.7점임.
 - 연도별 국가성평등지수는 2015년 70.4점에서 2016년 71.2점, 2017년 72.0점, 2018년 72.9점, 2019년 73.7점 그리고 2020년 74.7점으로 전년 대비 1.0점 상승
- 국가성평등지수의 상승 원인을 보면, 먼저 2015년과 비교하여 성평등 개선이 높은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9.8점), 가족 분야(7.0점), 안전 분야(6.1점), 경제활동 분야(4.8점)로 나타남. 전년 대비 상승인 높은 분야는 복지로 2.4점이 개선되었고 가족(2.0점↑), 안전(1.8점↑), 의사결정(1.1점↑), 교·직업훈련(0.3점↑) 순으로 높은 개선을 보임. 또한 2015년과 비교하여 약간 하락했던 것과 달리 보건과 문화·정보 영역에서도 전년 대비 0.1점과 0.2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의 개선은 이전에 비해 개선 정도가 약간 높았는데, 이는 각 분야에서 모두 개선되었기 때문임.

〈국가성평등지수 변화 추이〉

(단위: 완전 성평등=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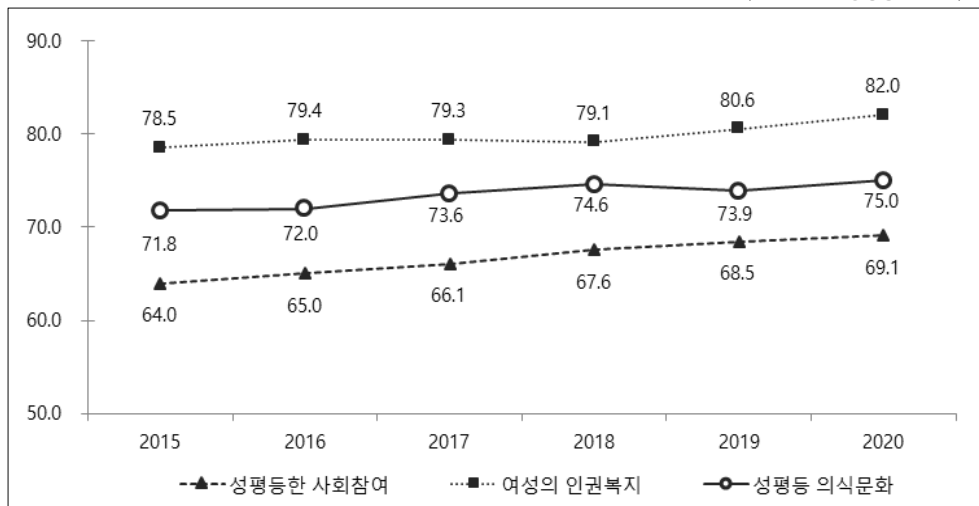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2.0점)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았고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5.0점),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69.1점) 순임.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로 측정되며, 이 영역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5년 64.0점에서 2020년 69.1점으로 5.1점 상승함. 상승 원인은 세 분야 모두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지만 특히 의사결정과 경제활동 분야의 동기간 상승이 높았기 때문임.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로 측정되는 영역임. 이 영역의 성평등 지수 값은 2015년 71.8점, 2016년 72.0점, 2017년 73.6점, 2018년 74.6점, 2019년 73.9점, 2020년 75.0점으로 지난 5년간 3.2점 상승함. 이 영역의 성평등 개선은 가족 분야의 높은 상승 때문임.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 분야로 구성됨. 이 영역의 성평등수준은 세 개 영역 중 가장 높고 성평등 수준도 지속해서 상승하는 영역임. 이 영역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5년 78.5점에서 2020년 82.0점으로 동기간 3.5점 개선되며, 상승의 주된 원인은 안전 분야가 2015년 대비 6.1점 개선되었기 때문임.

〈정책영역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변화〉

(단위: 완전 성평등=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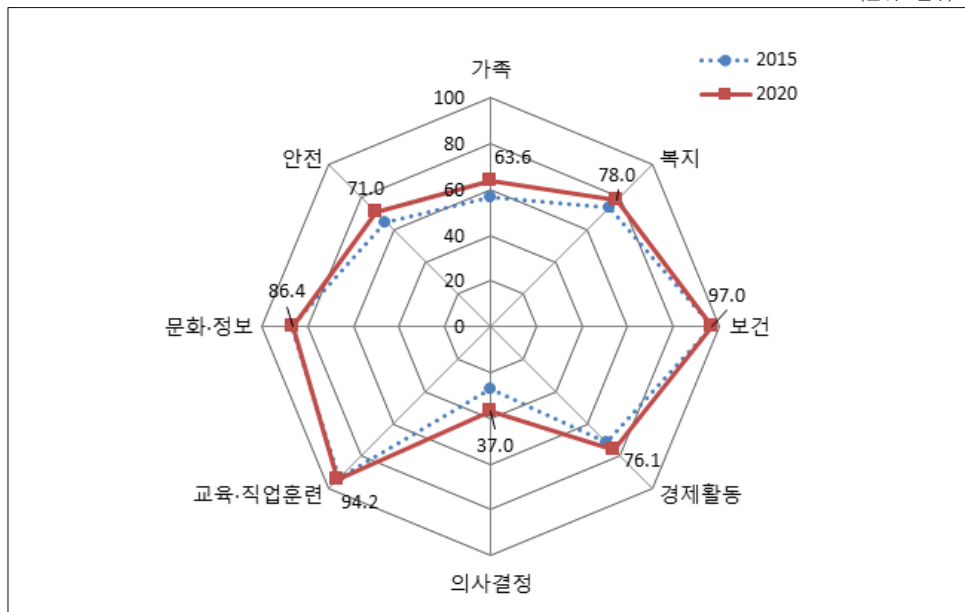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분야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보건 분야가 97.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교육·직업훈련 분야(94.2점), 문화·정보 분야(86.4점), 복지 분야(78.0점), 경제활동 분야(76.1점) 순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음. 반면 의사결정 분야가 37.0점으로 가장 성평등 수준이 낮았고, 다음은 가족 분야 63.6점, 안전분야 71.0점 순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음.
 - 2015년과 비교하여 성평등 개선이 높은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9.8점), 가족 분야(7.0점), 안전 분야(6.1점), 경제활동 분야(4.8점)로 나타남. 전년 대비 상승인 높은 분야는 복지로 2.4점이 개선되었고 가족(2.0점 ↑), 안전(1.8점 ↑), 의사결정(1.1점 ↑), 교·직업훈련 (0.3점 ↑) 순으로 높은 개선을 보임.
 - 2019년과 비교해 보면, 복지 분야 2.4점, 가족 분야 2.0점, 안전 분야 1.8점, 의사결정 분야 1.1점, 경제활동 분야 0.4점, 교육·직업훈련 분야 0.3점, 문화·정보 분야 0.2점, 보건 0.1점 순으로 개선됨.

〈분야별 성평등 수준〉

(단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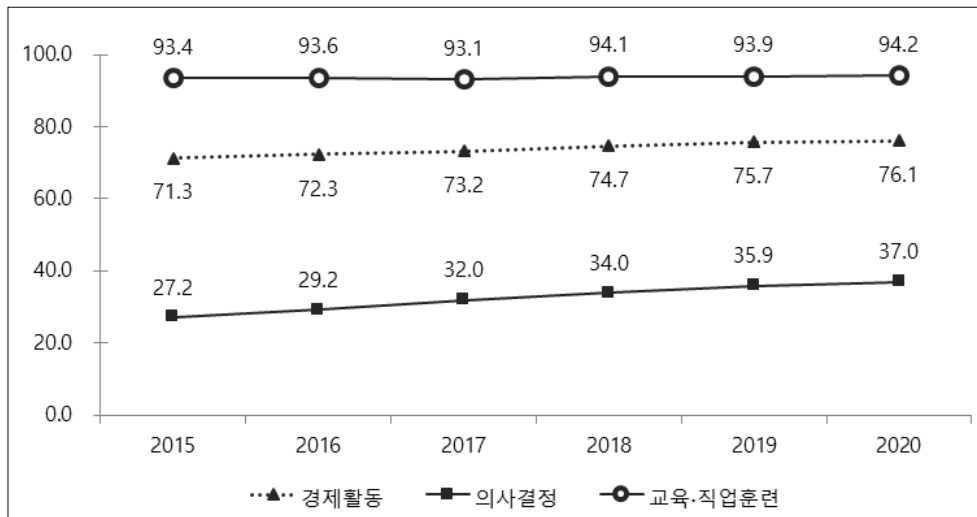


- 경제활동 분야는 2015년 71.3점, 2017년 73.2점, 2019년 75.7점이었고 2020년 76.1점으로 전년 대비 0.4점 상승했다. 2015년 대비 경제활동 참가율, 임금 성비, 상용직 비율은 각각 2.5점, 4.9점, 6.9점 개선됨. 특히 상용직 비율 성비 개선은 지난 5년간 높은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을 끌어올리는데 주된 역할을 함.

- 의사결정 분야는 2015년 27.2점에서 2020년 37.0점으로 9.8점 상승함. 상승 원인은 구성 지표 모두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개선 때문임.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 성비는 2015년 50.9점에서 2020년 64.1점으로 동기간 23.2점 상승하며, 관리자 성비는 동기간 9.0점 상승, 국회의원 성비는 동기간 3.9점 상승, 4급 이상 공무원 성비는 동기간 13.0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2015년 93.4점에서 2020년 94.2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세 지표 모두의 성평등 수준 변화가 높지 않음.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15년부터 완전평등상태(100.0점)를 보이며, 평균 교육년수 격차는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개선 수준은 높지 않음. 직업교육훈련 경험 또한 변화는 크지 않지만, 성비의 등락으로 인해 이 분야의 성평등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됨.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성평등 수준 변화〉

(단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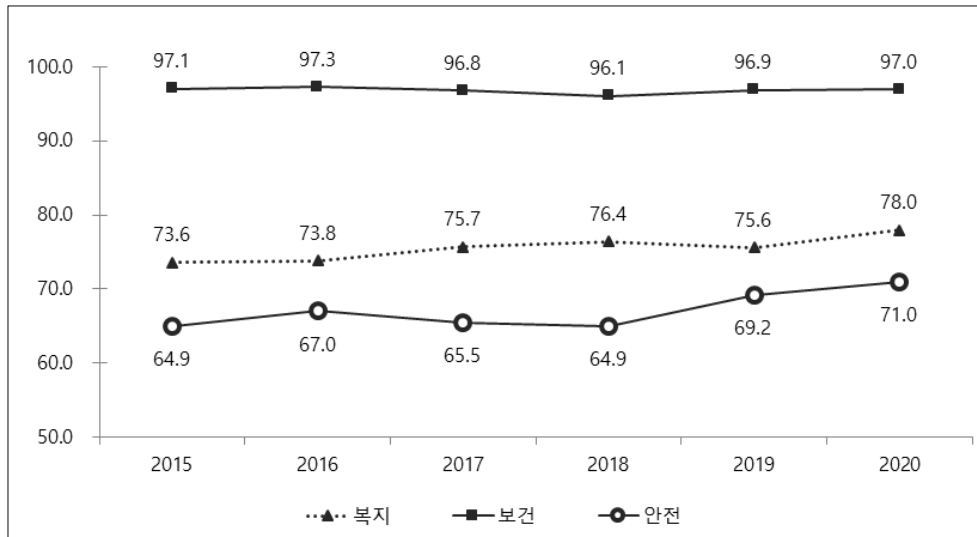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보건 분야는 2015년 97.1점에서 2020년 97.0점으로 동기간 0.1점 하락함.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와 비스트레스인지율 성비가 5년 전과 0.3점씩 낮아진 것이 하락 원인임.
- 복지 분야는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비빈곤 인구 성비, 장애인 고용률로 구성되며, 2015년 73.6점에서 2020년 78.0점으로 4.4점 상승함. 복지 분야의 상승 원인은 공적연금 가입자와 장애인 고용률의 개선 때문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의 경우 2015년 79.4점에서 2020년 88.4점으로 9.0점 개선되며, 장애인 고용률 성비는 동기간 5.4점 상승함.

- 안전 분야의 구성 지표는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 성비와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로 구성됨. 안전 분야는 2015년 64.9점에서 2020년 69.2점으로 6.1점 상승함. 상승의 주된 원인은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의 성비 개선이 높았기 때문임.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 성비는 2015년 65.2점에서 2020년 76.7점으로 11.5점 개선된다.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는 2015년 64.6점 이래 성비가 등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2020년 65.3점으로 0.7점 상승함.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단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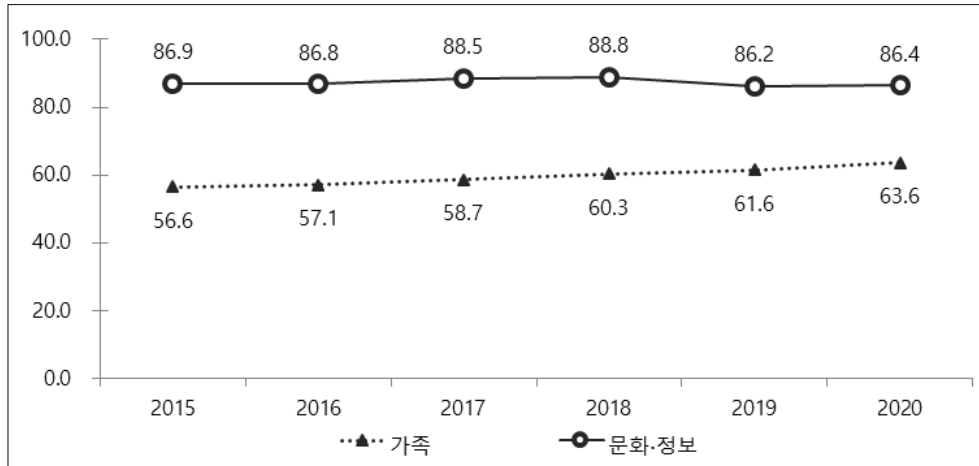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 가족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5년 56.6점에서 2020년 63.6점으로 7.0점 상승함. 점수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육아휴직 성비와 가사노동시간 성비 개선으로 나타남. 육아휴직 성비는 2015년 5.9점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으나 2020년 30.7점으로 크게 상승하여 성평등 정도는 동기간 22.2점 개선되며,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동기간 각각 6.7점 상승함.
- 문화·정보 분야는 2015년 86.9점에서 2020년 86.4점으로 동기간 1.2점 하락함. 문화·정보 분야는 2015년 이래 성비의 등락하면서 하락하며, 하락 원인은 여가 시간 성비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임. 지표 중 여가만족도 성비가 2015년 91.9점에서 2020년 95.2점으로 3.3점 높아지고 성별정보화격차는 2015년 90.9점에서 2020년 92.5점으로

1.6점 개선되나, 여가시간 성비가 동기간 6.4점 낮아짐에 따라 이 분야 성평등이 낮아진 것임.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단위: 완전 성평등=100.0)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6. 분야별 성평등 지표 추이와 특징

- 경제활동 분야는 2020년 76.1점으로 전년(75.7점) 대비 0.4점 상승함.
 - 상용 근로자 비율은 개선되었으나 경제활동참가율 및 성별 임금격차 점수는 하락
 - * 경제활동참가율(%) : (2019) 女 60.0 / 男 78.8 → (2020) 女 59.1 / 男 77.9
 - * 월급여총액(천원) : (2019) 女 2,197 / 男 3,241 → (2020) 女 2,239 / 男 3,306
 - *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 : (2019) 女 62.5 / 男 75.2 → (2020) 女 64.9 / 男 76.7

연도	경제활동 분야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성비
2019년	75.7	76.1	67.8	83.2
2020년	76.1	75.9	67.7	84.6
(증감)	0.4	-0.2	-0.1	1.4

○ 의사결정 분야는 2020년 37.0점으로 전년(35.9점) 대비 1.1점 상승했으나, 여전히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음.

- 4급 이상 여성공무원 증가로 공직에서 여성 대표성이 높아졌으며,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 또한 큰 폭으로 상승

* 4급 이상 공무원(명) : (2019) 女 1,330 / 男 6,905 → (2020) 女 1,464 / 男 6,780

* 국회의원의 여성비율(%) : (2019) 16.7 → (2020) 19.0

*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 : (2019) 40.5 → (2020) 39.5

- 여성관리자 비율은 전년대비 0.6%p 증가하여 성별 격차 감소

* 관리직 중 여성관리자 비율(%) : (2019) 15.4 → (2020) 15.7

연도	의사결정 분야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관리직 성비	정부위원회 위원	
2019년	35.9	19.4	33.3	24.2	66.7
2020년	37.0	22.8	36.3	24.8	64.1
(증감)	1.1	3.4	3.0	0.6	-2.6

○ (교육·직업훈련 분야) '20년 94.2점으로 전년(93.9점) 대비 0.3점 상승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전년 대비 남녀 모두 상승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완전 성평등 수준 유지

- 직업교육훈련 경험률은 남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여성의 감소 폭이 남성에 비해 작아 점수는 소폭 상승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2019) 女 74.5 / 男 66.6 → (2020) 女 76.1 / 男 69.3

* 직업교육훈련 경험률(%) : (2019) 女 51.4 / 男 55.9 → (2020) 女 49.9 / 男 53.9

* 평균 교육년수(년) : (2019) 女 11.8 / 男 13.1 → (2020) 女 11.9 / 男 13.2

연도	교육·직업훈련 분야			
	평균교육년수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직업교육훈련 경험률 성비	
2019년	93.9	89.9	100.0	91.9
2020년	94.2	90.2	100.0	92.5
(증감)	0.3	0.3	0.0	0.6

○ (복지 분야) '20년 78.0점으로 전년(75.6점) 대비 2.4점 상승

- 빈곤율(경상소득 중위값 50% 기준)은 남녀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여성 상승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서, 점수는 0.7점 하락

* 빈곤율(%) : (2019) 女 19.2 / 男 14.5 → (2020) 女 20.5 / 男 15.3

*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 (2019) 女 59.2 / 男 67.9 → (2020) 女 60.8 / 男 68.8

- 장애인 고용률은 여성은 증가하고 남성은 감소하여 점수가 크게 상승

* 장애인 고용률(%) : (2019) 女 21.9 / 男 48.5 → (2020) 女 22.7 / 男 43.8

연도	복지 분야			
	비빈곤 인구 성비	공적연금 가입률 성비	장애인 고용률 성비	
2019년	75.6	94.5	87.1	45.2
2020년	78.0	93.8	88.4	51.8
(증감)	2.4	-0.7	1.3	6.6

○ (보건 분야) '20년 97.0점으로 전년(96.9점) 대비 0.1점 상승하며,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

- 건강 삶의 질, 스트레스 인지율은 성별 격차가 감소하였으나, 건강검진 수검률 성별 격차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

* 건강 삶의 질(EQ-5D) : (2019) 女 0.945 / 男 0.966 → (2020) 女 0.947 / 男 0.967

* 건강검진 수검률(%) : (2019) 女 72.6 / 男 75.6 → (2020) 女 72.5 / 男 75.5

* 스트레스 인지율(%) : (2019) 女 29.8 / 男 27.4 → (2020) 女 30.3 / 男 28.2

연도	보건 분야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¹⁾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²⁾	
2019년	96.9	97.8	96.0	96.7
2020년	97.0	98.0	96.0	97.0
증감	0.1	0.2	0.0	0.3

1) EQ-5D : 건강 관련 삶의 질의 5개 지표(자기관리, 일상 활동, 통증/불편감, 불안, 우울)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한 지표 값(국민건강영양조사)을 표준화한 값

2) 스트레스 인지율 : 스트레스 비인지율로 전환하여 점수 산정

○ (안전 분야) '20년 71.0점으로 전년(69.2점) 대비 1.8점 상승하였지만, 8개 분야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

-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남녀 모두 크게 개선되어 전반적 사회안전인식 성비가 3.6%p 증가함

* 자연재해, 교통사고, 질병, 범죄 등과 기타 주관적 안전인식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인식

** 사회 안전 인식 비율(13세 이상, %) : (2019) 女 22.1 / 男 30.3 → (2020) 女 27.6 / 男 36.0

-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폭행) 피해자는 여성은 증가하고 남성은 감소하여 성비가 하락

*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피해자 비율(%) : (2019) 90.3 → (2020) 90.5

연도	안전 분야	안전 분야	
		전반적 사회안전 인식 성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2019년	69.2	73.1	65.4
2020년	71.0	76.7	65.3
증감	1.8	3.6	-0.1

○ (가족 분야) '20년 63.6점으로 전년(61.6점) 대비 2.0점 상승

-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여전히 남성보다 긴 상태이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

* 가사시간(시간:분) : 취업자 (2019) 女 2:24 / 男 0:49 → (2020) 女 2:26 / 男 0:51
비취업자 (2019) 女 3:50 / 男 1:06 → (2020) 女 3:52 / 男 1:08

* 육아휴직자(명) : (2019) 女 82,868 / 男 22,297 → (2020) 女 84,617 / 男 27,423

-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비교적 큰 폭으로 2.3%p 상승하고,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는 완전 성평등 상태에서 0.6%p 하락

* 가족관계 만족도(%) : (2019) 女 53.6 / 男 60.3 → (2020) 女 56.1 / 男 61.5

*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명) : (2019) 103.2 → (2020) 106.6

연도	가족 분야	가족 분야			
		가사노동시간 성비	육아휴직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2019년	61.6	30.7	26.9	88.9	100.0
2020년	63.6	31.3	32.4	91.2	99.4
증감	2.0	0.6	5.5	2.3	-0.6

- (문화·정보 분야) '20년 86.4점으로 전년(86.2점) 대비 0.2점 하락
 - 여가시간은 남성이 여전히 여성보다 많고, 만족도도 남성이 높음.
 - * 여가시간(시간:분) : 취업자 (2019) 女 2:39/男 3:20 → (2020) 女 2:32/男 3:13
비취업자 (2019) 女 4:27/男 6:31 → (2020) 女 4:20/男 6:24
 - * 여가만족도(%) : (2019) 女 28.2 / 男 29.4 → (2020) 女 28.9 / 男 30.3
 - 정보화 수준은 여성은 소폭 상승, 남성은 소폭 하락하여 성별 격차 감소
 - * 정보화 수준(%) : (2019) 女 95.1/男 104.9 → (2020) 女 96.1/男 103.9

연도	문화·정보 분야			
	여가시간 성비	여가만족도 성비	성별 정보화격차	
2019년	86.2	72.1	95.9	90.7
2020년	86.4	71.4	95.2	92.5
증감	0.2	-0.7	-0.7	1.8

7. 국제 성평등지수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 GGI의 경우 2021년 발표 기준 한국은 전체 156개국 중 102위로 전년 대비 6계단 순위가 상승
 - 2021년도의 지수는 0.687점으로 전년 대비 0.15점 상승
 - 지표별로 보면 전년 대비 유사 업무 임금 성비, 추정소득, 관리직 비율, 전문직 비율, 국회의원 비율, 장관 비율은 순위와 점수 모두 상승했으며, 건강기대수명은 순위와 점수 모두 하락함.
- GDI의 경우 2020년 발표 기준으로 한국은 189개국 111위로 3그룹으로 분류됨.
 - HDI 점수가 여성 0.881, 남성 0.941로 집계되어 GDI 점수는 0.936임.
- GII의 경우 2020년 발표 기준으로 한국은 189개국 중 11위(0.064)로 전년도와 1계단 하락함.

8. 성평등지수 관련 정책과제

-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2018~2022),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8~2022) 등의 성평등관련 정책과 연계표를 제시함. 연계는 분야별 지표별로 연계하여 제시했으며, 국정과제와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은 정책 연변을 연계표로 제시함.

○ 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국가성평등지수가 법적 근거를 두고 개발·공표되는 지수로서, 향후 관리와 개발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여성가족부는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지표별 성평등 수준을 점검하고 불평등이 심화된 지표에 대해 관련 부처와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국가성평등지수의 관리는 지역성평등지수와 더불어 웹 DB를 구축하고 상시 공개 체계를 갖추어야 함.
- 넷째, 성평등지수의 지표 중 성별 불평등이 높거나 개선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과의 연계 분석이 필요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과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7
II. 국가성평등지수 개요	9
1. 지표의 특징과 구성	11
가. 국가성평등지수의 개발과 특징	11
나.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 및 분야별 지표구성	14
2. 산정방법	16
III.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추이	23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	25
가.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추이	25
나. 정책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26
2. 분야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32
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32
나.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	44
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53
IV.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수준	61
1.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63
가.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소개	63
나. GG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68
2. 유엔개발계획의 성개발지수와 성불평등 지수	75
가. 남녀개발지수의 소개	75

나. GD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79
다. 성불평등지수 소개	83
라. GI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89
3. 국제성평등지수 비교와 한국 성평등 수준 차이	93
가. 국제성평등지수 간 차이 비교	93
나.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 성평등 수준 차이 해석	95
V. 국가성평등 수준 평가와 제고 전략	99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	101
2. 국가성평등지수와 성평등 정책의 연계	103
3. 국가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115
■ 참고문헌	119
■ 부 록	123
〈부록 1〉 분야별 성평등 지표의 통계표	125
〈부록 2〉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159

표 목 차

〈표 I-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	6
〈표 II-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 변화	12
〈표 II-2〉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13
〈표 II-3〉 「양성평등기본법」 조항과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15
〈표 II-4〉 2018년 성평등지수의 지표 값 산정에 적용되는 가중치	18
〈표 II-5〉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가중치	20
〈표 II-6〉 2020년 추정 통계를 활용한 지표들	20
〈표 II-7〉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21
〈표 III-1〉 성 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성평등지수 변화	44
〈표 III-2〉 인권·복지 영역 성평등지수 변화	53
〈표 III-3〉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성평등지수 변화	60
〈표 IV-1〉 GGI의 구성 및 각 영역별 지표	64
〈표 IV-2〉 GGI의 지표구성과 자료원	66
〈표 IV-3〉 GGI 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67
〈표 IV-4〉 한국의 GGI 수준 추이	69
〈표 IV-5〉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의 GGI 수준 추이	70
〈표 IV-6〉 교육적 성취 분야의 GGI 수준 추이	71
〈표 IV-7〉 건강과 생존 분야의 GGI 수준 추이	71
〈표 IV-8〉 정치적 권한 분야의 GGI 수준 추이	72
〈표 IV-9〉 OECD 국가 중 GGI 1위 국가와 한국간의 점수격차(2020년*)	73
〈표 IV-10〉 OECD 회원국의 GGI 현황(2020년*)	73
〈표 IV-11〉 기존 GDI와 새로운 GDI 비교	75
〈표 IV-12〉 GDI 영역과 지표	76
〈표 IV-13〉 GDI 지표별 자료원	77
〈표 IV-14〉 GDI의 최대·최소값 설정	78
〈표 IV-15〉 한국의 GDI 수준	80
〈표 IV-16〉 기존 GDI의 한국 수준	80

〈표 IV-17〉 OECD 회원국의 GDI 현황(2019년*)	82
〈표 IV-18〉 GII의 영역과 지표	86
〈표 IV-19〉 GII 지표별 자료원	86
〈표 IV-20〉 한국의 GII 수준 추이	90
〈표 IV-21〉 OECD 회원국의 GII 현황(2019년*)	91
〈표 IV-22〉 국제성평등지수별 OECD 회원국 내 한국의 순위	93
〈표 IV-23〉 국제기구 및 한국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비교	94
〈표 IV-24〉 GGI, GDI, GII 차이 비교	97
〈표 V-1〉 연계표에 활용된 성평등 정책 목록	104
〈표 V-2〉 국가성평등지수와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05
〈표 V-3〉 국가성평등지수와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07
〈표 V-4〉 국가성평등지수와 교육·직업훈련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08
〈표 V-5〉 국가성평등지수와 복지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09
〈표 V-6〉 국가성평등지수와 보건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10
〈표 V-7〉 국가성평등지수와 안전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11
〈표 V-8〉 국가성평등지수와 가족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13
〈표 V-9〉 국가성평등지수와 문화·정보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14

그림 목 차

[그림 I-1] 본 연구의 주요 내용	5
[그림 II-1] 국가성평등지수 산정방법	16
[그림 III-1]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25
[그림 III-2] 국가성평등지수 증감	26
[그림 III-3]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27
[그림 III-4]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29
[그림 III-5] 여성 인권·복지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30
[그림 III-6]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31
[그림 III-7] 성별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변화 추이	33
[그림 III-8] 연도별 임금성비 변화 추이	34
[그림 III-9] 성별 상용직 근로자 비율 변화 추이	35
[그림 III-10] 경제활동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35
[그림 III-11] 국회의원 여성 비율 변화 추이	37
[그림 III-12] 성별 4급 이상 공무원 변화 추이	38
[그림 III-13] 성별 관리자 변화 추이	39
[그림 III-14] 성별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변화 추이	39
[그림 III-15] 의사결정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40
[그림 III-16] 성별 평균 교육년수 변화 추이	41
[그림 III-17]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변화 추이	41
[그림 III-18] 성별 직업교육 훈련경험자 비율 변화 추이	42
[그림 III-19] 교육·직업훈련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43
[그림 III-20] 성별 공적연금 가입률 변화 추이	45
[그림 III-21] 성별 빈곤율 변화 추이	45
[그림 III-22] 성별 장애인 고용률 변화 추이	46
[그림 III-23] 복지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47
[그림 III-24]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지수 변화 추이	48
[그림 III-25]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변화 추이	48

[그림 III-26]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변화 추이	49
[그림 III-27] 보건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50
[그림 III-28]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 변화 추이	51
[그림 III-29] 성별 강력범죄(홍악범죄) 피해자 변화 추이	51
[그림 III-30] 안전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52
[그림 III-31] 가사노동 시간 변화 추이	54
[그림 III-32]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추이	55
[그림 III-33]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변화 추이	55
[그림 III-34] 성별 육아휴직자 수 변화 추이	56
[그림 III-35] 가족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57
[그림 III-36] 남녀 여가시간 및 여가시간 성비 변화 추이	58
[그림 III-37] 성별 여가만족도 변화 추이	58
[그림 III-38] 성별 정보화 격차 변화 추이	59
[그림 III-39] 문화·정보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60
[그림 V-1] 성인지통계시스템의 성평등지수 서비스 화면	117

부 표 목 차

〈부표 1-1〉 경제활동참가율	125
〈부표 1-2〉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125
〈부표 1-3〉 상용근로자	125
〈부표 1-4〉 정규직 근로자	126
〈부표 1-5〉 고용률	126
〈부표 1-6〉 전문직(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여성비율	126
〈부표 1-7〉 30대 고용률	126
〈부표 1-8〉 대졸자 실업률	127
〈부표 1-9〉 평균 근속년수	127
〈부표 1-10〉 월평균 근로시간	127
〈부표 1-11〉 청년층 고용률	127
〈부표 1-12〉 비정규직 여성 사회보험가입률	128
〈부표 1-13〉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체의 의무이행 현황	128
〈부표 1-14〉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	128
〈부표 1-15〉 국회의원 비율	129
〈부표 1-16〉 4급 이상 공무원	129
〈부표 1-17〉 관리자 현황	129
〈부표 1-18〉 기업의 과장급 이상 관리직 수	130
〈부표 1-19〉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중앙행정기관)	130
〈부표 1-20〉 초·중·고등학교 교장	130
〈부표 1-21〉 대학 교수 현황	131
〈부표 1-22〉 공무원 수	132
〈부표 1-23〉 고위공무원단(일반직) 여성 현황	132
〈부표 1-24〉 여성장관 현황	132
〈부표 1-25〉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133
〈부표 1-26〉 여성 사업체 대표자	133
〈부표 1-27〉 평균 교육년수	133
〈부표 1-28〉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34

〈부표 1-29〉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134
〈부표 1-30〉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135
〈부표 1-31〉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자	135
〈부표 1-32〉 초중고 여성 교장·교감 현황	136
〈부표 1-33〉 대학 전공별 여교수 비율	137
〈부표 1-34〉 학생 1인당 사교육비	138
〈부표 1-35〉 전공계열별 대졸 취업률	139
〈부표 1-36〉 교육전문직 여성 현황	139
〈부표 1-37〉 평생학습 참여비율	140
〈부표 1-38〉 기술사, 기능장 현황	140
〈부표 1-39〉 가구주 직업훈련 참가자 수	141
〈부표 1-40〉 빈곤율	142
〈부표 1-41〉 공적연금가입자	142
〈부표 1-42〉 장애인고용률	143
〈부표 1-43〉 기초생활수급자 수	143
〈부표 1-44〉 장애인 교육수준	143
〈부표 1-45〉 장애인 등록자 수	144
〈부표 1-46〉 고용보험 가입자	144
〈부표 1-47〉 건강관련 삶의 질(EQ-5D)	144
〈부표 1-48〉 건강검진 수검률	145
〈부표 1-49〉 주관적 건강상태(15~64세)	145
〈부표 1-50〉 영양급여 (청구)수급자	145
〈부표 1-51〉 평균 수명(0세 기대여명)	145
〈부표 1-52〉 모성사망비	146
〈부표 1-53〉 청소년 출산율	146
〈부표 1-54〉 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146
〈부표 1-55〉 주요 암 환자 수	147
〈부표 1-56〉 만성질환 유병률	147
〈부표 1-57〉 활동제한일수	148
〈부표 1-58〉 자살 생각률	148
〈부표 1-59〉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148

〈부표 1-60〉 강력범죄(흉악범죄) 피해자	149
〈부표 1-61〉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강간) 발생 건수	149
〈부표 1-62〉 가정폭력 처분인원 및 기소율	150
〈부표 1-63〉 가정폭력 피해자	150
〈부표 1-64〉 성매매 범죄자 기소율	150
〈부표 1-65〉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 건수	151
〈부표 1-66〉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51
〈부표 1-67〉 성별, 취업여부별 평균 가사노동 시간	151
〈부표 1-68〉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52
〈부표 1-69〉 가족관계 만족도	152
〈부표 1-70〉 육아휴직자	152
〈부표 1-71〉 경제활동상태별 노인부양 평균 시간	153
〈부표 1-72〉 유배우 가구의 남녀 가구주 비율	153
〈부표 1-73〉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및 아동 현황	154
〈부표 1-74〉 출산휴가 사용 건수	154
〈부표 1-75〉 성 및 취업상태별 여가시간	155
〈부표 1-76〉 여가 만족도(전 연령)	155
〈부표 1-77〉 성별 정보화 격차	155
〈부표 1-78〉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156
〈부표 1-79〉 문화콘텐츠 산업종사자	157
〈부표 1-80〉 생활체육 참여율	157
〈부표 1-81〉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시간	158
〈부표 2-1〉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159

I

서론

- | | |
|---------------|---|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
| 2. 연구내용과 방법 | 5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는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즉, 성평등은 ‘양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고 동등한 지위에서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평등은 직·간접적으로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매년 발간하는 글로벌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서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와 함께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와 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 분석에 의하면, 두 지수 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 2007) 등 다양한 연구에서는 경제성장률과 성평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고된다.¹⁾

1995년은 북경 세계여성행동강령에서 각국에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정책전담 국가기구를 설치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각 국은 여성정책전담 국가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성평등정책을 이행·점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평등 정책을 주관하는 국가기구는 1988년 정무장관실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98년 대통령소속 여성특별위원회로 이어져 여성정책을 담당했고 정부조직법 개정과 더불어 2010년 현재의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어 성평등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는 노동이 존중되고,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국정전략 중 하나로 추진하면서, 경제활동, 가족,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성평등이 실현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를 보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2021년 발표 기준 156개국 중 102위²⁾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성평등 수준은 측정되는 모든 영역에서 성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은 123위, 교육적 성취영역은 104위, 건강과 생존 영역은 54위, 정치적 권한 영역은 68위로 모든 영역에서 중하위권 이하의 수준을 보인다.

성평등지수는 성평등 수준을 계량화하여 보여주는 수치로, 특정 집단의 성평등 위치를 보여줄 뿐 아니라, 성평등 수준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점검과 관련 정책 혹은 제도의

1) 김태홍 외(2010), 「2010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3 인용.

2) WEF(2021), The Global Gender Gap Index 2021.

평가 등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국가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이들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성평등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의 '3-2-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에서 성평등지표를 통한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2009년 개발되어 매년 발표된다. 2015년 7월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국가성평등지수를 공식으로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19조)를 마련하게 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1항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개발 및 보급 사항에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의 식·문화, 여성의 인권·복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

국가성평등지수는 2009년 시범 작성된 이후 현재 3개 영역, 8개 분야, 25개의 지표 체계로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개선 정도를 측정하고 성불평등이 심각한 분야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해 왔다 또한,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킴으로써 성평등에 대한 정책 수요를 가져오게 한다.

국가성평등지수는 2019년 기존 지표체계를 사회 변화상 반영과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표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였다. 지표체계 개편은 참여의 기회 보장, 자원의 동등한 접근과 인정을 통한 결과의 평등 보장이란 실질적 성평등 달성을 위한 조건을 고려하여 3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별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7개의 영역과 위성영역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은 전문가의 자문, 공청회, 국가성평등지수 검토위원회를 거치면서 최종 지표안을 확정 중에 있다.

2021년 연구는 현행 국가성평등지수 지표체계에 따라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하위 지표들의 분석하여 성평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성격차지수(GGI), 성불평등지수(GII) 등 국제성평등지수를 분석하여 한국의 성평등 위치와 성평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의 전략적 정책 방향을 검토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3) 주재선 외(2018), 「2017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p3~4 인용.

2.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각 범주의 세부 내용은 [그림 I-1]과 같다.



[그림 I-1] 본 연구의 주요 내용

1)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및 추이 분석

본 연구는 국가성평등의 구성지표들을 측정하고 영역·분야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여 복합지수 형태의 국가성평등지수를 산정한다. 성평등 지표는 지표의 주기를 고려하여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하며, 성평등 복합지수와 영역별, 분야별, 지수별 수준에 대해 최근 6년간의 시계열 변화추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영역별 구성 지표들의 변화를 주요 변수 등을 통해 국가 성평등지수와 영역별 변화 특징과 원인을 추적하고 지표별 분석을 통해 국가성평등지수의 변화 원인을 파악하고 영역별 변화의 특성을 진단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가성평등지수의 특성을 제시하고 지표구성과 산정 방법,

자료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은 3개 영역, 8개 분야, 25개의 지표로 측정되며, 구체적인 구성 내용은 <표 I-1>과 같다.

<표 I-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

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 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교육·직업훈련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비빈곤 가구주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장애인고용률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비율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가사노동 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성별 정보화 격차

2)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성평등 위치 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 값이 성평등 수준을 어느 정도 나타내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분석한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성평등지수 중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 성개발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와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의 특징과 한국의 수준을 분석한다.

3) 국가성평등 수준 평가와 제고 전략 도출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의 특징을 요약하고, 국가성평등지수와 성평등 정책을 연계하였다. 정책 연계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중 성평등 정책과 연관 있는 사업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와 연계하여 제시한다.

4)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 및 자료원 현행화

본 연구는 국가성평등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25개의 지표뿐 아니라 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점검하고 성불평등의 원인 파악을 위해 제시되었던 관리지표에 대한 통계와 자료원을 갱신한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기존 문헌연구 및 통계수집·분석을 실시한다. 성평등지수와 관련된 문헌연구, 성평등지수 관련 방법론, WEF, UNDP 등 국제기구의 성평등지수 등에 대한 문헌을 검토한다. 또한, 분야별 성평등 지표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자료원을 갱신한다. 이외에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 양성평등기본계획,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 등의 정책을 검토한다.

둘째,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한다. 전문가 자문은 성평등지표 활용을 위한 자문과 최종보고서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한 자문과 국가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내용에 대해 자문을 얻는다.

II

국가성평등지수 개요

1. 지표의 특징과 구성	11
2. 산정방법	16

1. 지표의 특징과 구성⁴⁾

가. 국가성평등지수의 개발과 특징

국가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성 불평등이 심각한 분야를 진단하여 성평등 정책 수립과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다. 이 지수는 2009년도에 여성 및 사회지표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전문가 및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분야와 지표 초안을 구성하였고, 법적 기반이 구축되면서 분야와 지표들이 조금씩 변경되어왔다. 이에 지표구성의 변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표 II-1>과 같다.

2009년 지표구성은 8개 분야 226개의 성평등지표 풀(pool)을 학계 및 정부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제안받아, 자문회의, 분야별 전문가집단(교수, 연구자, 행정공무원 등) 대상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표지표 21개, 관리지표 83개로 확정되었다. 여기서 대표지표란 우리나라 전체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변화 추이, 변동 요인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과 동시에, 국가성평등지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를 의미한다. 이에 대표지표는 분야별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의 조사결과와 통계의 측정 가능성, 품질, 주기 등을 고려하여 21개를 선정하였다. 대표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83개)들은 관리지표로 분류하였고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성불평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009년에 개발된 지표는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에 걸쳐 약간씩 구성상의 변화가 있었다. 개편된 지표는 성평등 수준이 완전 평등상태에 도달하거나, 성평등 측정의 적합성, 통계의 품질 문제 등을 고려하고 당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였다. 2016년 이후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있었으나, 2019년 성평등지수에 대한 전면 개편 연구가 진행되고 이후 성평등 지표 확정을 위한 TF 등이 구성됨에 따라 지수 측정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단, 2018년은 복지 분야의 빈곤 가구주 비율을 성별 빈곤 인구로 변경하였다. 지표를 가구 단위의 빈곤에서 개인 단위의 빈곤으로 변경하고 빈곤 기준선을 최저소득 이하의 절대 빈곤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상대빈곤으로 변경하였다.

4) 주재선 외(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11~23. 인용 및 수정하여 제시함

〈표 II-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 변화

연도	지표구성 개편 내용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8개 분야 226개 지표폴 구성 후 자문회의를 통해 8개 분야 149개 지표 구성 ○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200명)하여 대표지표 21개, 관리지표 82개, 분야별 가중치 측정 ○ 최종 8개 분야(가족, 보건, 복지, 경제활동·소득,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 21개의 대표지표로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분야 20개의 지표로 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건강수명' 지표가 생산주기가 불규칙하고 완전 평등수준 도달로 삭제 -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성별 격차'를 '건강 관련 삶의 질(EQ-5D)'로 대체 - '인구 10만명 당 범죄 피해자 성별 격차'를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피해자 비율'로 대체 - '성별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을 '상용직 근로자 비율'로 대체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분야 21개의 지표로 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입원급여 수급자의 성비'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자의 성비'로 지표명 변경 - 보건 분야에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 추가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국가성평등지수 작성의 법적 근거 마련 ○ 8개 분야 23개의 지표로 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분야에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와 '육아휴직 성비' 지표 추가 - 문화·정보 분야에서 '성별 정보화 격차'를 추가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성비' 삭제 - 보건 분야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자 성비' 삭제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분야 25개의 지표로 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 분야에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을 '4급 이상 공무원 비율'로 수정하고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추가 - 보건 분야에서 '스트레스 인지율' 추가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 분야 빈곤지표 측정 방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빈곤가구주를 성별 빈곤인구로 변경함. 즉, 가구 단위 빈곤 지표를 개인 단위 빈곤으로 변경하고 빈곤 기준선을 최저소득 이하의 절대 빈곤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상대 빈곤 기준선으로 변경.

자료: 주재선 외(2018), 『2018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12. 인용 및 보완.

국가성평등지수는 2015년 법적 생산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2009년 첫 개발 시 국가성평등지수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의 '3-2-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를 토대로 성평등지표를 통하여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산정·발표되었으나, 2015년 7월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공표되면서 법적 근거(제19조)를 갖게 된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 19조는 ①항을 보면, 국가성평등지표는 세 개의 영역 즉,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국가성평등지수는 경제, 교육, 문화, 보건, 복지, 인권,

의사결정의 양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II-2〉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p>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p> <p>②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p> <p>(이하 생략)</p>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5조
<p>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공표 등) ①여성가족부 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이하 "국가성평등지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이하 "지역성평등지수"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2. 보건, 복지 및 인권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3. 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4.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p>(이하 생략)</p>

자료: 법제처(2021.11.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복합지수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과 성격을 가진다.

첫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정책의 투입(Input)보다 성과(Outcome)를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 성평등지수는 지수의 목적에 따라 투입지표와 성과지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성평등지수 중 OECD의 사회제도와 젠더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는 성 불평등을 초래하는 전통, 사회적 규범, 문화적 관습 및 제도와 같은 투입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하지만 대부분 국제성평등지수는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성평등을 측정한다. 성평등 수준의 국가별 비교를 위해서 측정·발표되고 있는 WEF의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Social Watch의 성형평성지수(Gender Equity Index), UNDP의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와 성개발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는 물론 지금은 발표되지 않지만 2010년까지 가장 널리 활용되었던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또한 성과지표로 기준으로 측정되는 지수이다.

둘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성별 수준(Level)보다 성별 격차(Gap)에 초점을 두고 측정된다. 성별 수준은 자원과 기회에 대한 남녀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준은 한 국가의 개발 정도와 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단점으로 인해, 분야별 성평등 수준이 성취 정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 국가성평등지수를 성별 격차로 산정한다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성격차 해소에 두고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여성의 수준 개선과 성 격차의 해소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성평등 정책의 지향점에 따라서 약간 달리 해석된다. 즉, 성평등 정책의 지향점을 수준 개선에 둔다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항상 낮은 수준의 지표 개선에 있을 것이고, 성격차 해소에 둔다면 남녀의 수준 차이가 큰 지표에 우선순위를 두고 개선하게 될 것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원칙적으로 두 목적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측정방법론 관점으로 볼 때, 성별 격차의 해소에 더 큰 관심을 둔 지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성평등지수는 성 격차가 감소할 때 성평등이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셋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데 활용하는 지표와 함께 각 분야의 성평등 정도를 점검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측정된다. 이에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 달 성뿐만 아니라 여성 지위 및 권한 향상을 목적으로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성평등지수는 대표지표와 관리지표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표지표는 지수 산정에 활용하고 관리지표는 성평등 변화를 점검하고 성평등 변화 원인, 성평등 정책 효과 등을 추적하기 위해 활용된다.

나.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 및 분야별 지표구성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제19조 ①항과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영역과 분야를 구성하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은 3개의 정책영역, 8개 분야의 2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있는데, 3개의 정책영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는 영역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제3장 중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국가성평등지수의 정책영역으로 구성되어있고 정책 영역의 분야는 시행령 15조에 따라 정책영역별로 배치하고 있다.

제3장 제2절 양성평등 참여와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제20조 적극적 조치, 제21조 정책결정과과정 참여, 제22조 공직 참여, 제23조 정치 참여, 제24조 경제활동 참여, 제25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26조 일·가정 양립지원, 제27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28조 여성인재의 관리·육성으로 구성되어 있다.⁵⁾ 이들은 시행령 15조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에서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와 연계 구성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의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영역은 제29조 성차별의 금지, 제30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 제32조 성희롱 실태조사, 제33조 복지증진, 제34조 건강증진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시행령 15조에 근거하여 국가성평등지수 중 복지, 보건, 안전 분야에 연계되어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단, 시행령 15조는 복지, 보건, 인권으로 되어 있으나, 인권 분야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안전으로 좁혀 제시하였다.

〈표 II-3〉 「양성평등기본법」 조항과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정책영역	분야	지표
① 성평등한 사회참여 - 「양성평등기본법」 제2절 - (양성평등 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 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교육·직업훈련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② 여성의 인권·복지 - 「양성평등기본법」 제3절 -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복지	비빈곤인구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장애인고용률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	전반적 안전의식 비율 강력범죄(홍약법) 피해자 비율
③ 성평등 의식·문화 - 「양성평등기본법」 제4절 -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가족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비율 육아휴직자 비율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성별 정보화 격차

자료: 주재선 외(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 16. 인용

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의 제4절 양성평등 문화확산 등에 속하는 조항으로는, 제35조 양성평등한 가족, 제36조 양성평등 교육, 제37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제38조 양성평등주간, 제39조 여성친화도시, 제40조 국제협력, 제41조 평화·통일 과정 참여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시행령 15조에 의해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로는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정책영역과 분야를 연계한 후 지표는 정책영역의 성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하였다. 단, 지표의 선택은 통계의 주기, 품질, 안정성, 포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분야별 지표 구성은 2016년 일부 변경 후 2017년부터는 산정의 안정성을 위해 변경 없이 8개 분야 25개를 유지하고 있다.

2. 산정방법⁶⁾

국가성평등지수는 다음의 5단계를 거쳐 복합 지수로 산정된다.



[그림 II-1] 국가성평등지수 산정방법

6) 주재선 외(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 16-22에서 인용 및 수정

단계1은 지표를 표준화(Normalization)하는 단계이다. 표준화는 지표값을 성평등 최저점 '0'에서 최고점 '1(혹은 100)'로 만드는 과정이다. 모든 지표는 남녀의 비율 50% 지점에서 완전 성평등 기준점 '1(혹은 100)'을 만족하며, 지표의 최저치와 최고치를 제한하지 않는다. 단, 강력범죄피해자와 같은 부정적 지표는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한하고 있다. 최대-최소치를 설정한다는 것은 지표의 수준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강력범죄피해자의 경우 10만 명당 최대치는 300명(으로 제한했고 최소치는 피해자가 없는 0명으로 두었다. 지표 값이 최대치에 가까울수록 높은 페널티를 받아 0에 가깝게 되고, 역으로 최소치에 가까울수록 1에 수렴하게 된다. 이 지표의 표준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⁸⁾

$$I = [(Max(x) - x) / [(Max(x) - Min(x))]$$

단계2는 지표 값을 성비(Female-to-male ratio)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수준 자체보다 여성과 남성의 성취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 지표 값을 남녀의 성비로 전환한다.

단계3은 성비로 전환된 지표 값을 관련 대상 모집단으로 보정 하는 단계이다. 성평등은 남녀가 동등한 권리, 의무, 기회를 얻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정한 성평등지표의 지숫값을 산정할 경우, 해당 성평등 지표의 대상이 되는 성별 인구로 조정한다. 국가성평등지수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보면 <표 II-4>와 같다.

경제활동 분야의 지표 중에서 상용근로자와 관리자의 경우 각각 15세 이상 남성 임금근로자에 대한 여성 임금근로자 비율의 역수와 남성 취업자에 대한 여성 취업자 비율의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하고 있다.

가족 분야의 셋째 아 출생성비는 자연출생성비(Sex ratio at birth)를 가중치로 활용하고 있다. 성비 계산도 국제기구와 동일한 방식인 여성 대비 남성 비의 역수를 활용하며,

7) 최대치를 300으로 제한한 이유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7개 시도의 강력범죄자의 10만 명 당 발생 건수는 여성의 경우 최소 48.8명, 최대 140.7명이고 남성의 경우 최소 9.1명, 최대 49.4명이었다. 이에 10만명 당 최대 발생 건수인 140.7명의 두 배를 수준인 300명을 페널티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두었다. 페널티 기준(300)에 가까우면 점수가 크게 낮아지며, 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 성비와 관계없이 성평등 점수는 0점이 된다.

8) 지수의 표준화 방법은 기준점(reference point)으로부터 거리, 범주별 점수화, 서열화 $I = Rank(X)$, 정규화 $I = \frac{X - X_m}{\sigma}$, 최소-최대 $I = \frac{X - Min(X)}{Max(X) - Min(X)}$, 평균 이상과 이하의 점수화 등 크게 9가지가 있음. 표준화 방법과 특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ECD(2008), pp. 27-30 참조.

여기에 자연 출생 성비인 1.06을 가중치로 부여한다. 그리고 가사노동시간은 취업 여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과 비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 평균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표 II-4〉 2018년 성평등지수의 지표 값 산정에 적용되는 가중치

분야별 성평등지표	가중치	분야별 성평등지표	가중치
경제활동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	
경제활동참가율	-	평균 교육년수	-
성별 임금 격차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상용근로자 비율	임금근로자 성비 역수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임금근로자 성비 역수
가족 분야		의사결정 분야	
가사노동 시간	취업상태별 평균 가사노동시간 활용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인구의 성비 역수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자연출생성비 1.06 역수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전체 공무원 수의 성비 역수
가족관계 만족도	-	관리자 비율	취업자 성비 역수
육아휴직자	-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
보건 분야		복지 분야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	비빈곤인구 비율	-
건강검진 수검률	-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18~59세 인구 성비 역수
스트레스 인지율	-	장애인고용률	-
문화·정보 분야		안전 분야	
여가시간	취업상태별 평균 여가시간 활용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
여가만족도	-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비율	전체 인구 성비 역수
성별 정보화 격차 (디지털정보화격차)	-		

주: 성비는 지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여성/남성」 비율을 나타냄.

의사결정 분야의 경우는 지표를 2016년에 5급 이상 공무원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교체하였다. 4급 이상 직급의 공무원 성비 '(4급 이상 여성 공무원)/(4급 이상 남성 공무원)'에 대해 가중치, 즉 남녀공무원 성비의 역수인 '(전체 남성 공무원 수/전체 여성 공무원 수)'를 활용하고 있다.

공무원 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동 분야 지표인 국회의원 비율과 관련된 가중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선거권 행사 연령인 25세 이상 인구 성비의 역수이다.

복지 분야의 지표인 공적연금가입자 비율은 18~59세 인구 성비 역수를 가중치로 적용하였다. 이외 문화·정보 분야의 지표인 여가시간의 가중치는 20세 이상 인구의 성비 역수이고, 안전 분야의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성비를 가중치로 설정하였다. 또한, 여가 시간은 앞서 가사노동시간과 동일하게 취업상태의 영향을 고려하여 취업자의 여가 시간과 비취업자의 여가 시간을 평균한 값을 활용하고 있다.

단계4는 분야별 점수를 산정하는 단계이다. 분야별 지숫값은 단순 평균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국제성평등지수 중 WEF의 GGI는 각 하위분야 지수에 속하는 지표의 가중치를 이용해서 분야별 지수 값을 산정한다. 이때 가중치는 지표 값의 표준편차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해서 남녀격차가 큰 국가는 상대적으로 큰 패널티를 받도록 설계하였다⁹⁾. 이와 같은 방식은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차이가 작은 지표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케 할 수 있으나 한 국가의 지수 산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볼 수 없다. 이에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지수는 모든 지표 값의 개선 정도를 동일한 가치로 보고 단순 평균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단계5는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산정하는 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서로 다른 8개 분야의 구성 지표들로 구성된 복합지수(Composite Index)로, 분야별 가중치를 활용하여 산정된다. 국가성평등지수의 가중치는 계층적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이란 통계적 방법을 통해 산출하였다. 계층적 분석법은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성평등지수의 가중치는 2009년 성평등 관련 전문가인 교수, 연구자,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분석 결과 상대적 가중치는 경제활동 0.19, 의사결정 0.13, 교육·직업훈련 0.14, 복지 0.13, 보건 0.10, 안전 0.12, 가족 0.11, 문화·정보 0.08이었다. 본 연구에서 성평등지수의 최종 지표 값은 개별 분야별 지표 값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9) GGI의 교육 분야의 지표 중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을 보면 2012년 지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표준편차가 적은 초등학교 취학률(표준편차: 0.060)의 가중치가 0.459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중등학교(표준편차: 0.120) 0.230, 고등교육기관(표준편차: 0.228) 0.121순이었음(WEF(2012), p.5.)

〈표 II-5〉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가중치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0.19	0.13	0.14	0.13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0.10	0.12	0.11	0.08

한편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 산정원칙은 2020년 기준의 통계를 활용한다. 하지만 국가성평등지수 중 일부 지표의 경우 생산 주기가 1년 이상(2년 혹은 5년)이며, 1년 주기인 경우에도 2021년 11월 말까지 공표되지 못한 통계가 있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는 외삽법(extrapolation)을 이용한 추정치를 활용하고 있다. 외삽법은 일반적으로 5년의 평균 변화를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나, 2년 주기는 두 조사의 평균 변화를 통해 산정했다. 단, 4년 주기인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보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값은 선거 이후 보궐선거가 아니면 다음 선거까지 통계 변화가 거의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새로운 통계가 생산되는 해까지 동일한 지표 값을 사용하고 있다.¹⁰⁾

〈표 II-6〉 2020년 추정 통계를 활용한 지표들

지 표	추정 방법	주기
가사노동 시간의 성비,	2014년과 2019년의 평균변화를 적용	5년
여가시간의 성비	2014년과 2019년의 평균변화를 적용	5년
평균 교육년수 성비,	2010년과 2015년의 평균변화를 적용	5년
여가 만족도 성비	2017년과 2019년의 평균변화를 적용	2년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2014년과 2019년의 평균변화 적용	1년
건강관련 삶의 질(EQ-5D)	2014년과 2019년의 평균변화 적용	1년
건강검진수검률	2014년과 2019년의 평균변화 적용	1년

10) 선거를 통해 얻은 통계는 선거 당해 당선자를 기준으로 지표 값을 산정함. 선거에 의한 의회의원과 단체장 당선자 통계는 매년 다양한 이유로 성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의회 의원의 경우 의원 자격이 박탈될 경우 비례대표 순위에 따라 성비가 변경될 수 있고, 자치단체장 또한, 재선거 등이 이루어질 경우 성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수정하여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역성평등지수 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통계가 공표될 때까지 이와 같은 방법을 유지하고자 한다.

〈표 II-7〉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분야 및 분야별 지표	지표 값 계산방법	계산 산식	비고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X = [F / M]$	15-64세 인구
성별 임금격차	남녀 근로자의 임금 성비	$X = [F / M]$	
상용근로자 비율	대상 남녀 임금근로자 비율로 조정된 상용근로자 성비	$X = W_{m/f} \times [F / M]$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남녀 인구 비율로 조정된 국회의원의 성비	$X = W_{m/f} \times [F / M]$	전국구+지역구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대상 남녀 공무원 인원 비율로 조정된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X = W_{m/f} \times [F / M]$	
관리직 비율	대상 남녀취업자비율로 조정된 관리직 성비	$X = W_{m/f} \times [F / M]$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 성비	$X = [F / M]$	
교육·직업훈련			
평균 교육년수	평균 교육년수의 성비	$X = [F / M]$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이상) 진학률 성비	$X = [F / M]$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임금근로자 중 직업교육훈련경험이 있는 비율의 성비	$X = [F / M]$	
복지			
비빈곤인구 비율	대상 남녀 인구 비율로 조정된 비빈곤인구 성비	$X = W_{m/f} \times [F / M]$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18~59세 남녀 인구 비율로 조정된 연금가입자 성비	$X = W_{m/f} \times [F / M]$	
장애인고용률	장애인고용률 성비	$X = [F / M]$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X = [F / M]$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X = [F / M]$	

22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분야 및 분야별 지표	지표 값 계산방법	계산 산식	비고
스트레스 인지율	비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X = [F' / M']$, $F'=100-F$, $M'=100-M$ 여기서 F'과 M'은 여성과 남성의 스트레스 비인지율	스트레스 비인지율로 변경 후 산정
안전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대상 인구로 조정된 사회안전 인식집단 성비	$X = W_m/f \times [(F / M)]$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강력범죄로 부터 안전한 남녀 비율의 성비(역수) ¹¹⁾	$X = [S_m / S_f](-1)$ S_m 혹은 $S_f = [(300-x)/300]$ 으로 표준화	Max(x)=300 Min(x)=0
가족			
가사노동 시간	취업상태를 고려한 가사시간 성비 (역수) ¹²⁾	$X = (T_{Em} + T_{Nm}) / (T_{Ef} + T_{Nf})$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자연출생성비로 조정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X = [M / F] \times \frac{1}{1.06}$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X = [F / M]$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자 성비 (역수)	$X = [M / F]$	
문화·정보			
여가시간	취업상태를 고려한 여가시간 성비 ¹³⁾	$X = [(LT_{Ef} + LT_{Nf}) / (LT_{Em} + LT_{Nm})]$	
여가만족도	여가만족도 성비	$X = [F / M]$	
성별 정보화(디지털정보화) 격차	인터넷과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한 성비	$X = [F / M]$	

주: 1) F, M은 각각 해당 지표 여성지표 값과 남성지표 값을 나타냄.

2) W_m/f : 가중치(Weight)로써 해당 지표의 적용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여성인구/남성인구)의 역수, 'T'는 100을 나타냄.

11) S_f, S_m 은 상대적으로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한 남녀비율, p_f, p_m : 지표 대상 인구의 여성비율, 남성비율을 나타냄.

12) $T_{Em}, T_{Nm}, T_{Ef}, T_{Nf}$: 각각 남성취업자, 남성비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비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을 나타냄.

13) $LT_{Em}, LT_{Nm}, LT_{Ef}, LT_{Nf}$: 각각 남성취업자, 남성비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비취업자의 여가시간을 나타냄.

Ⅲ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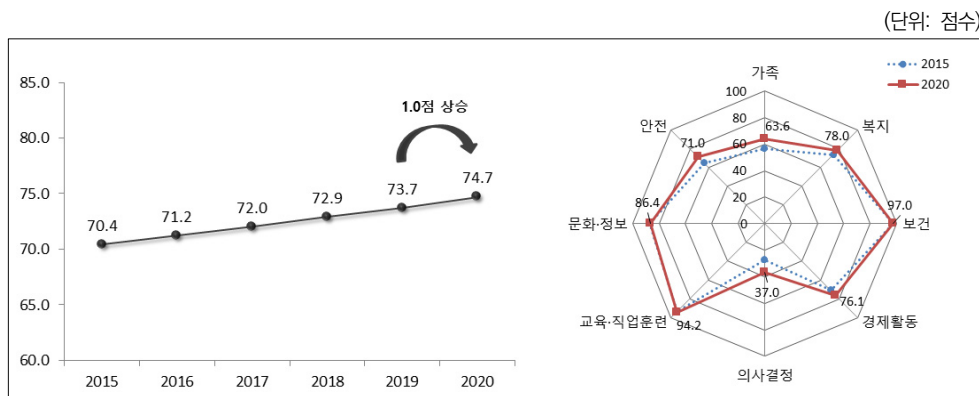
- | | |
|---------------------------|----|
|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 | 25 |
| 2. 분야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 32 |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¹⁴⁾

가.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추이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¹⁵⁾은 2020년 기준 74.7점이다. 국가성평등 수준은 2015년 70.4점이래 2020년까지 매년 0.8~1.0점 정도로 상승하였고 2020년은 전년 대비 1.0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보건 분야가 97.0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직업훈련 분야(94.2점), 문화·정보 분야(86.4점), 복지 분야(78.0점), 경제활동 분야(76.1점), 안전 분야(71.0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결정 분야가 37.0점으로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았고, 가족 분야(63.6점)는 성평등 수준이 70.0점 이하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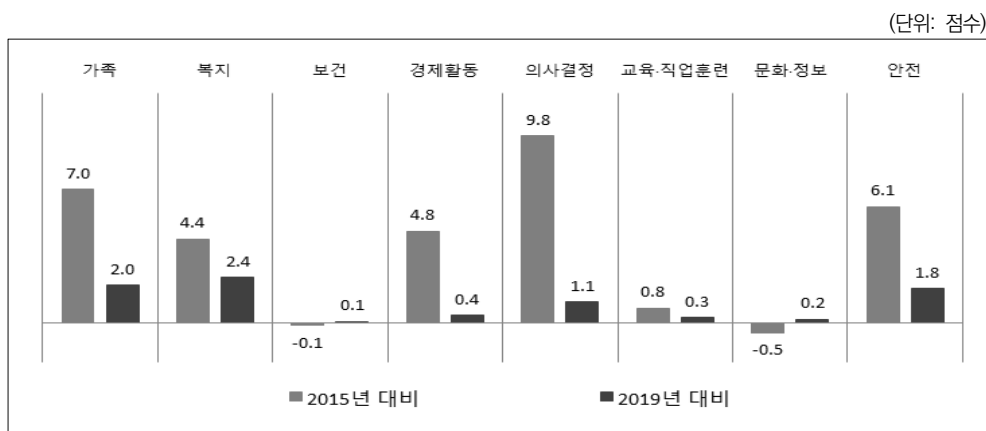


[그림 Ⅲ-1]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국가성평등지수는 매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2015년과 2019년과 비교하여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그림 Ⅲ-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2015년과 비교해 보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로 9.8점 상승하였다. 다음으로 많이 개선된 분야는 가족 분야 7.0점, 안전 분야 6.1점, 경제활동 분야 4.8점, 복지 분야 4.4점, 교육·직업훈련 분야 0.8점 순이었다. 이에 비해 보건과 문화·정보 분야는 2015년과 비교하여 오히려 각각 0.1점과 0.5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5년 이래 국가성평등지수가 상승하는 이유는 의사결정, 가족, 안전, 경제활동, 복지 분야의 상승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14) 본 보고서의 Ⅲ장은 국가성평등지수 측정을 수행해 온 주재선이 작성한 원고를 재구성 함.
15) 본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연도는 지표의 통계 생산연도를 기준으로 제시함.

2019년 대비 국가성평등지수의 증감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9년 대비 가장 크게 상승한 분야는 복지(2.4점이 개선되었고 가족(2.0점 ↑), 안전(1.8점 ↑), 의사결정(1.1점 ↑), 교·직업훈련(0.3점 ↑) 순으로 높은 개선을 보였다. 또한 보건과 문화·정보 영역은 2015년과 비교하여 약간 하락했던 것과 달리 전년 대비 0.1점과 0.2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의 개선은 이전에 비해 개선 정도가 약간 높았는데, 이는 각 분야에서 모두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III-2] 국가성평등지수 증감

나. 정책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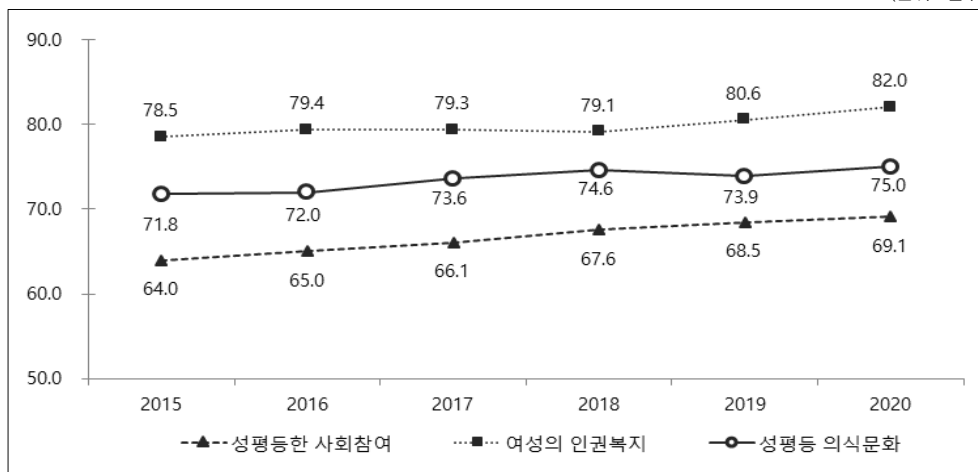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2.0점)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았고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5.0점),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69.1점) 순이었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로 측정되며, 이 영역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5년 64.0점에서 2020년 69.1점으로 5.1점 상승한다. 이와 같은 상승은 세 분야 모두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지만 특히 의사결정과 경제활동 분야의 동기간 상승이 높았기 때문이다. 의사결정 분야는 2015년 27.2점에서 2020년 37.0점으로 9.8점 상승했고, 경제활동 분야는 2015년 71.3점에서 2020년 76.1점으로 4.8점 상승 상승하였다. 한편 전년 대비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0.6점 상승하였는데, 이 또한 세 개 분야의 동시 상승 때문이나, 이 영역의 성평등 개선은 의사결정 분야의 상승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의사결정 분야는 1.1점 상승하여 경제활동 분야(0.4점 ↑)와 교육·직업훈련 분야(0.3점 ↑)와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상승이 나타난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과 문화·정보 분야로 측정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5년 71.8점, 2016년 72.0점, 2017년 73.6점, 2018년 74.6점, 2019년 73.9점, 2020년 75.0점으로 지난 5년간 3.2점 상승했다. 이 영역의 성평등 개선은 가족 분야의 높은 상승 때문이다. 가족 분야는 2015년 56.6점에서 2020년 63.6점으로 동기간 7.0점 상승했다. 그러나 가족 분야의 높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의 전반적인 개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못한데, 그 이유는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수준 하락 때문이다. 문화·정보 분야는 2015년 86.9점에서 2020년 86.4점으로 동기간 0.5점 하락하였다. 한편 전년 대비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1.1점 상승하는데, 이는 이 또한 가족 분야가 전년 대비 2.0점 개선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 분야로 구성되어있다. 이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세 개 영역 중 가장 높고 성평등 수준도 지속해서 상승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5년 78.5점에서 2020년 82.0점으로 동기간 3.5점 개선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2015년 대비 안전 분야가 6.1점 상승하여 성평등 수준이 가장 크게 개선되었고 복지 분야(4.4점↑)의 개선이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성평등 수준이 높은 보건 분야는 동 기간내 0.1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9년과 비교해 보면, 복지 분야가 2.4점으로 가장 큰 개선을 보이며, 안전 또한 1.8점 상승되어 비교적 높은 개선을 보여, 이 영역의 성평등 개선은 안전과 복지의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점수)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Ⅲ-3]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1)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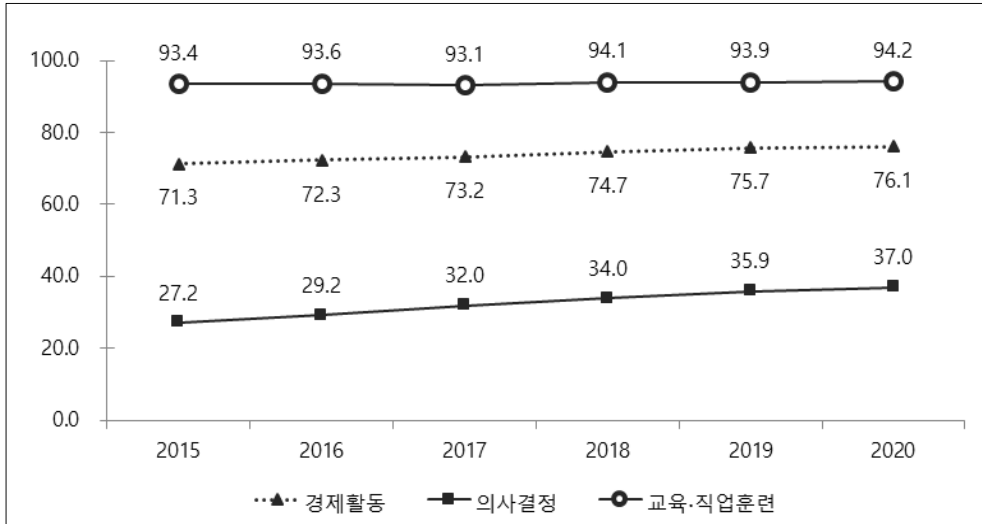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경제활동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 의사결정 분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2020년 기준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직업훈련 분야로 94.0점이고, 경제활동 분야 76.1점, 의사결정 분야 37.0점 순이다.

연도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활동 분야는 2015년 71.3점, 2017년 73.2점, 2019년 75.7점이었고 2020년 76.1점으로 전년 대비 0.4점 상승했다. 경제활동 분야 점수 상승은 세 개의 지표 모두가 개선되어 나타난다. 2015년 대비 경제활동 참가율, 임금 성비, 상용직 비율은 각각 2.5점, 4.9점, 6.9점 개선되었다. 특히 상용직 비율 성비 개선은 지난 5년간 높은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을 끌어올리는 데 주된 역할을 하였다. 심지어 2020년 COVID-19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율과 성별임금격차에서 성비가 전년 대비 0.2점과 0.1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상용직 비율 성비는 1.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III-10] 참고).

의사결정 분야는 2015년 27.2점에서 2020년 37.0점으로 9.8점 상승한다. 이와 같은 상승은 구성 지표 모두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승 때문이다.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 성비는 2015년 50.9점에서 2020년 64.1점으로 동기간 23.2점 상승하며, 여기에 관리자 성비(2015년 15.8점 → 2020년 24.8점, 9.0점 상승), 국회의원 성비(2015년 18.9점 → 2020년 22.8점, 3.9점 상승), 4급 이상 공무원 성비(2015년 23.3점 → 2020년 36.3점, 13.0점 상승) 등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평등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의사결정 분야는 2019년 대비 1.1점 상승으로 비교적 낮게 개선을 보이는데, 이는 전년 대비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가 2.6점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년 국회의원 성비,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관리자 성비는 각각 3.4점과 3.0점, 0.6점 개선된다. ([그림 III-15] 참고)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2015년 93.4점에서 2020년 94.2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 분야는 2017년과 2019년 전년 대비 성비가 하락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지난 5년간 0.8점 성평등 수준이 개선된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세 지표 모두의 성평등 수준 변화가 높지 않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15년부터 완전평등상태(100.0점)를 보이며, 평균 교육년수 격차는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개선 수준은 높지 않다. 직업교육훈련경험 또한 변화는 크지 않지만, 성비의 등락으로 인해 이 분야의 성평등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그림 III-19] 참고).

(단위: 점수)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Ⅲ-4]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2)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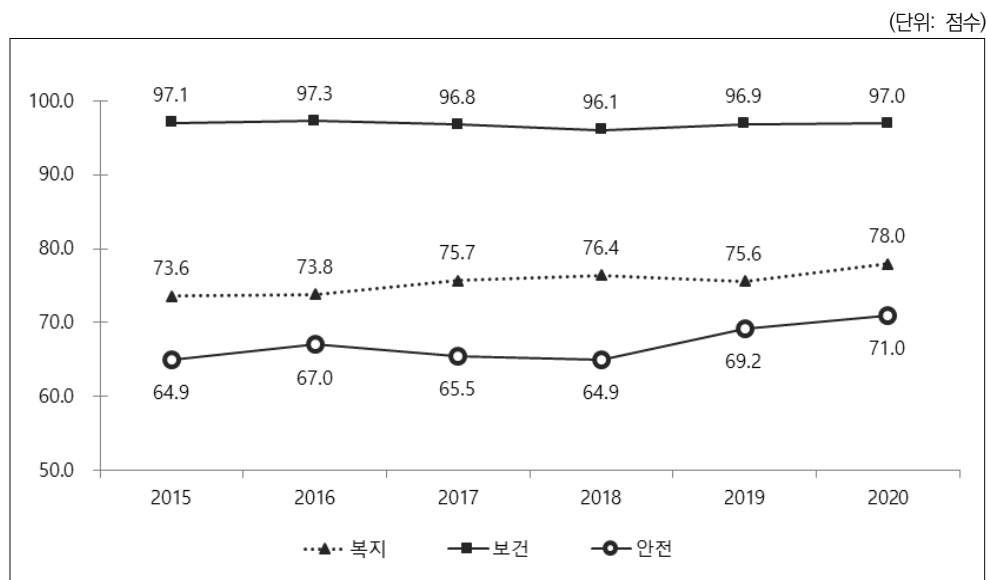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보건 분야, 복지 분야, 안전 분야로 측정된다. 2020년 기준 이 영역은 82.0점으로 세 영역 중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성평등 수준은 보건 분야가 97.0점으로 가장 높았고, 복지 분야는 75.6점, 안전 분야는 71.0점으로 모두 70점 이상의 성평등을 보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 분야는 2015년 97.1점에서 2020년 97.0점으로 동기간 0.1점 하락한다. 하락 원인을 살펴보면,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와 비스트레스인지율 성비가 5년 전과 0.3점씩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 분야를 구성하는 세 지표는 모두 96점 이상으로 높은 성평등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 분야는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비빈곤 인구 성비, 장애인 고용률로 구성되며, 2015년 73.6점에서 2020년 78.0점으로 4.4점 상승한다. 이 분야의 상승 원인은 공적연금 가입자와 장애인 고용률의 개선 때문이다.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의 경우 2015년 79.4점에서 2020년 88.4점으로 9.0점 개선되며, 장애인 고용률 성비는 동기간 5.4점 상승한다. 반면 비빈곤인구 비율은 성별 모두 빈곤율이 높아지면서, 성비 또한 하락하여 2015년 94.8점에서 2020년 93.8점으로 1.0점 하락한다([그림 Ⅲ-23] 참고). 한편 2019년과 비교하면 복지 분야는 2.4점 개선되는 곳인데, 이는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의 개선 때문으로,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 대비 6.6점의 크게 개선된다.

안전 분야의 구성 지표는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 성비와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로 구성된다. 안전 분야는 2015년 64.9점에서 2020년 71.0점으로 6.1점 상승했다. 상승의 주된 원인은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의 성비 개선이 높았기 때문이다.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 성비는 2015년 65.2점에서 2020년 76.7점으로 11.5점 개선된다.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는 2015년 64.6점 이래 성비가 등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2020년 65.3점으로 0.7점 상승한다. 한편 전년 대비 안전 분야는 1.8점 개선되며, 지표별로는 전반적 사회 안전 의식 성비가 3.6점 개선되는 반면,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는 0.1점 하락한다([그림 III-30] 참고).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5] 여성 인권·복지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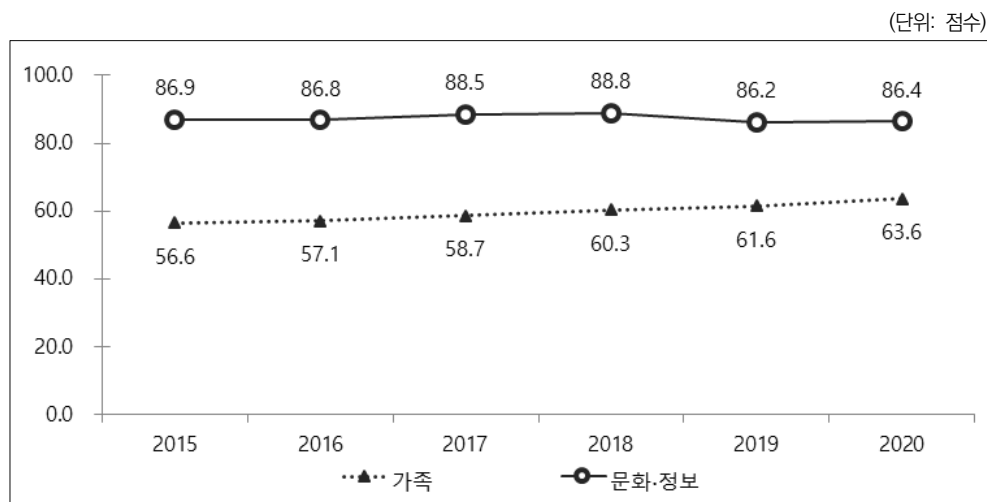
3)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 분야, 문화·정보 분야로 구성되며, 2020년 기준 75.0점으로 2015년 대비 4.3점 개선된다. 분야별로 보면 문화·정보 분야는 82.0점, 가족 분야는 63.6점이다.

가족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5년 56.6점에서 2020년 63.6점으로 7.0점 상승하고, 점수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육아휴직 성비 개선으로 나타난다. 육아휴직 성비는

2015년 5.9점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으나 2020년 30.7점으로 크게 상승하여 성평등 정도는 동기간 22.2점 개선된다. 가사노동시간 성비와 가족관계만족도는 동기간 각각 6.7점 상승하여 가족 분야 성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반면, 가족관계만족도 성비와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는 동기간 각각 3.3점과 0.6점 낮아져, 성비가 하락한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년 대비 가족 분야 성평등은 2.0점 상승한다. 지표별로 보면, 전년 대비 육아휴직비율 성비가 5.5점 상승하여 성평등 개선의 주된 원인이 되며, 가족관계만족도 성비와 가사노동시간 성비가 각각 2.3점과 0.6점 개선된다. ([그림 III-35] 참고)

문화·정보 분야는 2015년 86.9점에서 2020년 86.4점으로 동기간 1.2점 하락한다. 문화·정보 분야는 2015년 이래 성비의 등락하면서 하락하며, 하락 원인은 여가 시간 성비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표 중 여가만족도 성비가 2015년 91.9점에서 2020년 95.2점으로 3.3점 높아지고 성별정보화격차는 2015년 90.9점에서 2020년 92.5점으로 1.6점 개선되나, 여가 시간 성비가 동기간 6.4점 낮아짐에 따라 이 분야 성평등이 낮아진 것이다. 한편 전년 대비 문화·정보 분야 성비는 0.2점 개선되는데, 이는 성별정보화격차의 개선 때문이다. 즉, 성별정보화격차는 전년 대비 1.8점 개선되어, 여가시간 성비와 여가만족도 성비가 전년 대비 0.7점 하락에도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상승을 이끌었다.([그림 III-39] 참고).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6]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2. 분야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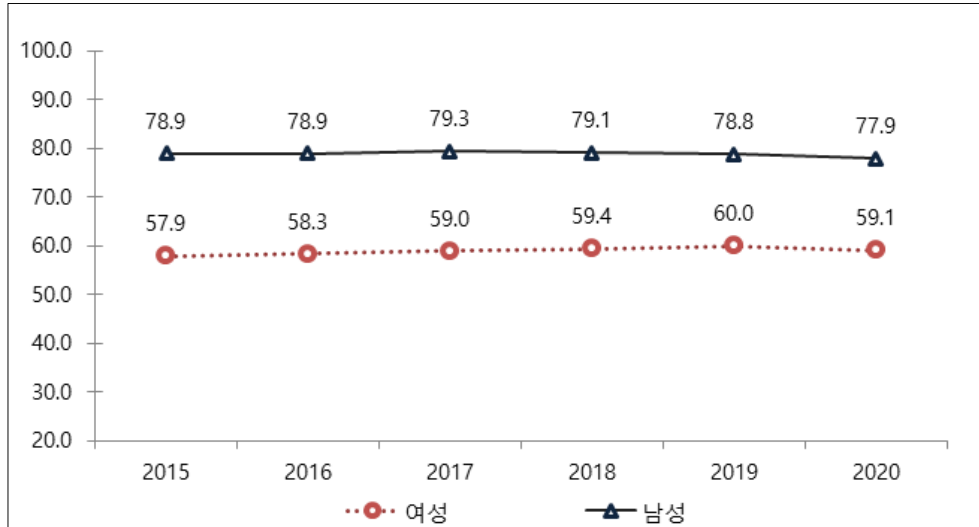
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1) 경제활동 분야

경제활동 분야는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임금 격차, 상용직 근로자 비율로 측정되며, 2020년 기준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다섯 번째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5년 71.3점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20년에는 76.1점으로 2015년 대비 4.8점 상승하였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 참가율(15~64세)은 노동시장의 참여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5년 57.9%에서 지속해서 상승하다 2020년 다소 하락하여 59.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1.5%p 감소한 수준이고, 2015년 대비 2.1%p 증가한 수준이다.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5년 78.9%에서 2017년 79.3%로 다소 상승하지만 이후 감소하여 2020년 77.9%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1.1%p 감소한 수준이고, 2015년 대비 1.3%p 감소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추세로 경제활동 참가율의 성별 격차는 2015년 21.0%p에서 2020년 18.8%p로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을 하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 유지, 그리고 성 평등한 직장문화와 성별 고정관념 해소, 더 나아가 여성 일자리 창출, 미래 유망 일자리로의 도약 등을 통한 노동시장 내 성 격차 해소는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한 여성 고용 위기 혹은 충격으로 그 어려움이 표현된 시간이기도 하다. 전년 대비 2020년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비교해 보면 여성은 1.5%p 감소하여 남성(1.1%p) 보다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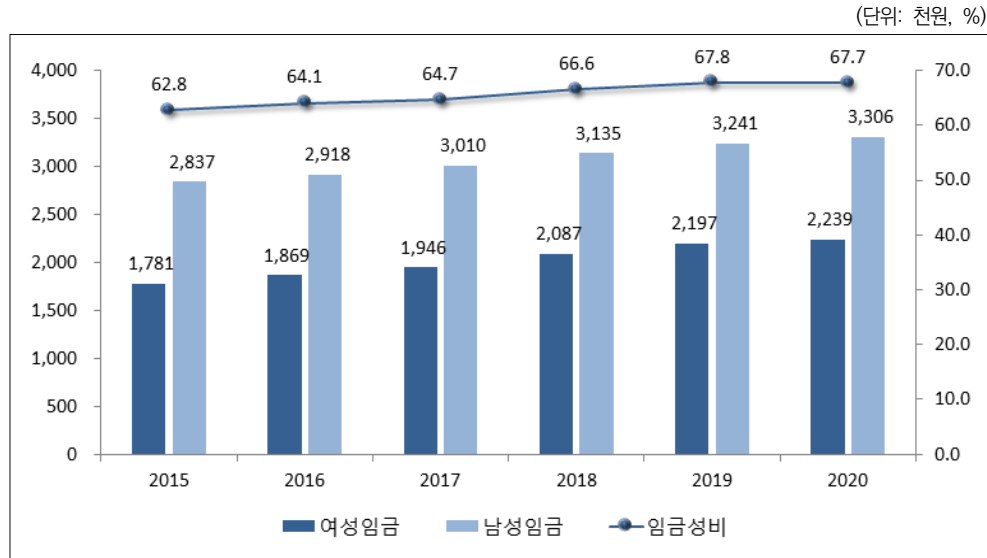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Ⅲ-7] 성별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변화 추이

성별 임금 격차는 노동시장의 환경과 대우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지표로 활용되는 월급여액은 1인 이상 사업체의 정액급여와 초과급여의 합이며, 연간 상여금과 특별급여는 제외하였다.

월급여액을 살펴보면 여성은 2015년 평균 1,781천 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 평균 2,239천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9%p 상승한 수준이고, 2015년 대비 25.7%p 상승한 수준이다. 남성은 2015년 평균 2,837천 원에서 지속해서 상승하여 2020년 평균 3,306천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2.0%p 상승한 수준이고, 2015년 대비 16.5%p 상승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추세로 임금 성비는 2015년 62.8%에서 2020년 67.7%로 성별 임금 격차는 다소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2020년 기준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의 67.7% 수준으로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이탈, 산업별 인력수급과 성별 전공 분리 문제는 고용뿐만 아니라 임금에서도 이중적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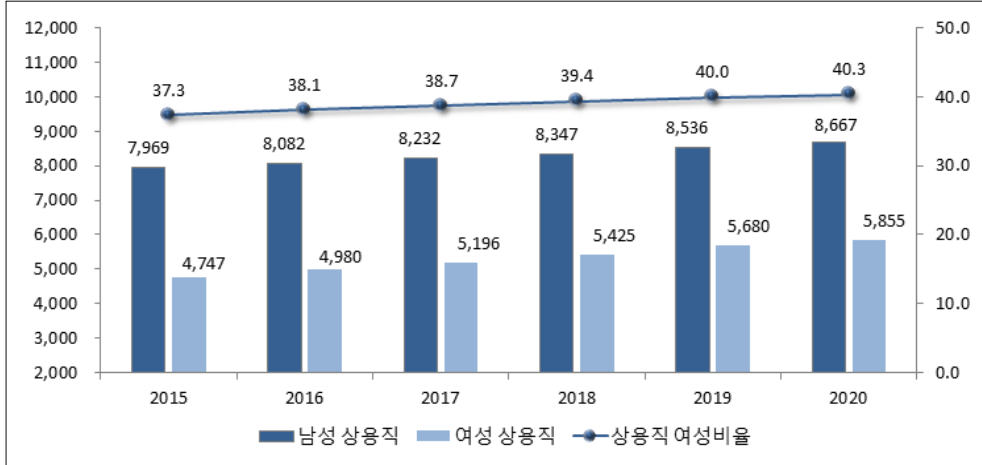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그림 III-8] 연도별 임금성비 변화 추이

상용직 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임시직 및 일용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근로 안정성이 높은 지위에 해당한다.

여성 상용직 근로자는 2015년 4,747천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5,855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3.1%p 증가하였고, 2015년 대비 23.3%p 증가한 수준이다. 남성 상용직 근로자 또한 2015년 7,969천 명에서 지속해서 증가하여 2020년 8,667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1.5%p 증가하였고, 2015년 대비 8.8%p 증가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추세로 전체 상용직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은 2015년 37.3%에서 2020년 40.3%로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용직 여성 비율이 50%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여성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차별, 지속적 생계 설계 부재 등 중대한 문제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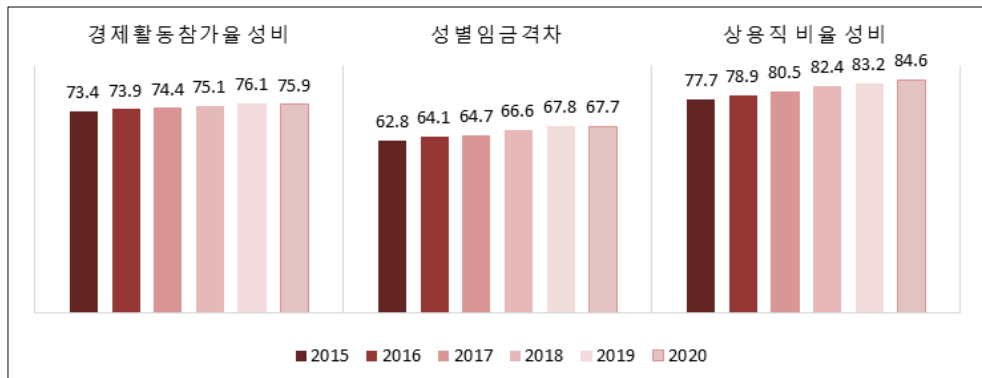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Ⅲ-9] 성별 상용직 근로자 비율 변화 추이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지표를 통해 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2015년 73.4점에서 2020년 75.9점으로 개선되었고, 성별 임금 격차도 2015년 62.8점에서 2020년 67.7점으로 개선되었다. 다만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와 성별 임금 격차 모두 코로나19로 특징 지워지는 2020년에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있다. 상용직 비율 성비는 2015년 77.7점에서 2020년 84.6점으로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단위: 점수)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Ⅲ-10] 경제활동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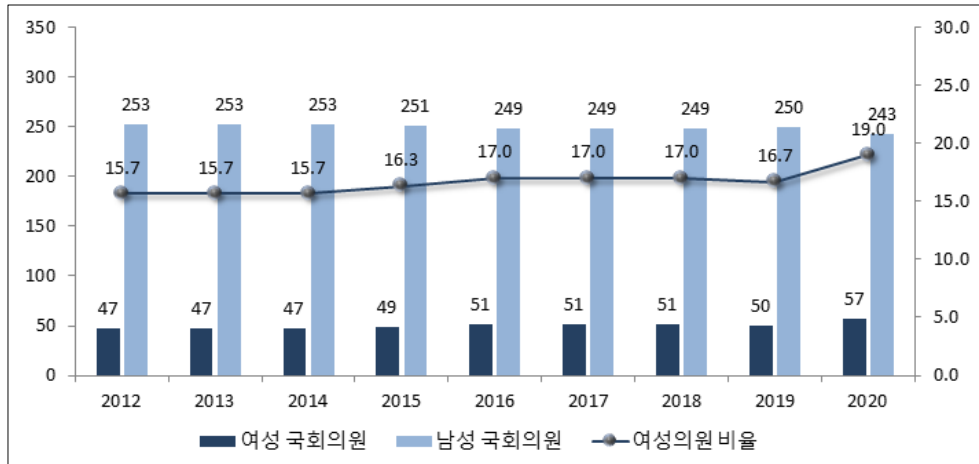
2) 의사결정 분야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성차별 해소 및 실질적인 평등 실현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정책 등 의사결정 행사에서 여성의 참여 정도를 지표화하고 그 권한을 측정하기 위해 국회의원 비율,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을 지표화하여 성평등 정도를 측정하였다. 2020년 기준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은 가장 낮은 여덟 번째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5년 27.2점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20년에는 37.0점으로 2015년 대비 9.8점 상승하였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 여성 비율은 입법기관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적 권한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지표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 국회의원은 4년 주기로 선출되며, 보궐선거 등으로 국회의원 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 국회의원 여성 비율은 2015년 16.3%에서 미미한 수준의 등락을 보이다 2020년에 19.0% 수준(300명 중 57명 수준,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전년 대비 2.3%p 증가한 수준이고, 2015년 대비 2.7%p 증가한 수준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의 19.0% 기록은 비례대표 후보 50% 여성 할당제에 기인한 것으로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의 약 15% 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적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¹⁶⁾. 최저 임계치인 30% 수준까지 여성의 대표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16) 김은경 외(2020), 「국회 여성 비례대표 의원의 역할인식과 활동성과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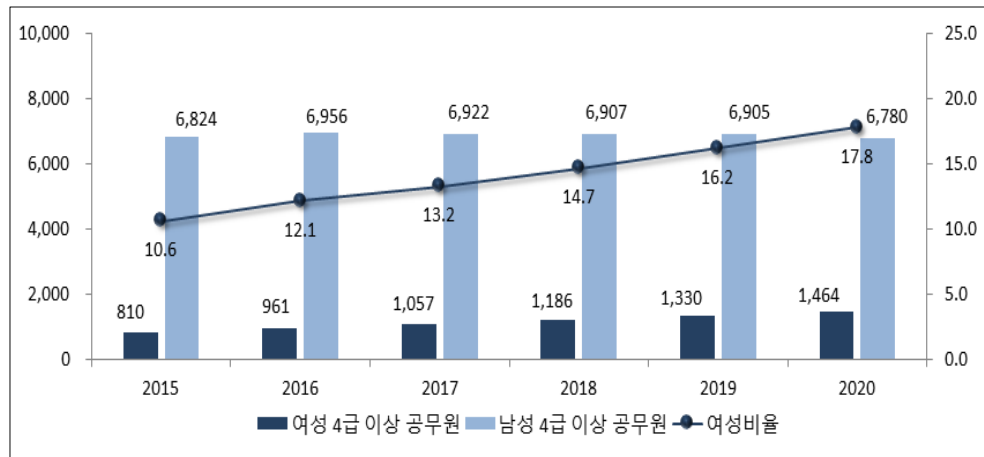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 연도), 「IPU 통계」.

[그림 Ⅲ-11] 국회의원 여성 비율 변화 추이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비율은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관리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행정영역의 관리직 지위에서 의사결정 권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2015년 10.6%에서 지속해서 증가하여 2020년 17.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1.6%p 증가한 수준이고, 2015년 대비 7.1%p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2018년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2022년까지 고위 공무원단 여성 비율 10%,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 21% 이상 확대, 그리고 2018년 내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 1명 이상 임용 추진을 계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0년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8.5% 달성(목표치 8.2%),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 22.8% 달성(목표치 21.0%), 여성 고위 공무원이 1명도 없는 부처 2018년 10개에서 6개 부처로 감소한 상황이라고 발표하고 있다¹⁷⁾. 그러나 2020년 행정부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48.0%에 이르는 것과 비교할 때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17) '공공부문 모든 분야에서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1.9.17.일자)

(단위: 명, %)



자료: 인사혁신처(각 연도), 「행정부 국가공무원통계 인사통계」.

[그림 III-12] 성별 4급 이상 공무원 변화 추이

관리자¹⁸⁾ 비율은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지휘, 조정하는데 직무 시간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직군의 비율이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5년에 10.3%에서 2016년 9.9% 감소 이래 지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20년 15.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0.3%p 증가한 수준이고, 2015년 대비 5.4%p 증가한 수준이다. 남녀고용 평등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가 잘 갖춰진 사업장에서 여성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¹⁹⁾ 조직 인력의 다양성과 여성인재 활용, 조직성과 추구 차원에서 고급 여성 인력의 여성 관리자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²⁰⁾.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관리직 진출은 그 규모가 미흡하며 관리직 진출을 방해하는 요인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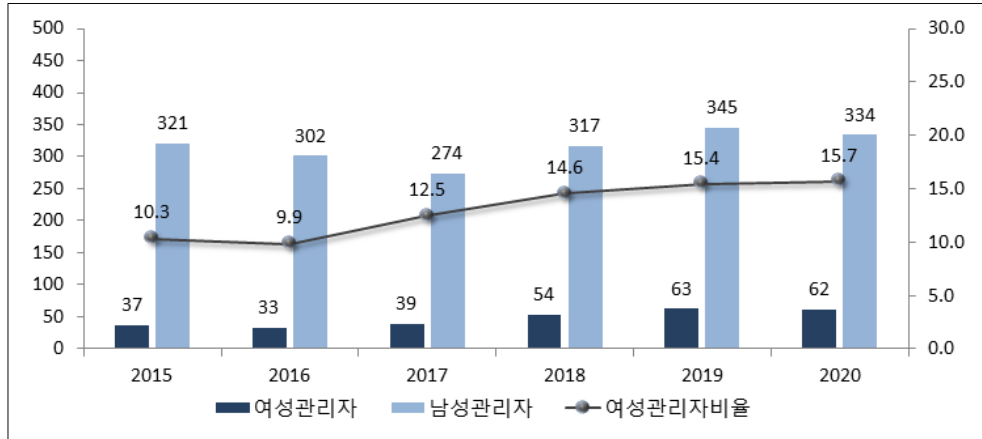
18) 제7차 표준직업분류체계(2018년) 기준

1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시행(2006년) 이후 여성 근로자 비율 6.92%p, 관리자 비율 10.7%p 증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11.25.)

20) '성과 추구하는 경영자라면 여성인재로 눈 돌려라', 중앙일보 오피니언(2021.8.3.)

21) 이에 대해 임희정 교수(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여성의 관리직 진출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 개인 차원에서는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인적 네트워크 부족, 조직 내 정치에 대한 무관심, 경력 선택과 구체적 경력 계획 수립 노력 부족 등을 언급하였고, 이외 요인으로 가부장적·남성 중심적 조직문화, 인사권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현실, 조직 내 여성들의 멘토나 롤모델 부재 등도 여성이 관리자로 성장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ESG 경영 첫단추는 '여성 관리자 키우기' 여성신문(2021.5.14.).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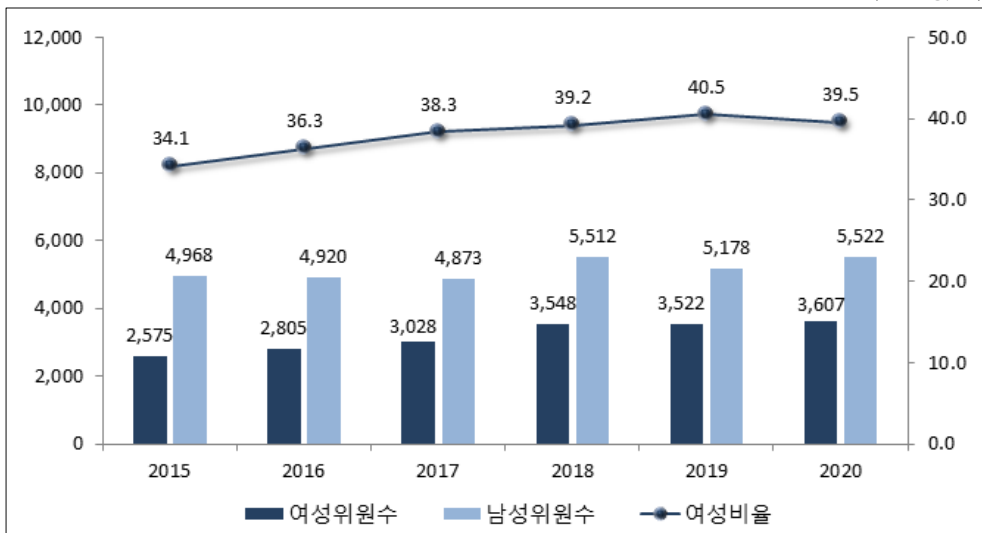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Ⅲ-13] 성별 관리자 변화 추이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여성 비율은 2015년 34.1%에서 2019년 40.5%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20년 39.5%로 다소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1.0%p 감소한 수준이고 2015년 대비 5.0%p 증가한 수준이다.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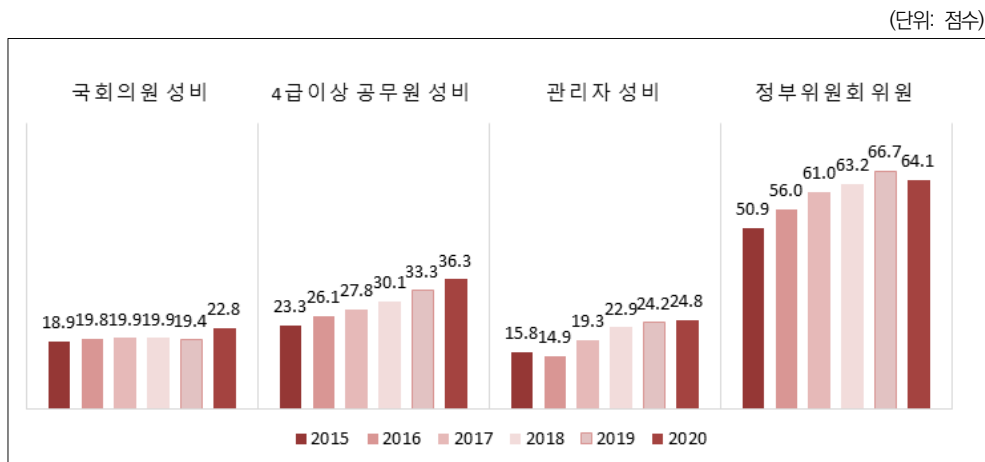


주: 여성비율은 전체 위원 대비 여성 위원 비율로 측정함. 단, 2016년부터 여성 비율은 위원회별 여성 비율의 평균으로 계산함에 따라 각년도 여성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통계청(2021.11). e-나라지표.

[그림 Ⅲ-14] 성별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변화 추이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지표를 통해 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성비는 2015년 18.9점에서 2020년 22.8점으로 개선되었고, 4급 이상 공무원 성비는 2015년 23.3점에서 2020년 36.3점으로, 관리자 성비는 2015년 15.8점에서 2020년 24.8점으로 개선되었다.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 성비는 2015년 50.9점에서 2019년까지 증가하다 2020년 64.1점으로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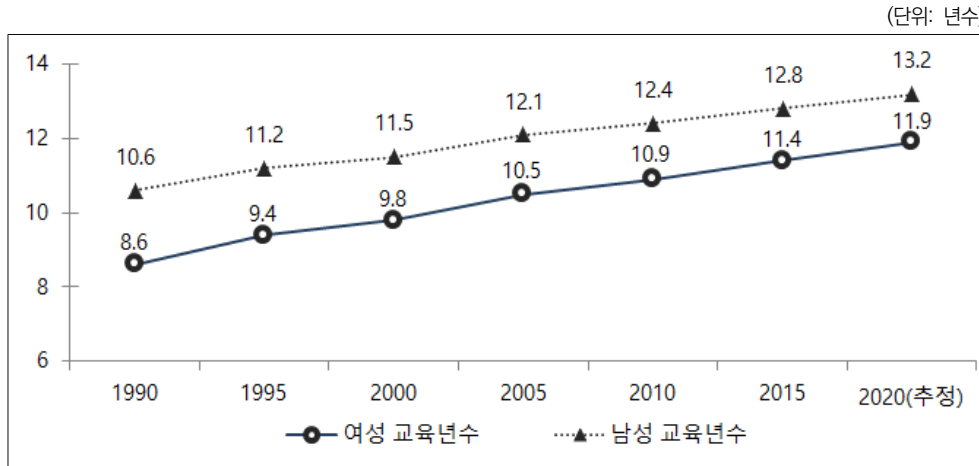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15] 의사결정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3) 교육·직업훈련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 교육·훈련 경험 비율로 측정되며, 2020년 기준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두 번째 순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5년 93.4점에서 2017년, 2019년을 제외하고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 94.2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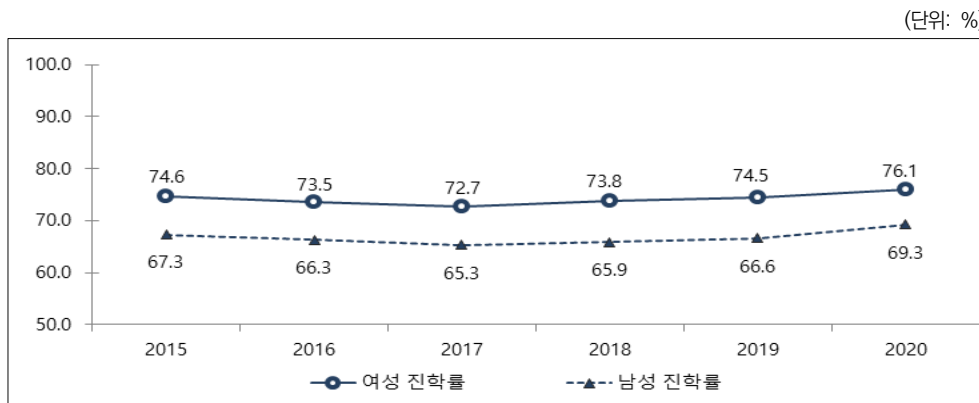
지표별로 살펴보면, 평균 교육년수는 교육 기회의 충족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로 여성은 2015년에 11.4년에서 2020년 11.9년으로 증가하였고, 남성은 2015년 12.8년에서 2020년 13.2년으로 증가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남녀 평균 교육년수의 차이는 2015년 1.4년에서 2020년 1.3년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2020년 값은 추정 값 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한국의 사회지표」.

[그림 Ⅲ-16] 성별 평균 교육년수 변화 추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대학 진학자 비율로 측정된다.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15년 74.6%에서 감소하다 2018년 73.8%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현재 76.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1.6%p 증가한 수준이고, 2015년 대비 1.5%p 증가한 수준이다. 남성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15년 67.3%에서 감소하다 2018년 65.9%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현재 69.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2.7%p 증가한 수준이고, 2015년 대비 2.0%p 증가한 수준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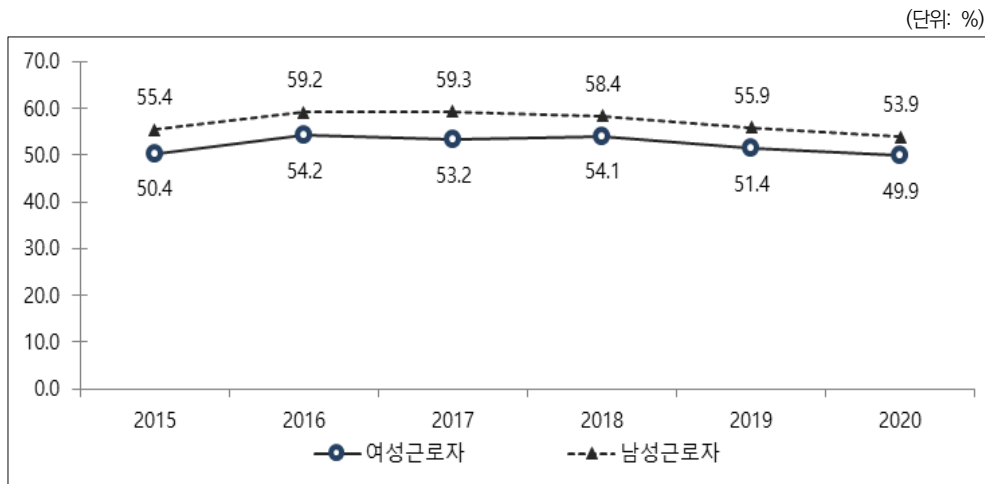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그림 Ⅲ-17]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변화 추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 분야에서의 성 격차는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간주 되곤 한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화되고 4차 산업 등 미래시장과의 연계점에서 성별에 따른 전공 분리, 인력수급 불일치 등 다양한 정책과제 를 갖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은 여성 근로자 중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의 비율로, 2015년 50.4%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대체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현재 49.9%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1.4%p 감소한 수준이고, 2015년 대 비 0.5%p 감소한 수준이다. 남성의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은 2015년 55.4%에서 2017년 59.3%까지 증가하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현재 53.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성별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2015년 5.0%p, 2020년 4.0%p). 직업 교육훈련은 자기 계발 및 취업역량 강화, 노동시장 수급에 부응하여 여성 인력 이동, 미래 유망 일자리 로의 여성 진출 브릿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거듭 부각되고 있다. 성별에 따른 훈련 분야, 훈련 성과, 일·가정 양립과 더불어 접근성 제고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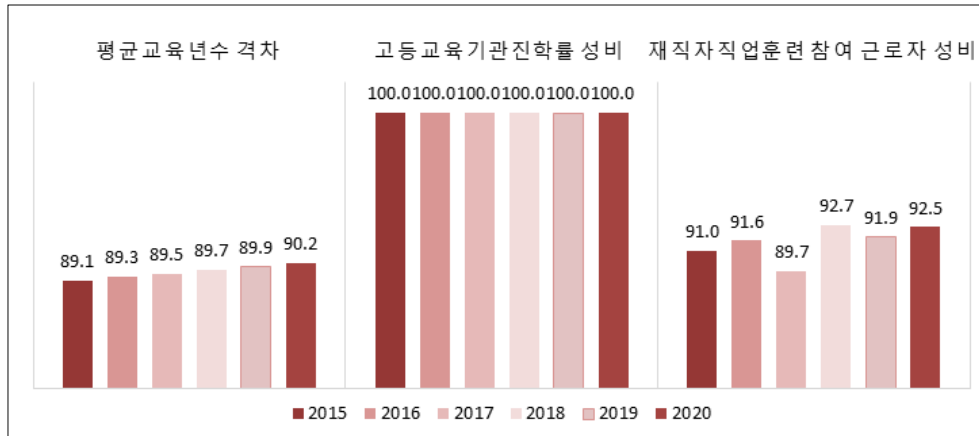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III-18] 성별 직업교육 훈련경험자 비율 변화 추이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 지표를 통해 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 교 육년수의 성비는 2015년 89.1점에서 2020년 90.2점으로 개선되었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여학생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높음에 따라 2015년 이래 완전성평등 수준

(100.0)을 유지하고 있다. 재직자 직업 교육훈련 경험 비율의 성비는 2015년 91.0점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2020년 92.5점으로 2015년 대비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점수)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Ⅲ-19] 교육·직업훈련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성 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2019년 대비 2020년 성평등 지수 변화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Ⅲ-1>과 같다. 성 평등한 사회참여영역의 3개 분야 중에서 2019년 대비 지수 상승을 보면 의사결정 분야 1.1점, 경제활동 분야 0.4점, 교육·직업 훈련 분야 0.3점 순으로 성 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지수 상승이 높다. 의사결정 분야의 경우 비례제 여성할당제로 인한 국회의원 성비 점수가 2019년 대비 3.4점으로 상승하여 분야의 점수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정부의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성과 관리에 기인하여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점수도 의사결정 분야의 점수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 분야의 경우는 상용직 비율 성비 점수가 1.4점 상승한 것에 기인하고 있고,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경우는 재직근로자의 직업 훈련참여 성별 격차 감소에 기인하여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III-1〉 성 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성평등지수 변화

분야별 지수 변화				지표 변화			
분야	2019	2020	증감	지표	2019	2020	증감
경제활동	75.7	76.1	0.4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6.1	75.9	-0.2
				성별 임금 격차 성비	67.8	67.7	-0.1
				상용직 비율 성비	83.2	84.6	1.4
의사결정	35.9	37.0	1.1	국회의원 성비	19.4	22.8	3.4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33.3	36.3	3.0
				관리자 성비	24.2	24.8	0.6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66.7	64.1	-2.6
교육·직업훈련	93.9	94.2	0.3	평균 교육년수 격차	89.9	90.2	0.3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00.0	0.0
				재직자 직업훈련참여 근로자 성비	91.9	92.5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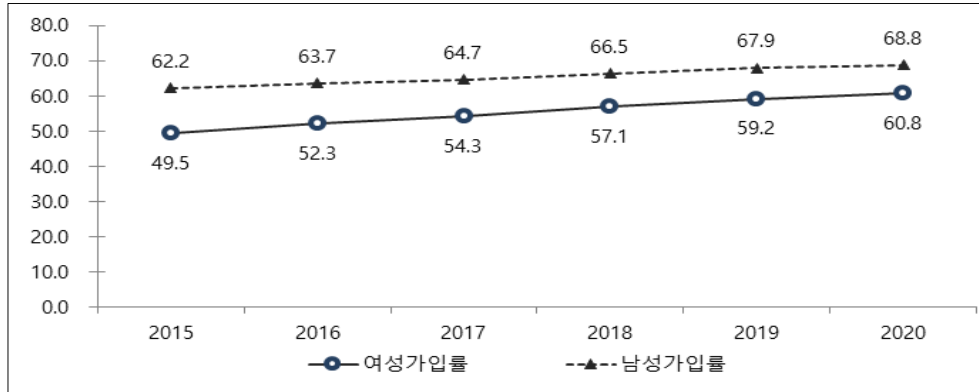
나.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

1) 복지 분야

복지 분야는 공적연금 가입자, 빈곤율, 장애인 고용률로 측정되며, 2020년 기준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네 번째 순위를 나타냈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5년 73.6점에서 2020년 78.0점으로 4.4점 상승하였다.

지표별로 보면, 성별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가입률 추이는 여성 가입자의 경우 2015년 49.5%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 60.8%가 되었다. 2020년 여성 가입자 비율은 전년도 대비 1.6%p, 2015년 대비 11.3%p 상승하였다. 2020년 남성 가입자 비율은 2015년 62.2%에서 2020년 68.8%로 높아져 2015년 대비 6.6%p 상승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공적 연금 가입자 비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남녀 격차는 2015년 12.7%p에서 2020년에는 8.0%p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은 남성보다 공적 연금 가입자 비율이 낮는데, 소득활동자 중심의 연금체계에서 여성들이 경력단절 등의 문제로 공적 연금 가입 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공적 연금 가입자 비율에서 남녀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상 남녀 격차 해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사회참여 분야 성평등 지수 개선과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 하겠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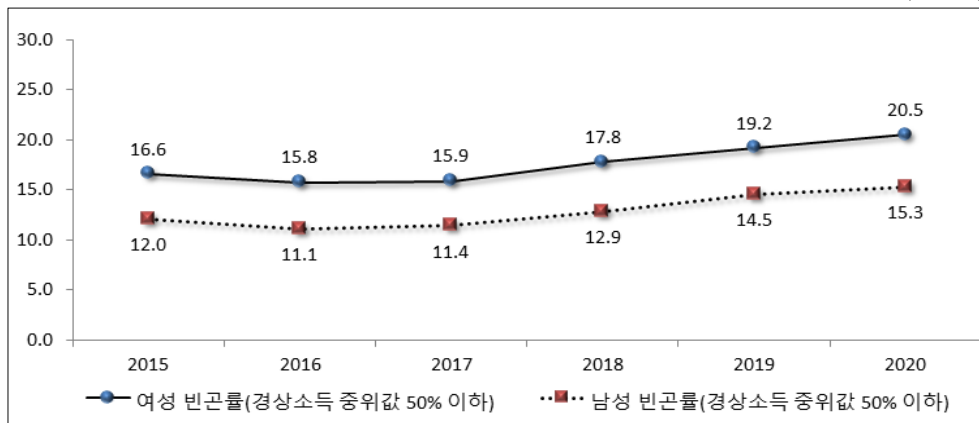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각 연도).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각 연도).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각 연도). 「사학연금통계」.

[그림 Ⅲ-20] 성별 공적연금 가입률 변화 추이

빈곤율은 성평등 측정에서는 비빈곤율로 측정된다. 빈곤율은 경상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가계동향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경상소득을 균등화한 소득을 개인화하여 분석하고 있다. 여성 빈곤율은 2015년 16.6%에서 2016년(15.8%)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8년 17.8%, 2019년 19.2%, 2020년 20.5%로 연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2015년 남성 빈곤율은 12.0%에서 2016년 11.1%로 하락하였으나 2017년 11.4%로 상승한 이후 2020년 15.3%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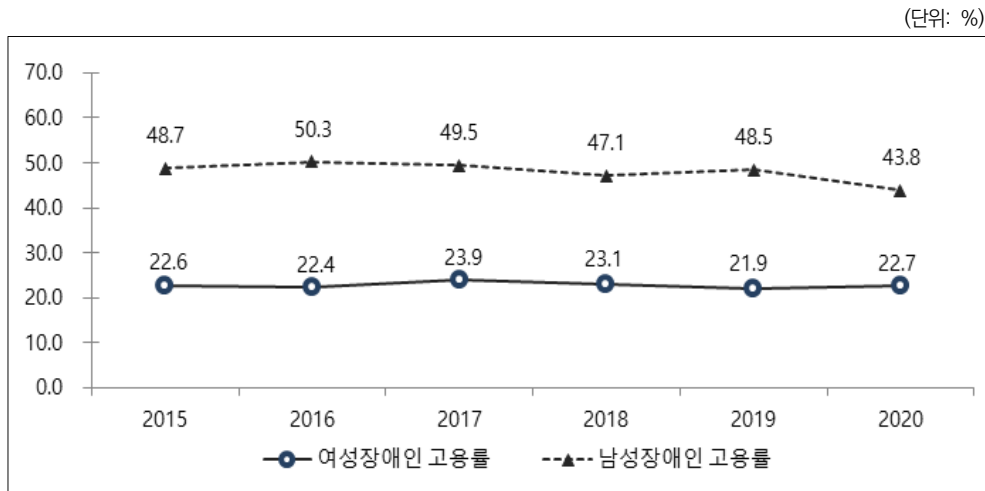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Ⅲ-21] 성별 빈곤율 변화 추이

장애인 고용률에서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015년 22.6%에서 2020년까지 등락을 반복하여 2017년 23.9%로 높아졌다가 이후 다시 낮아져 2019년에는 21.9%가 되었고, 2020년에 다시 22.7%로 소폭 높아졌다. 남성 장애인 고용률은 2015년 48.7%에서 2016년 50.3%로 높아졌으나 2017년 이후 다시 낮아졌고 2019년 48.5%로 높아졌다가 2020년에는 43.8%로 낮아졌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장애인 고용률 성별격차는 2015년 26.1%p에서 2018년 24.0%p로 낮아졌고, 2019년에는 26.6%p로 다시 높아졌다가 2020년에 21.1%p로 다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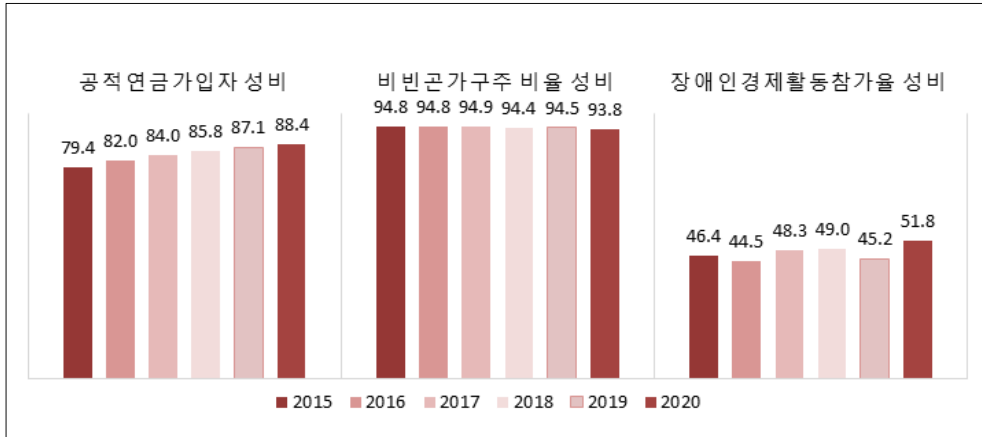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각 연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장애인실태조사」.

[그림 III-22] 성별 장애인 고용률 변화 추이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통해 복지 분야 지표의 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은 2015년 79.4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 88.4점이 되었다, 반면 비빈곤율 성비는 2015년 94.8점에서 2018년 94.4점으로 낮아진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20년 93.8점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015년 46.4점에서 2016년 44.5점으로 하락하고, 2017년 48.3점, 2018년 49.0점으로 상승하였지만 2019년 45.2점으로 전년 대비 3.8점 하락하였고, 2020년에는 다시 51.8점으로 전년 대비 6.6점 상승하였다.

(단위: 점수)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Ⅲ-23] 복지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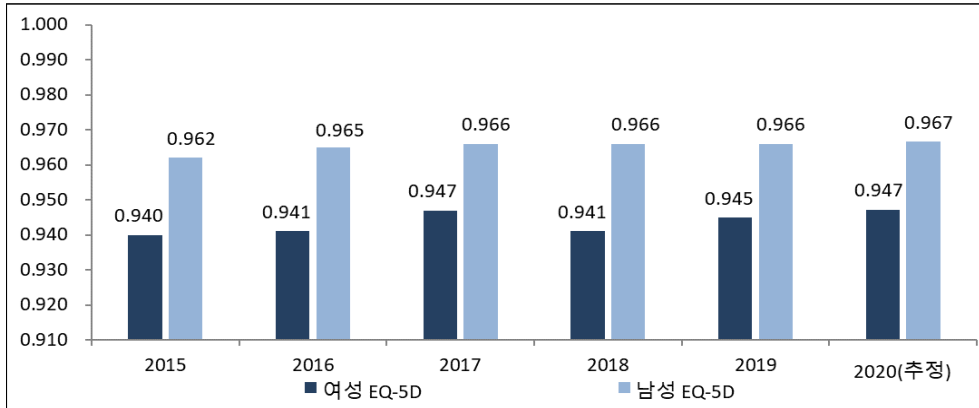
2) 보건 분야

보건 분야는 건강 관련 삶의 질,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로 측정되며, 2020년 기준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였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5년 97.1점에서 2020년(추정치) 97.0점으로 동기간 0.1점 하락하였다.

건강 관련 삶의 질(EQ-5D²²⁾) 지표에서 19세 이상 여성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은 2015년 0.940을 기록한 이후 2017년 0.947로 상승하였지만 2018년 0.941, 2019년 0.945로 소폭 하락하고, 2020년에는 0.947점으로 다시 상승하는 등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남성은 2015년 0.962에서 2017년 0.966점으로, 2020년은 0.97로 점차 높아지는 추이를 보인다. 이처럼 건강 관련 삶의 질 지표는 성별 수준이 높고 성별 격차 또한 크지 않아, 성비는 2015년 97.7점에서 약간 등락하는 가운데 점차 상승하여 2020년 98.0점을 보인다.

22) EQ-5D는 건강관련 삶의 질을 나타내는 5가지 차원 즉, 운동능력(Mobility), 자기관리(Self-care), 일상 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Pain/Disability), 그리고 불안과 우울(Anxiety and Depression)의 기술체계를 종합한 지표임. 5가지 차원을 나타내는 항목에 대한 현상을 3개 수준 중 하나로 응답한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하며, 비표준화 값임.

(단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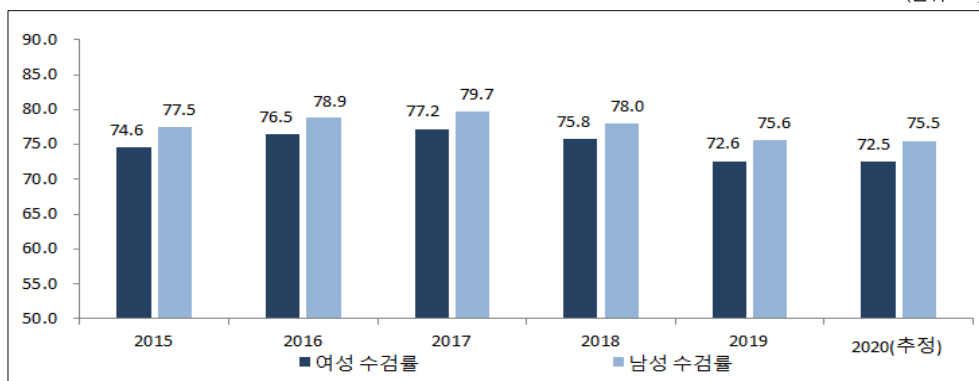


주: 2020년 값은 추정 값 임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III-1]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지수 변화 추이

건강검진 수검률 현황을 보면 여성의 건강검진 수검률²³⁾은 2015년 74.6%에서 2017년 77.2%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2018년 75.8%, 2019년 72.6%로 하락하여, 2020년에는 72.5%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2015년 77.5%에서 2017년 79.7%로 상승하였지만 이후 하락하여 2019년 75.6%, 2020년에는 75.5%이다. 건강검진 수검률의 성별 격차는 2015년 2.9%p에서 2018년 2.2%p까지 낮아졌지만, 2020년 격차는 3.0%p로 다시 벌어지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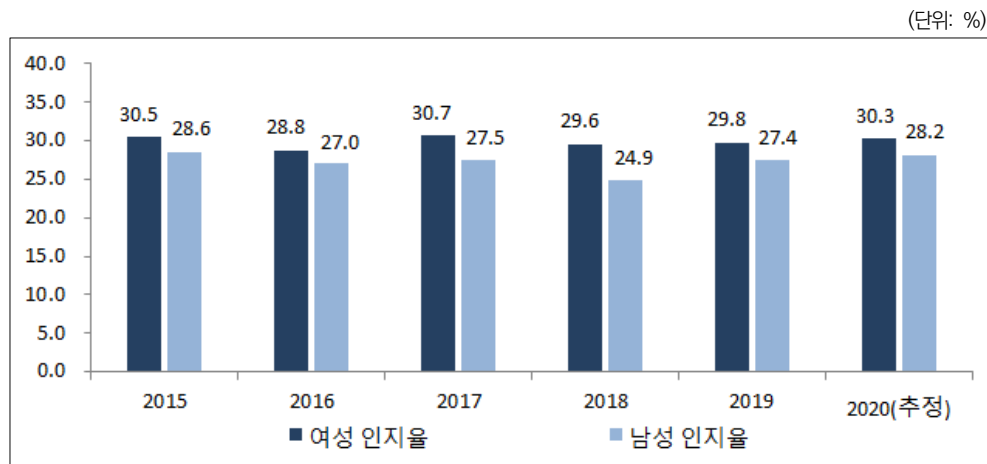


주: 2020년 값은 추정 값 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각 연도), 「건강검진통계연보」.

[그림 III-25]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변화 추이

23) 1차 검진대상 인원 대비 수검인원 비율을 의미함.

스트레스 인지율²⁴⁾은 모든 연도에서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동시에 그 격차가 더 커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5년 30.2%에서 2016년 28.8%, 2018년 29.6%, 2019년 29.8%, 2020년 30.2%로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반면 남성은 2015년 28.6%에서 2016년 27.0%, 2017년 27.5%로 상승하였으나, 2018년 24.9%로 하락하였고 2019년은 다시 27.4%로 상승하였고 2020년에도 28.2%로 또다시 상승하였다. 스트레스 인지율의 성별 격차는 2015년 1.9%p, 2016년 1.8%p, 2017년 3.2%p, 2018년 4.7%p까지 높아졌지만 2019년에는 2.4%p, 2020년에는 2.1%p까지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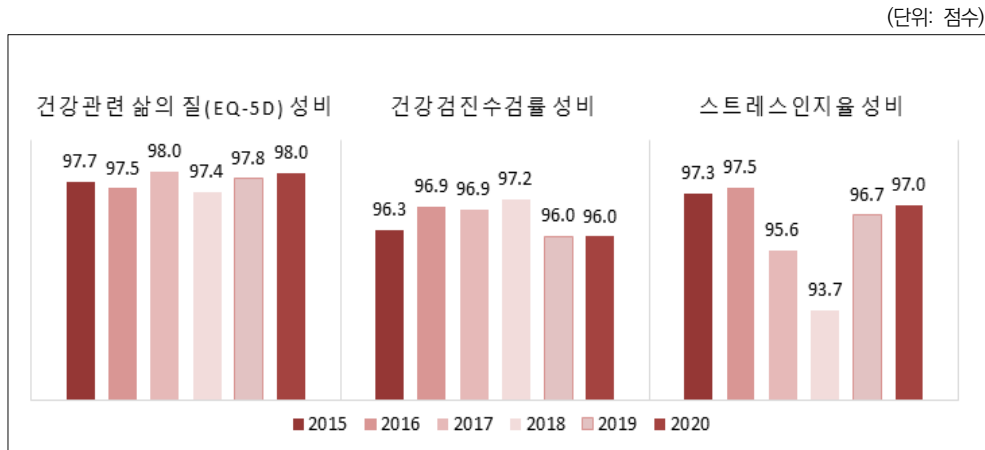
주: 2020년 값은 추정 값 임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Ⅲ-26]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변화 추이

종합해보면 보건 분야의 지표는 성비가 90점 이상으로 이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별 지표에서 성별 간 큰 개선 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건강 관련 삶의 질은 2015년 97.7점에서 2020년 98.0점으로 동기간 0.3점 개선되었다. 반면 건강 검진 수검률 성비는 2015년 96.3점에서 2018년 97.2점으로 꾸준히 개선되다가 2019년(96.0점)과 2020년(96.0점)에는 하락하였다.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역시 2015년 97.3점에서 2016년에는 상승하였으나 2017년 95.6점, 2018년 93.7점으로 크게 낮아졌다가 2019년 96.7점으로 회복하였고 2020년에는 97.0점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5년

24)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19세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나타냄. 19세 이상 표준화된 통계임.

대비 0.3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분야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평등을 보이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뿐 아니라 스트레스 인지율과 같은 주관적 지표의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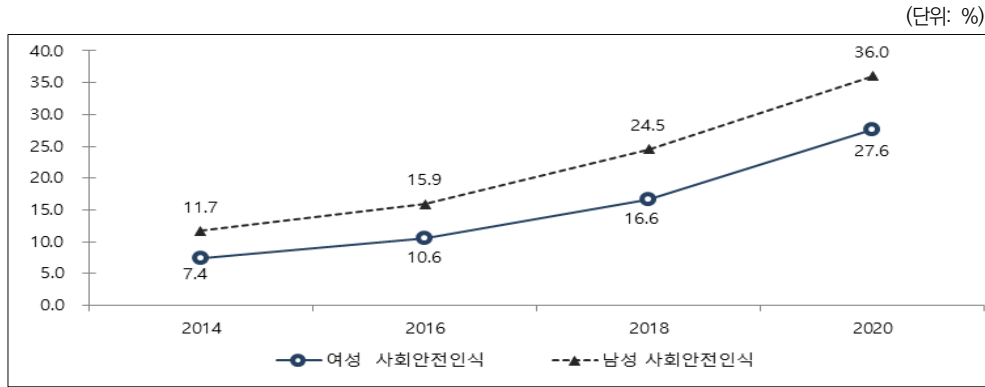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27] 보건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3) 안전 분야

안전 분야는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과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로 측정되며,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5년 64.9점에서 2020년 71.0점으로 동기간 6.1점 상승했다. 2020년 기준 8개 분야 중 6번째 순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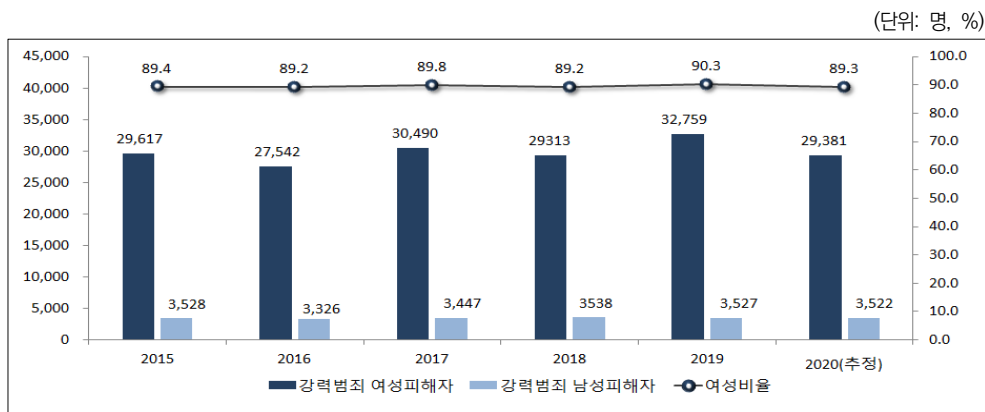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은 ‘매우 안전하다’와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이며, 이 지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점차 높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여성은 2014년 7.4%에서 2016년 10.6%, 2018년 16.6%, 2020년 27.6%로 상승하였고, 남성 또한 2014년 11.7%, 2016년 15.9%, 2018년 24.5%, 2020년 36.0%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성별 개선 정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아, 성별 격차는 점차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2014년 4.3%p에서 2016년 5.3%p, 2018년 7.9%p, 2020년 8.4%p로 나타났다.



주: 13세 이상 인구대상 기준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그림 Ⅲ-28]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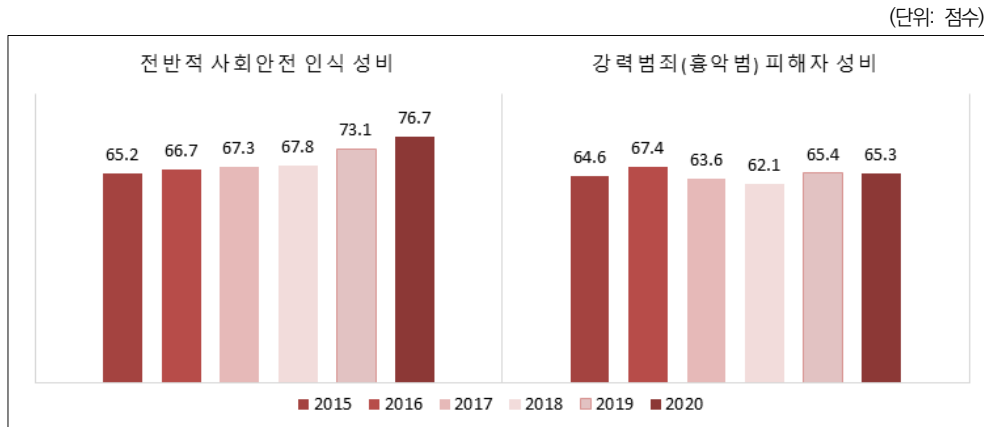
안전 분야의 또 다른 지표인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를 살펴보면, 강력범죄의 여성 피해자는 2015년 29,617명에서 2016년 27,542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2019년 32,754명까지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다시 29,381명으로 감소하였다. 강력범죄의 남성 피해자는 여성 피해자보다 그 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으며, 2015년 3,528명에서 2017년 3,447명으로 줄었고, 2018년 3,538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에는 3,522명으로 다시 소폭 감소하였다. 이 같은 변화로 인해 강력범죄에서의 여성 비율은 9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89.3%를 기록하였다.



주: 1)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는 강도, 방화, 강간, 살인 피해자의 합임
 2) 미상 제외
 3) 2020년 값은 추정 값 임
 자료: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경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원자료 분석

[그림 Ⅲ-29] 성별 강력범죄(흉악범죄) 피해자 변화 추이

종합해보면, 안전 분야 지표는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 성비는 2015년 65.2점에서 점차 상승하여, 2020년 76.7점에 이르렀지만,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는 2016년 67.4점에서 2020년 65.3점으로 하락하였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30] 안전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인권·복지 영역의 2019년 대비 2020년 성평등지수 변화를 요약하면 아래 <표 III-2>와 같다. 인권·복지 영역의 3개 분야 중에서 2019년 대비 지수 상승을 보면 복지 분야 2.4점, 안전 분야 1.8점, 보건 분야 0.1 점으로 복지 분야의 지수 상승이 가장 높다. 복지 분야의 경우 공적연금가입자 성비와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점수가 상승하여 분야 점수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비빈곤가구주비율 성비는 2019년 대비 점수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 빈곤율 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안전 분야는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는 2019년과 비교하여 0.1점 낮아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분야 점수 상승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전반적 사회안전인식 성비가 3.6점 상승하여 분야 점수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보건 분야는 성비가 거의 100에 가까운 분야로 2019년 대비 점수 변화는 0.1점에 불과하다. 세부 지표를 보면 건강관련 삶의 질 성비 지표는 0.2점 상승하였고, 건강검진 수검율 성비는 변동이 없으며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는 0.3점 상승하였다.

〈표 Ⅲ-2〉 인권·복지 영역 성평등지수 변화

분야별 지수 변화				지표 변화			
분야	2019	2020	증감	지표	2019	2020	증감
복지	75.6	78.0	2.4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87.1	88.4	1.3
				비빈곤가구주 비율 성비	94.5	93.8	-0.7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45.2	51.8	6.6
보건	96.9	97.0	0.1	건강 관련 삶의 질 성비	97.8	98.0	0.2
				건강검진 수검율 성비	96.0	96.0	0.0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96.7	97.0	0.3
안전	69.2	71.0	1.8	전반적 사회안전 인식 성비	73.1	76.7	3.6
				강력범죄(홍악범)피해자 성비	65.4	65.3	-0.1

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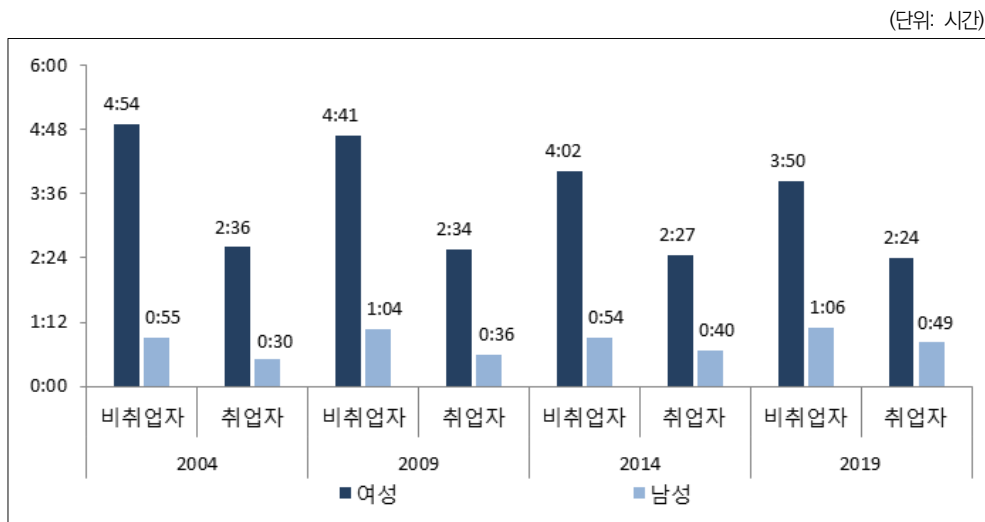
1) 가족 분야

가족 분야는 가사노동 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비율로 측정되며, 성평등 수준은 전체 8개 분야 중에서 의사결정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분야였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5년 56.6점에서 2020년 62.5점으로 동기간 5.9점 상승했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가사노동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분담과 책임에 있어 성별 간 불평등 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분야로 가정관리와 돌봄노동을 포함한 시간이다. 따라서 의식주와 관련한 가사 노동 시간과 가족 및 가구원 돌봄을 위해 소요되는 돌봄 노동 시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성별과 취업 여부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 차이를 모두 고려하여 평균 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다.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성 취업자의 가사노동 시간은 2014년 2시간 27분에서 2019년 2시간 24분으로 동기간 3분 감소하며, 여성 비취업자의 가사노동 시간은 2014년 4시간 2분에서 2019년 3시간 50분으로 12분 감소했다. 여성 취업자의 가사노동 시간은 비취업 여성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나 가사노동 시간이 거의 변화가 없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대략 2시간 30분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남성은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가사노동에 1시간 안팎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취업자의 가사노동은 2014년 40분에서 2019년 49분으로

9분 증가했고, 비취업자 가사노동은 2014년 54분에서 2019년 1시간 6분으로 12분 증가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격차는 취업자의 경우 1시간 47분에서 1시간 35분으로 감소했으며, 비취업자의 경우 3시간 8분에서 2시간 44분으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격차 감소 폭이 매우 적어서 가사노동시간에서의 성 불평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관련 정책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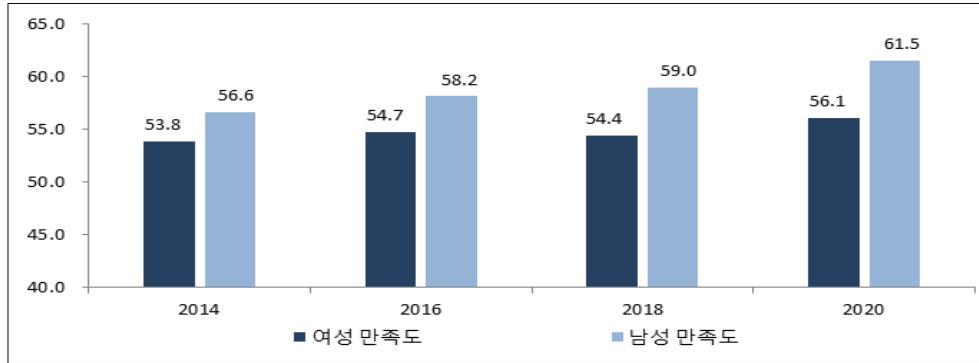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생활시간조사」.

[그림 III-31] 가사노동 시간 변화 추이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여 그 중 '만족한다(매우 만족, 약간 만족)'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성별로 산정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족관계 만족도는 남녀 모두 상승하지만 성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성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2014년 53.8%에서 2016년 54.7%로 상승, 2018년 54.4%로 하락, 2020년 다시 56.1%로 상승했다. 이에 비해 남성은 2014년 56.6%에서 2016년 58.2%, 2018년 59.0%, 그리고 2020년 61.5%로 점차 상승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가족관계 만족도에서의 성별 격차는 점차 커져서, 2014년 2.8%p 차이가 2016년 3.5%p, 2018년 4.6%p, 2020년 5.4%p로 높아지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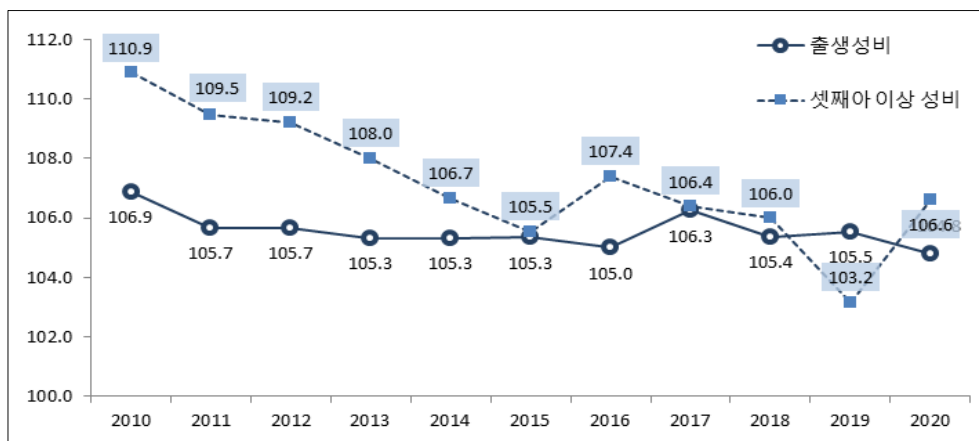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그림 Ⅲ-32]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추이

출산 순위별 출생 성비를 보면 첫째아 출생성비는 1995년에 자연 출생 성비인 106~107을 이미 도달했다. 2009~2018년까지 첫째아 출생성비는 105.3~106.4 수준에서 변동하며, 2019년 또한 105.5로 자연출생성비 수준을 보였으며, 2020년에는 104.8을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를 보면 [그림 Ⅲ-33]에서와 같이 2010년에는 110.9로 자연 출생 성비 수준을 넘어섰다. 하지만 2010년(110.9)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 106.7로 자연 출생 성비로 낮아진 후 2016년(107.4)을 제외하고 자연 출생 성비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단위: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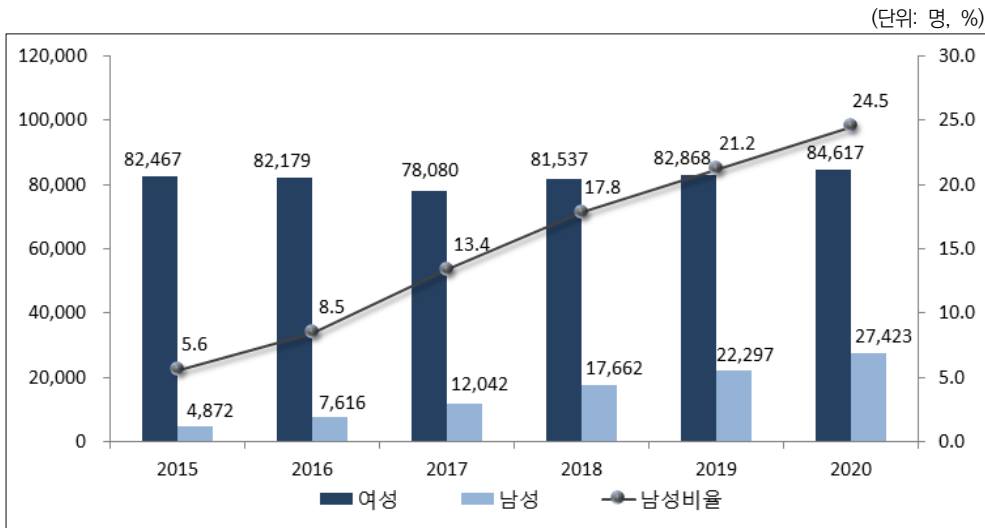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그림 Ⅲ-33]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변화 추이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자 지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아동돌봄의 분담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82,467명을 기록한 이후 2016년 82,179명, 2017년 78,080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참여자 수는 2018년 81,537명, 2019년 82,868명, 2020년 84,617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반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5년 4,872명에서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7,616명으로 7천 명대에 진입했다. 그리고 이후 그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져 2019년에는 22,297명으로 2만명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27,423명이 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 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크게 상승하고 있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15년 5.6%에서 2019년 21.2%로 20%를 넘어섰고, 2020년에는 24.5%로 급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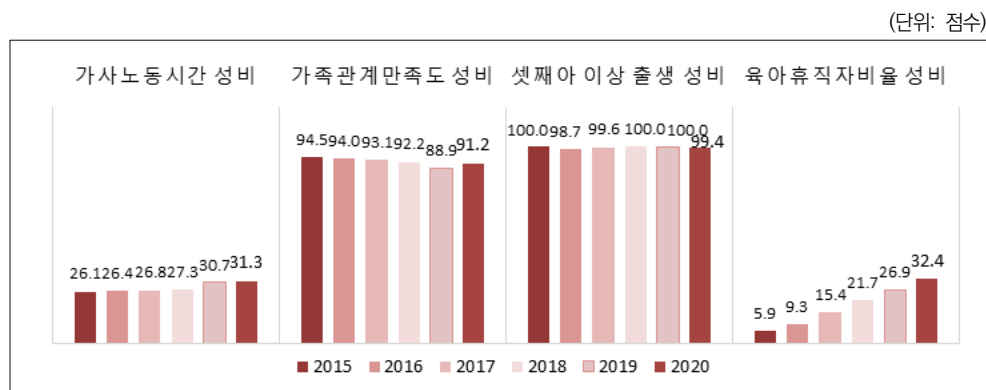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각 연도). 「고용보험통계」.

[그림 III-34] 성별 육아휴직자 수 변화 추이

가족 분야의 지표별 성평등 수준은 육아휴직자 성비의 개선이 가장 뚜렷하며, 가사노동시간 성비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아 출생 성비의 경우 2019년까지 완전 평등에 도달하여 100점을 기록하였는데 2020년에 98.4점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반면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다른 지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점수는 높지만 2015년 이래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 관련 지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점수 상승 폭이 높은 지표는 육아휴직자 비율 성비로

2015년 5.9점에서 2020년 32.4점으로 동기간에 26.5점 상승했다. 가사노동 시간 성비는 2015년 26.1점에서 2020년 31.3점으로 동기간 5.2점 높아졌으며,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015년 100.0점에서 2020년 98.4점으로 0.6점 하락하였다. 가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는 2015년 94.5점에서 2020년 91.2점으로 하락폭이 3.3점으로 가장 높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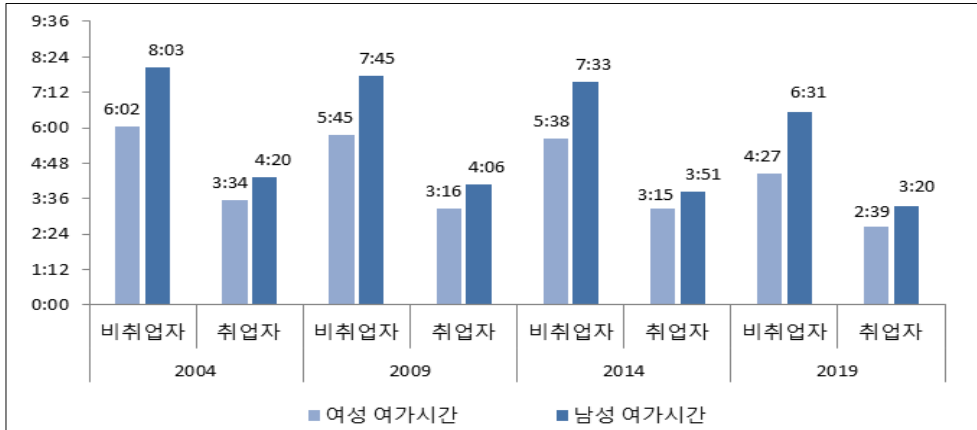
[그림 III-35] 가족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2) 문화·정보 분야

문화·정보 분야는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성별 정보화 격차로 측정되며, 성평등 수준은 전체 8개 분야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2015년 86.9점에서 2018년 88.8점으로 높아졌으나 2019년에 86.2점으로 소폭 하락했고, 2020년 다시 86.4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지표별로 보면 여가시간은 가사노동 시간과 같이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높아 취업자와 비취업자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 지표는 [그림 III-36]과 같이 남녀 모두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여성의 여가시간은 2014년 취업자 3시간 15분, 비취업자 5시간 38분에서 2019년 취업자 2시간 39분, 비취업자 4시간 27분으로 동기간 취업자는 36분, 비취업자는 1시간 11분 감소했다. 남성의 여가시간도 2014년에 비해 2019년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취업자는 31분, 비취업자는 1시간 2분 감소했다. 종합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여가시간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기준 여가시간은 여성 취업자가 남성 취업자에 비해 41분 적었고, 여성 비취업자는 남성 비취업자보다 2시간 4분 더 적었다.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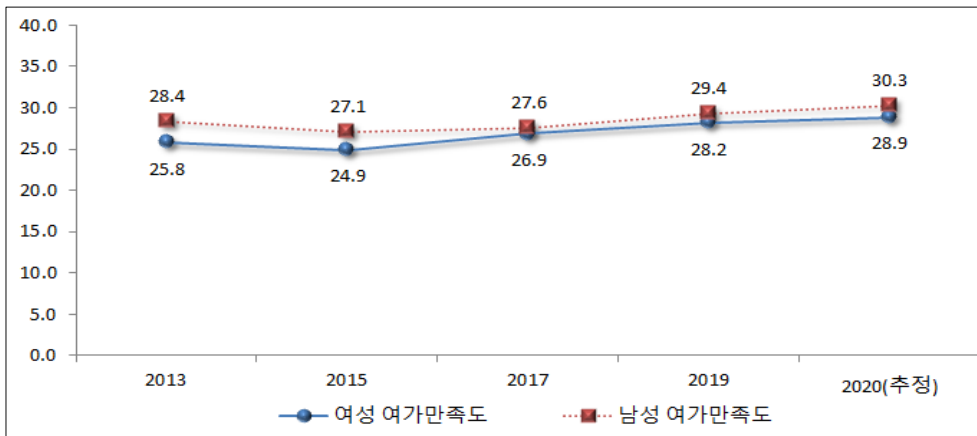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생활시간조사」.

[그림 III-36] 남녀 여가시간 및 여가시간 성비 변화 추이

여가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이며, 여성의 여가만족도는 2015년 24.9%에서 2017년 26.9%, 2019년 28.2%, 2020년(추정치) 28.9%로 상승했다. 남성의 여가만족도 역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남성의 여가만족도는 2015년 27.1%에서 2019년 29.4%로 높아졌고, 2020년에는 30.3%를 기록하였다. 여가만족도의 성별 격차는 2015년 2.2%p에서 2020년 1.4%p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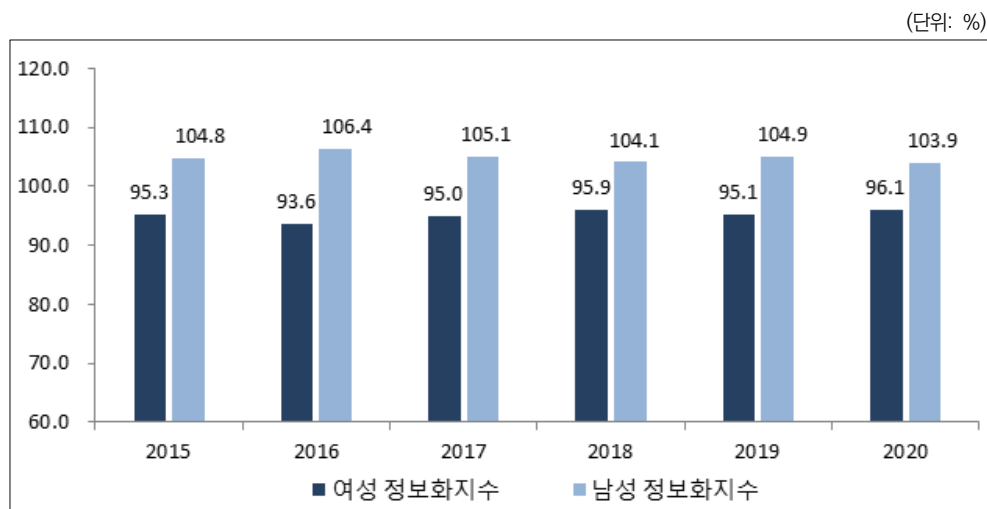
(단위: %)



주: 2020년 값은 추정 값 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그림 III-37] 성별 여가만족도 변화 추이

마지막으로 성별 정보화 격차를 살펴보면 남성의 정보화 수준은 2015년 104.8%에서 2016년 106.4%로 상승하였고, 2017년 105.1%, 2018년 104.1%로 낮아졌다가 2019년 104.9%로 높아졌으나 2020년에 다시 103.9%로 하락하였다. 이에 비해 여성의 정보화 수준은 2015년 95.3%에서 2016년 93.6%로 하락하였으며, 2017년에 95.0%로 높아졌고 2018년에는 95.9%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9년 다시 95.1%로 낮아졌으나 2020년에는 96.1%로 다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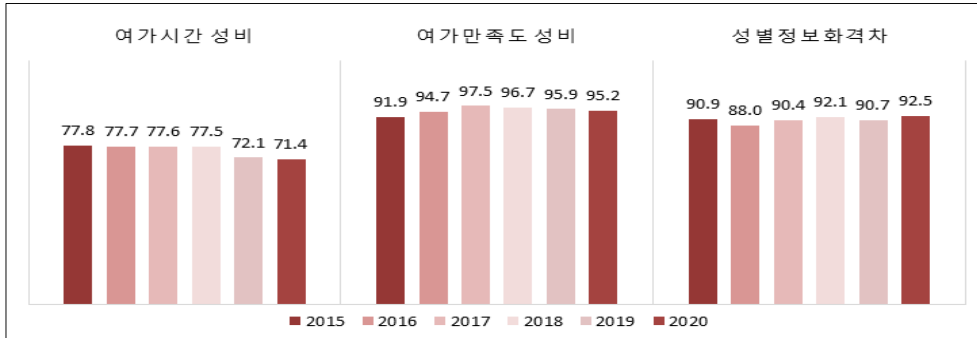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2-2015). 「정보화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2016-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그림 Ⅲ-38] 성별 정보화 격차 변화 추이

문화·정보 분야 지표의 성평등 변화 추이를 보면, 여가시간 성비는 2015년 77.8점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0년 71.4점이 되었다. 문화·정보 분야에서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여가만족도 성비는 2015년 91.9점에서 2017년 97.5점까지 상승하였지만 이후 하락하여 2020년 95.2점으로 낮아졌다. 성별 정보화 격차는 2015년 90.9점에서 2020년 92.5점으로 동기간 1.6점 상승했다.

(단위: 점수)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39] 문화·정보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성평등·의식·문화 영역의 2019년 대비 2020년 성평등지수 변화를 요약하면 아래 <표 III-3>과 같다. 성평등·의식·문화 영역의 3개 분야 중에서 2019년 대비 지수 상승을 보면 가족 분야 2.0점, 문화·정보 분야 0.2점으로 가족 분야의 지수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족 분야는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가 2019년 100점에서 2020년 99.4점으로 0.6점 낮아졌으며, 가족관계만족도 지표, 가사노동시간 성비, 육아 휴직자 비율 성비 등 지표의 상승으로 가족 분야 전체 성비가 상승하였다. 특히 육아휴직자 비율 성비는 5.5점이 상승하여 가족 분야 지수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문화 정보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평등한 분야라고 할 수 있으나 2019년 대비 0.2점 상승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19년 대비 여가시간 성비, 여가만족도 성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련 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I-3>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성평등지수 변화

분야별 지수 변화				지표 변화			
분야	2019	2020	격차	지표	2019	2020	격차
가족	61.6	63.6	2.0	가사노동시간 성비	30.7	31.3	0.6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89.5	91.2	1.7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100.0	99.4	-0.6
				육아휴직자 비율 성비	26.9	32.4	5.5
문화 정보	86.2	86.4	0.2	여가시간 성비	72.1	71.4	-0.7
				여가만족도 성비	95.9	95.2	-0.7
				성별정보화격차	90.7	92.5	1.8

IV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수준

1.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63
2. 유엔개발계획의 성개발지수와 성불평등 지수 75
3. 국제성평등지수 비교와 한국 성평등 수준 차이 93

1.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가.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소개²⁵⁾

1)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이하 GGI) 특징

GGI는 2006년부터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²⁶⁾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서 경제, 교육, 건강, 정치에 대한 성 격차를 통해 국가별 성평등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가장 최근 자료는 2021년에 발표되었다.

GGI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수준(level)'보다 '격차(gap)'에 초점을 둔다. 다시 말해, 한 국가의 실제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과 기회의 수준이 아니라, 자원과 기회에 대해 접근하는 성별 격차를 측정한다. 선진국들은 교육과 보건의 기회에 있어 사회 전체 구성원이 더 많은 접근 기회를 얻게 되지만, 이러한 사실이 성격차를 자동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GGI 지수는 자원의 접근에 있어 절대 수준보다 성별 차이를 주목한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가 작을수록 국가에 더 높은 성평등 점수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교육 성취도의 경우 성별 교육 수준이 아닌 남성 대비 여성의 비(ratio)를 기초로 산정한다.

둘째, '수단(means)'에 따른 차이보다 '성과(outcomes)'에 따른 차이를 평가하여 측정한다. GGI는 성과지표와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 즉 경제참여, 교육, 건강, 정치 권한 부여 등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는 데 목적을 둔다. 단, 국가의 특정 정책, 문화 또는 관습 등 투입지표는 지수 산정에 활용하지 않고, 국가의 프로필 작성을 위한 보조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여성 권한(women's empowerment)'보다 '성평등(gender equality)'에 더 중점을 두고 측정한다. GGI는 여성의 권한 부여 수준이 아닌 성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한다. GGI의 목적은 선택된 지표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감소해 왔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그리고 GGI는 여성에 대한 성과와 남성에 대한 성과가 평등한 국가들에게 좋은 점수를 제공한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을 능가하는

25) 성격차지수(GGI : Gender Gap Index)의 구성과 소개는 거의 변화가 없어 주재선, 정성미, 한진영, 박송이(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p. 74-79, 김경희, 이민아, 이은아, 김은경(2020), 「2020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 84-94의 원문을 대부분 발췌 및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26) 세계경제포럼(WEF)은 스위스에 있는 각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최고 경영자 등이 모여 세계 경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비영리 국제기구임. 매년 글로벌 경쟁력보고서(GCR)와 성평등보고서(GGGR)를 발표하고, 다보스 포럼을 개최함.

경우에는 지표에 대한 페널티를 따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GGI는 선택된 지표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감소할 경우 평등한 국가로 본다.

2) 지표의 구성과 선정 근거

GGI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권한 부여’의 네 가지 영역에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은 남녀 간 빈곤의 불균형을 낮출 뿐 아니라, 가계 수입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여성의 경제적 개입의 질과 관련되어 의미를 갖는다. 경제활동 영역은 참여(participation), 급여(remuneration), 승진(advancement)의 관점에서 성별 격차를 파악하고 있으며 구성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유사업무 임금성비, 추정소득,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전문·기술직 비율의 5개 지표이다. GGI의 두 번째 영역인 교육적 성취는 여성의 권한을 증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점에 중요성이 있다. 구성지표는 총 4개로 문해율과 초등, 중등, 고등교육 취학률에 대한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이다. GGI의 세 번째 영역은 건강과 생존으로 출생 성비와 건강기대수명 성비의 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은 기본적으로 남녀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면서도 근본적인 개인의 안전과 관련 있는 주제이다. GGI의 네 번째 영역인 정치권한 부여 영역은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 여성의 대표성을 파악하는 영역으로 국회의원 비율, 장관 비율, (지난 50년 동안) 국가 수장 재직기간의 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1〉 GGI의 구성 및 각 영역별 지표

영역	지표	내용 및 산정 방법
경제참여와 기회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남성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참가율: 15-64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율
	유사업무 임금성비	유사업무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 경영자 의견 조사 ¹⁾ 를 통해 측정
	추정소득	여성 추정소득/남성 추정소득 국가별 GDP(PPP \$US)를 성별 경제활동인구 비율, 비농촌 임금 성비, 성별 인구의 결합으로 산정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입법, 고위직 및 관리자 중 여성 비중/남성 비중
	전문·기술직 비율	전문 및 기술직 중 여성 비중/남성 비중
교육 성취도	문해율	여성 문해율/남성 문해율 * 문해율: 15세 이상 인구의 문자 해독률

영역	지표	내용 및 산정 방법
	초등교육 취학률	여성 초등교육 취학률/남성 초등교육 취학률 ²⁾ * (6-11세 재적 학생수)/(6-11세 적령인구)×100
	중등교육 취학률	여성 중등교육 취학률/남성 중등교육 취학률 ²⁾ * (12-17세 재적 학생수)/(12-17세 적령인구)×100
	고등교육 취학률	여성 고등교육 취학률/남성 고등교육 취학률 ²⁾ * (대학교 재적 학생수)/(고졸 직후 연령 ³⁾ 부터 5세 연령구간 인구)×100
건강과 생존	출생 성비	여아 ⁴⁾ 출생수/남아 출생수
	건강기대수명	여성 건강 기대수명/남성 건강 기대수명
정치권한 부여	국회의원 비율	국회의원 여성 비중/국회의원 남성 비중
	장관 비율	장관 여성 비중/장관 남성 비중
	국가수장 재직기간	최근 50년 이내 총리 이상 여성 재직년수/남성 재직년수

- 주: 1) 경영자 의견조사의 질문은 “한국에서 유사 업무에 대한 여성들의 임금과 남성들의 임금은 동등합니까”이며, 답항은 7점 척도로 아주 낮다 1점, 남녀가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7점으로 되어 있음.
 2) 초등, 중등 취학률은 순취학률(Net enrolment ratio)로 산정하며, 대학 취학률은 총취학률(Gross Enrolment Ratio)로 산정함.
 3) 고졸 직후 연령은 일반적으로 18세임.
 4) 여아를 기준으로 남아 출생비를 보는 일반적인 출생성비와 정의를 달리함.

3) 지표별 자료원

성격차지수 산정에 활용되는 자료원은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 자료를, 교육 성취도 영역은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하 UNESCO) 또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과 생존 영역의 지표들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자료를, 정치 권한부여 영역은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이하 IPU)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지수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국제기구가 공표하는 정량적 통계 수치를 사용하고, 각국 정부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표 IV-2〉 GGI의 지표구성과 자료원

하위지수	지 표	자 료 원
경제참여와 기회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노동기구(ILO), ILOSTAT, 2019 Modelled Estimates
	유사업무 임금 수준	세계경제포럼(WEF), 기업임원의견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 2019-2020 또는 가장 최근 자료
	추정소득	국제노동기구(ILO), ILOSTAT
	입법·고위직 및 관 리직 비율	국제노동기구(ILO), ILOSTAT
	전문·기술직 비율	국제노동기구(ILO), ILOSTAT
교육성취도	문해율	UNESCO, UIS Education Statistics Data portal. 2018 또는 최근; 없는 경우는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Human Development Reports 2020에서 2008년과 2018년 사이 가장 최근 가능한 자료
	초등교육 취학률	UNESCO, UIS Education Statistics Data portal, 2018 또는 최근 자료
	중등교육 취학률	상동
	고등교육 취학률	상동
건강과 생존	출생 성비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건강 기대 수명	세계보건기구,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base, 2019년 혹은 가장 최근 자료
정치권한 부여	국회의원 비율	IPU, 2021년 1월 기준
	장관 비율	상동
	(지난 50년 동안) 국가수장 재직기간	WEF에서 산정(1971년-2020년)

자료: WEF(2021),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p. 73.

4) 측정방법

GGI는 수준보다는 격차, 정책보다는 성과, 여성권한 보다는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이 지수는 절대적인 기준에 비해 성과를 수량화하는 지수로(Grieg et al., 2006), 성평등과 관련된 주요 영역과 지표를 담고 있다. 초기 GGI 지수는 정량(hard data)적인 지표와 함께 104개 국가의 9,000명의 기업총수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의 기업임원 의견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를 통한 질적(soft

data)인 척도도 함께 사용했으나, 최근 산정에 활용되는 지표는 자료입수의 한계와 조사의 주관적 요소 때문에 정량적인 지표만을 사용하고 있다. GGI 지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계의 과정을 통해 산정된다(WEF, 2019).

- 1단계 : 모든 자료는 남성 대비 여성 비(성비)로 변환한다. 예를 들어, 여성의원의 비율이 20%인 국가의 경우 남성 대 여성 비가 80대 20으로 성비는 0.25가 된다. 이 과정은 여성과 남성의 성취 그 자체가 아닌 여성과 남성의 격차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 2단계 : 성비는 평등기준점 1에서 절삭한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완전 평등할 때 1값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단, 출생성비는 0.944, 기대수명은 1.06이 평등기준점으로 활용된다.
- 3단계 : 변수별 표준편차의 변화(1%p 변화)를 이용해 가중치를 부여한다(〈표 IV-3〉 참조).
- 4단계 : 각 영역별 평균값을 단순 평균해 지수를 산정한다. 하위 지표와 마찬가지로 최종 지수는 0과 1 사이의 범위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상대적 순위를 파악함으로써 국가 비교가 가능해진다.

* 산정된 지수 해석 시 유의사항

모든 차원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1(완전 평등)이고 가장 낮은 점수는 0(완전 불평등)이다. 모든 점수는 평등과 불평등, 0과 1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표별 가중치는 GGI 점수 산정에 활용되지 않으며, 각 차원의 점수 산정에만 활용된다. 또한 GGI 점수는 비율 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산된 점수를 해석하는 데 있어 엄격한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점수는 단지, 한 나라의 성격차가 얼마나 증감했는지에 대한 지표로만 의미를 두어야 한다.

〈표 IV-3〉 GGI 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영역	지표	단위	가중치	
			하위영역	전체
경제참여와 기회	경제활동참가율	비율 (ratio)	0.199	(0.199+0.310+0.221+0.149+0.121)×(1/4)
	유사업무 임금 수준		0.310	
	추정소득		0.221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0.149	
	전문·기술직 비율		0.121	

영역	지표	단위	가중치	
			하위영역	전체
교육 성취도	문해율		0.191	$(0.191+0.459+0.230+0.121) \times (1/4)$
	초등교육 취학률		0.459	
	중등교육 취학률		0.230	
	고등교육 취학률		0.121	
건강과 생존	출생 성비		0.693	$(0.307+0.693) \times (1/4)$
	건강 기대 수명		0.307	
정치권한부여	국회의원 비율		0.310	$(0.310+0.247+0.443) \times (1/4)$
	장관 비율		0.247	
	(지난 50년 동안) 국가수장 재직기간		0.443	

주: 하위영역가중치는 지표값 표준편차의 역수임.

5) 발표 및 재산정 일정

성격차지수는 매년 10월경 WEF의 홈페이지를 통해 ‘성 격차 보고서’를 발표한다. 단, 2021년 보고서의 발표는 2021년 3월에 발표되었다.

나. GG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²⁷⁾

1) 한국의 GGI 수준

2021년 발표된 한국의 2020년 GGI 순위는 전체 156개국 중 102위로 2019년도 108위에 대비해 6계단 상승하였다. 2021년도의 점수는 0.687점으로 2019년의 0.672점에 비해 0.015점 상승하였다. GGI는 점수가 1이면 완전평등상태이고 0이면 완전불평등상태로 점수가 상승하였다는 것은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위가 상승한 주된 이유는 경제참여와 기회와 정치적 권한 분야에서 점수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건강과 생존과 교육적 성취 분야는 전체적으로 2019년보다 2020년에 순위 하락이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지표별 현황을 살펴보면, 출생성비는 0.944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문해율 역시 1점으로 완전 평등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0.185점, 134위), 추정소득(0.492점, 119위), 유사업무 임금성비(0.574점, 116위),

27) WEF 보고서는 2021년 점수로 공개하였으나 통계 기준년도는 2020년이다.

중등학교 취학률(0.996, 108위), 대학교 취학률(0.791점, 121위), 국회의원 비율(0.235점, 107위) 등은 100위권 아래로 성격차 순위가 매우 낮아 해당 지표의 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분야별로 보면 2020년은 건강과 생존 분야가 54위로 전체 분야 중 가장 높았다. 정치적 권한 분야는 68위로 2019년에 비해 점수가 0.035점이 상승했고, 순위도 11단계 상승하였다. 이는 2016년 이래로 정치적 권한 분야의 최고 순위이자 점수이다. 교육적 성취 분야는 104위로 2019년에 비해 점수 하락은 없었으나 순위는 3단계 하락하였다. 경제참여 및 기회 분야는 123위로 2019년에 비해 점수는 0.031점 상승하였고 순위도 4단계 상승하였다.

지난 10여 년간의 추이를 보면 점수는 2006년의 0.616점에 비해 2020년은 0.687점으로 0.071점이 증가하였다. 영역별로 보면 건강과 생존 분야는 2006년에 비해 40단계, 정치적 권한 분야는 16단계 상승했고, 경제참여와 기회는 27단계, 교육적 성취는 22단계 하락했다. 특히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는 2006년 96위에서 123위로 하락하여,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다. 점수를 보면 정치적 권한 점수가 2006년 대비 2020년 0.147점 상승하여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경제참여와 기회 0.105점, 교육적 성취 분야는 0.025점, 건강과 생존 분야는 0.009점 상승하였다.

〈표 IV-4〉 한국의 GGI 수준 추이

(단위: 점수, 순위)

발표년도	기준년도	순 위	점 수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2021	2020	102/156	0.687	0.586(123위)	0.973(104위)	0.976(54위)	0.214(68위)
2020	2019	108/153	0.672	0.555(127위)	0.973(101위)	0.980(1위)	0.179(79위)
2019	2018	115/149	0.657	0.549(124위)	0.973(100위)	0.973(87위)	0.134(92위)
2018	2017	118/144	0.650	0.533(121위)	0.960(105위)	0.973(84위)	0.127(90위)
2017	2016	116/144	0.649	0.537(123위)	0.964(102위)	0.973(76위)	0.120(92위)
2016	2015	115/145	0.651	0.557(125위)	0.965(102위)	0.973(79위)	0.107(101위)
2015	2014	117/142	0.640	0.512(124위)	0.965(103위)	0.973(74위)	0.112(93위)
2014	2013	111/136	0.635	0.504(118위)	0.959(100위)	0.973(75위)	0.105(86위)
2013	2012	108/135	0.636	0.509(116위)	0.959(99위)	0.973(78위)	0.102(86위)
2012	2011	107/135	0.628	0.493(117위)	0.948(97위)	0.974(78위)	0.097(90위)
2011	2010	104/134	0.634	0.520(111위)	0.947(100위)	0.973(79위)	0.097(86위)

발표년도	기준년도	순 위	점 수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2010	2009	115/134	0.615	0.520(113위)	0.894(109위)	0.973(80위)	0.071(104위)
2009	2008	108/130	0.615	0.487(110위)	0.937(99위)	0.967(107위)	0.071(102위)
2008	2007	97/128	0.641	0.580(90위)	0.949(94위)	0.967(106위)	0.067(95위)
2007	2006	92/115	0.616	0.481(96위)	0.948(82위)	0.967(94위)	0.067(84위)
2006-2020 점수 변화		△0.051		△0.105	△0.025	△0.009	△0.147

각 분야별로 GGI 수준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의 구성지표를 살펴보면,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에서 2019년 142위 0.108점에서 2020년 134위 0.185점으로 0.077점으로 가장 높은 상승이 나타났다. 또한 전문·기술직 비율 역시 2019년 88위 0.927점에서 2020년 80위 0.968점으로 0.041점 상승하였다. 그 외에 유사업무 임금성비에서 2019년 119위 0.551점에서 2020년 116위 0.574점으로 0.023점 상승하였고, 추정소득(US \$)에서는 2019년 121위 0.476점에서 2020년 119위 0.492점으로 0.016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활동참가율 경우 2019년과 2020년 순위의 변동이 없었으나 전년도 0.756점에 비해 2020년 0.774점으로 0.018점 하락하였다. 지난 4개년도 동안 추이를 살펴보면, 유사업무 임금성비의 순위는 조금씩 상승한 반면,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의 순위는 시기별 증감이 있으나 2017년보다 2020년 17단계 하락이 나타났다.

〈표 IV-5〉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의 GGI 수준 추이

(단위: 점수, 순위)

지표(F/M)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 전체	123	0.586	127	0.555	124	0.549	121	0.533
경제활동참가율	92	0.774	92	0.756	88	0.750	91	0.732
유사업무 임금성비	116	0.574	119	0.551	121	0.532	121	0.510
추정소득(US \$)	119	0.492	121	0.476	121	0.457	121	0.447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134	0.185	142	0.108	133	0.141	117	0.117
전문·기술직 비율	80	0.968	88	0.927	86	0.927	76	0.928

주: 발표연도가 아닌 통계 기준연도를 의미

교육적 성취 분야를 구성지표별로 보면, 초등 취학률(net)이 2019년과 2020년 모두 0.998점으로 동일하였으나 84위에서 85위로 순위가 한 단계 하락하였고, 중등 취학률(net) 역시 양 년도 모두 0.996점으로 동일했으나 2019년 107위에서 2020년 108위로 하락이 나타났다. 고등교육 취학률(gross)도 마찬가지로 양년도 모두 0.791점으로 동일했지만 이전년도보다 1단계 하락하여 2020년 121위로 나타났다. 문해율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변함없이 1위 1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교육적 성취 부문은 시기 상 큰 변동이 없는 편이나 다른 국가들의 성평등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순위가 점차 하락하는 성평등 격차 개선이 더딘 분야로 보인다.

〈표 IV-6〉 교육적 성취 분야의 GGI 수준 추이

(단위: 점수, 순위)

지표(F/M)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교육적 성취 분야 전체	104	0.973	101	0.973	100	0.973	105	0.960
문해율	1	1.000	1	1.000	-	-	-	-
초등교육 취학률(net)	85	0.998	84	0.998	1	1.000	84	0.995
중등교육 취학률(net)	108	0.996	107	0.996	1	1.000	101	0.992
고등교육 취학률(gross)	121	0.791	120	0.791	113	0.780	112	0.765

주: 발표연도가 아닌 통계 기준연도를 의미

건강과 생존 분야는 특히 건강기대수명에서 하락이 있었는데, 2019년 1위 1.060점에서 2020년 62위 1.048점으로 0.012점 하락하였다. 출생성비는 2019년과 2020년 모두 1위 0.944점으로 변동 없었다. 지난 4년간 추이를 보면, 출생성비는 2017년 132위에서 2020년 1위로 급격한 순위 상승이 확인되었다. 반면 건강기대수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위를 유지하다가 2020년 62위로 순위 하락이 나타났다.

〈표 IV-7〉 건강과 생존 분야의 GGI 수준 추이

(단위: 점수, 순위)

지표(F/M)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건강과 생존 분야 전체	54	0.976	1	0.980	87	0.973	84	0.973
출생 성비	1	0.944	1	0.944	137	0.935	132	0.935
건강기대수명	62	1.048	1	1.060	1	1.060	1	1.060

주: 발표연도가 아닌 통계 기준연도를 의미

마지막으로 정치적 권한 분야를 구성지표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상승이 나타난 지표는 장관비율로 2019년 73위 0.285점에서 2020년 60위 0.385점으로 0.1점 상승하였다. 국회의원 비율은 2019년 108위 0.200점에서 2020년 107위 0.235점으로 0.035점 상승하였다. 반면 지난 50년 동안 국가 수장(총리 이상)의 재직기간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0.104점으로 동일하였으나 순위는 29위에서 33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경향을 살펴보면, 장관비율은 순위의 상승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국회의원비율 및 국가 수장의 재직기간은 꾸준히 순위가 하락했다.

〈표 IV-8〉 정치적 권한 분야의 GGI 수준 추이

(단위: 점수, 순위)

지표(F/M)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정치적 권한 분야 전체	68	0.214	79	0.179	92	0.134	90	0.134
국회의원 비율	107	0.235	108	0.200	102	0.205	97	0.205
장관 비율	60	0.385	73	0.285	119	0.100	115	0.100
지난 50년 동안 국가 수장 (총리 이상)의 재직기간	33	0.104	29	0.104	28	0.189	28	0.104

주: 발표연도가 아닌 통계 기준연도를 의미

2) 주요 국가의 GGI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회원국의 2020년 GGI 수준을 보면 전체 37개 국가 중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가 1위부터 4위까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102위로 이는 37개 국가 중 35번째이다. 터키가 37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고, 바로 위 36위가 일본이다.

종합 성격차지수 점수는 1위인 아이슬란드가 0.892점으로 한국의 0.687점에 비해 0.205점이 높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에서는 아이슬란드가 0.846점을 기록해 전체 4위이고 OECD 국가 중 1위이다. 이어서 라트비아가 8위, 스웨덴이 11위, 리투아니아가 12위이다. 한국의 점수는 123위 0.586점으로 OECD 국가 중 1위인 아이슬란드와 0.260점의 차이를 보인다.

교육적 성취 분야에서는 37개국 중 핀란드,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체코가 완전 평등상태인 1.000점을 기록하여 한국의 0.973보다 0.027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생존 분야는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가 0.980점으로 동일하게 가장 높았다. 반면 한국은 2020년 순위가 다소 하락하여 54위 0.976점으로 1위 국가와 0.004점 차이가 있었다.

정치적 권한 분야는 아이슬란드가 1위로서 점수는 0.760점이다. 한국은 0.214점으로 무려 0.546점이 낮아 이 분야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9〉 OECD 국가 중 GGI 1위 국가와 한국간의 점수격차(2020년*)

구분	종합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영향력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1위 국가	1	0.892	4	0.846	38	0.999	127	0.964	1	0.760
대한민국	102	0.687	123	0.586	104	0.973	54	0.976	68	0.214
점수 격차	-	▽0.205	-	▽0.260	-	▽0.026	-	△0.012	-	▽0.546

주: *발표연도가 아닌 통계 기준연도를 의미

〈표 IV-10〉 OECD 회원국의 GGI 현황(2020년*)

국가명	순위	점수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한국	102	0.687	123	0.586	104	0.973	54	0.976	68	0.214
아이슬란드	1	0.892	4	0.846	38	0.999	127	0.964	1	0.760
핀란드	2	0.861	13	0.806	1	1.000	79	0.970	2	0.669
노르웨이	3	0.849	20	0.792	33	1.000	126	0.964	3	0.640
뉴질랜드	4	0.840	27	0.763	1	1.000	106	0.966	4	0.630
스웨덴	5	0.823	11	0.810	61	0.996	133	0.962	9	0.522
리투아니아	8	0.804	12	0.808	51	0.998	1	0.980	22	0.429
아일랜드	9	0.800	43	0.733	48	0.998	119	0.964	11	0.504
스위스	10	0.798	39	0.743	80	0.992	128	0.964	12	0.494
독일	11	0.796	62	0.706	55	0.997	75	0.972	10	0.509
벨기에	13	0.789	59	0.709	1	1.000	98	0.968	16	0.480

국가명	순위	점수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스페인	14	0.788	71	0.699	44	0.998	114	0.965	15	0.491
프랑스	16	0.784	58	0.710	1	1.000	86	0.970	20	0.457
라트비아	20	0.778	8	0.822	1	1.000	52	0.976	42	0.313
오스트리아	21	0.777	88	0.665	1	1.000	83	0.970	17	0.473
포르투갈	22	0.775	38	0.746	76	0.992	73	0.972	26	0.390
영국	23	0.775	55	0.716	40	0.999	110	0.966	23	0.419
캐나다	24	0.772	40	0.741	1	1.000	100	0.968	29	0.381
덴마크	29	0.768	42	0.736	1	1.000	119	0.964	32	0.371
미국	30	0.763	30	0.754	36	1.000	87	0.970	37	0.329
네덜란드	31	0.762	57	0.713	1	1.000	135	0.962	31	0.375
멕시코	34	0.757	122	0.590	56	0.997	58	0.975	18	0.468
슬로베니아	41	0.741	15	0.803	28	1.000	49	0.977	83	0.184
에스토니아	46	0.733	31	0.754	1	1.000	59	0.975	75	0.201
호주	50	0.731	70	0.700	1	1.000	99	0.968	54	0.258
룩셈부르크	55	0.726	75	0.691	1	1.000	117	0.965	58	0.247
콜롬비아	59	0.725	60	0.708	1	1.000	56	0.975	67	0.216
이스라엘	60	0.724	65	0.705	1	1.000	121	0.964	65	0.227
이탈리아	63	0.721	114	0.609	57	0.997	118	0.965	41	0.313
칠레	70	0.716	113	0.610	31	1.000	78	0.970	49	0.283
폴란드	75	0.713	63	0.705	60	0.996	1	0.980	89	0.171
슬로바키아	77	0.712	80	0.682	1	1.000	1	0.980	82	0.184
체코	78	0.711	91	0.662	1	1.000	44	0.978	73	0.203
그리스	98	0.689	83	0.672	67	0.994	107	0.966	115	0.123
헝가리	99	0.688	86	0.669	72	0.993	1	0.980	124	0.112
일본	120	0.656	117	0.604	92	0.983	65	0.973	147	0.061
터키	133	0.638	140	0.486	101	0.975	105	0.967	114	0.123

주: *발표연도가 아닌 통계 기준연도를 의미

2. 유엔개발계획의 성개발지수와 성불평등 지수

가. 남녀개발지수의 소개

1) GDI의 의미와 특징²⁸⁾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은 2014년부터 새롭게 개선한 성개발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 이하 GDI)를 발표하였다. GDI는 1995년 제4차 여성대회에서 처음 발표한 이래로 2009년까지 약 10여년간 매년 발표되었으나, 여러 한계로 인해 2009년에 폐기되었다. 현재 GDI는 2014년에 개편된 것이다. 기존의 GDI가 HDI(Human Development Index)를 기준으로 성별 격차를 고려할 경우 HDI가 얼마나 바뀌게 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개선된 GDI는 여성과 남성의 HDI를 개별로 계산함으로써 여성집단과 남성집단의 HDI를 각각 산출하였다. 그 결과 남녀 간의 HDI 수치의 절대 격차에 기초하여 순위를 매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별, 지역별, 연도별 남녀 HDI의 절대수치의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²⁹⁾.

〈표 IV-11〉 기존 GDI와 새로운 GDI 비교

지수명	기존 GDI	새로운 GDI
영문명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ender Development Index
우리나라 순위	2008년 ¹⁾ 155개국 중 25위	2019년 ¹⁾ 189개국 중 111위 ²⁾
발표기간	1995년-2009년	2014년-현재
지수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시 기대여명 • 성인 문해율(15세 이상 인구) • 초중고 취학률 • 1인당 추정소득(G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시 기대여명 • 평균 교육년수(25세 이상 인구) • 기대 교육년수 • 1인당 추정소득(GNI)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별 성불평등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 • 국가별 수준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HDI를 산정 후 성비를 산출하는 방식 • 국가별 수준 미반영, 성별격차만 반영

주: 1) 발표연도가 아닌 통계 기준연도를 의미

2) 189개국 중 GDI 점수가 산출되지 않은 국가를 제외하고 산정한 순위임

28) GDI 지표 구성과 소개는 거의 변화가 없어 주재선, 정성미, 한진영, 박송이(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p. 86-89의 내용 및 김경희, 이민아, 이은아, 김은경(2020), 「2020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 63-74의 원문을 대부분 발췌 및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29) 자료: Frequently Asked Questions- GDI, UNDP HDR 웹 페이지 <http://hdr.undp.org>

새로 발표된 GDI는 인간개발의 기본적인 세 가지 차원인 건강, 교육, 경제(적절한 표준 삶)에서의 성취 수준에 대한 성별 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UNDP, 2014: 7). 이에 따라 GDI는 해당 국가의 HDI 수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었던 과거의 집계방식에서 벗어나, HDI의 성별 차이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즉, 성별에 따른 HDI를 산정한 후 성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측정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HDI에서 국가의 발전 수준이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배제하고, 남녀 간의 격차만이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을 의미한다.

2) 지표의 구성

GDI는 3개 영역의 총 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영역으로는 평균수명, 교육영역으로는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와 기대 교육년수, 경제영역으로는 국민총생산(GNI)을 기준으로 한 1인당 추정소득이다.

출생시 기대여명은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를 말한다. 기대 교육년수는 연령별 취학률 패턴이 지속된다면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교육년수이다. 1인 당 GNI(추정소득)는 1인당 국민소득을 미국 달러 기준의 구매력 평가 환율로 변경한 것으로 성별 인구 비중, 경제활동인구 비중, 임금 격차의 세 변수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표 IV-12〉 GDI 영역과 지표

영역	2009년 GDI 지표 구성	2014년 이후 GDI 지표 구성
건 강	• 출생시 기대여명	• 출생시 기대여명
교 육	• 성인 문해율 • 총 취학률	•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 • 기대 교육년수
경 제	• 1인당 GDP(PPS\$)	• 1인당 GNI(PPS\$)

3) 지표별 자료원

지수산정에 활용된 자료원을 보면 출생시 기대여명은 유엔경제사회국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평균 교육년수는 유네스코 통계연구소(Institute for Statistics)의 자료와 바로와 리(Barro & Lee, 2014)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기대 교육년수는 유네스코 통계연구소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추정소득은 세계노동기구, 유엔

경제사회국, 세계은행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엔개발보고서 담당자들이 산출하고 있다 (UNDP, 2014: 7).

〈표 IV-13〉 GDI 지표별 자료원

지표	자료원
출생시 기대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SA(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New York.
평균 교육년수 (25세 이상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2020). Data Centre • ICF Macro. Various years.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 UNICEF. Various year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 OECD(2019). Education at a Glance 2019
기대 교육년수 (학령기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2020), Data Centre • Barro and Lee(2018). Dataset of Educational Attainment • ICF Macro. Various years.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 UNICEF. Various year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 OECD(2019). Education at a Glance 2019
추정소득 (PPP\$)	UNDP-HDRO(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calculations based 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2020). ILOSTAT Data centre • UNDESA(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1 • World Bank(2020).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2020). 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ion Database • IMF(2019).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자료: UNDP(2020). Human Development Report-Technical notes. p6.
http://hdr.undp.org/sites/default/files/hdr2020_technical_notes.pdf (2021년 12월 12일 접속).

4) 측정방법

GDI는 네 단계의 순서를 거쳐 계산된다(UNDP, 2020).

첫째 단계는 남녀별 소득의 추정이다. 이를 위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S_f = \frac{W_f/W_m \cdot EA_f}{W_f/W_m \cdot EA_f + EA_m}$$

S_f : 여성의 임금비율

W_f/W_m : 남성대비 여성임금비

EA_f : 경제활동참가인구 중 여성비중

여성 1인당 소득추정은 국민총생산에 여성 임금비율과 여성인구 비중을 곱하여 구한다.

$$GNI_{pcf} = GNI_{pc} \cdot S_f / P_f$$

P_f : 여성인구 비중

남성 1인당 소득추정 역시 국민총생산에 남성 임금비율과 남성인구 비중을 곱하여 구한다.

$$GNI_{pcm} = GNI_{pc} \cdot S_m / P_m$$

P_m : 남성인구 비중

둘째 단계는 지표들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모든 지표들을 0에서 1까지의 척도로 전환한다.

〈표 IV-14〉 GDI의 최대·최소값 설정

지표	최소값	최대값
기대 교육년수	0	18
평균 교육년수	0	18
추정소득	100	75,000
기대여명		
여자	22.5	87.5
남자	17.5	82.5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용하여, 지표의 표준화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text{지표의 표준화} = \frac{(\text{실제값} - \text{최소값})}{(\text{최대값} - \text{최소값})}$$

두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 분야는 각 지표의 지수값을 구하여 산술 평균값을 취한다.

셋째 단계는 여성 HDI값과 남성 HDI값을 산출하는 것이다.

여성 HDI와 남성 HDI는 세 분야 지수들의 기하평균값을 취한다.

$$HDI_f = (I_{Healthf} \cdot I_{Educationf} \cdot I_{Incomef})^{1/3}$$

$$HDI_m = (I_{Healthm} \cdot I_{Educationm} \cdot I_{Incomem})^{1/3}$$

넷째 단계는 GDI를 계산하는 것이다.

$$GDI = \frac{HDI_f}{HDI_m}$$

나. GD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1) 한국의 GDI 수준³⁰⁾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는 각 국가의 GDI 점수를 발표하되, 순위를 매기지 않고, 대신 5그룹으로 나누어 각 국가들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집계하고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1그룹은 GDI 점수가 0.975 이상인 국가이다. 다시 말해 남성과의 격차가 2.5% 이하인 국가를 1그룹으로 상정하였다. 2그룹은 격차가 5% 이하(0.950~0.975 미만), 3그룹은 7.5% 이하(0.925~0.950), 4그룹은 10% 이하(0.900~0.925 미만), 5그룹은 10%를 초과(0.900 미만)인 국가로 범주화하였다. 국가별 순위대신 수준을 범주화한 이유는 이 GDI 지표의 개발 의도가 국가별 비교보다는 남녀 개발지수의 절대 격차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를 감소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기준에 따라 2020년 발표된 2019년 한국의 GDI 수준은 0.936점으로 성격차 수준 5그룹 중 3그룹에 속하며, 189개 국가 중 111위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35번째 순위로 낮은 편에 속한다. 순위가 낮은 가장 큰 원인은 남녀 소득수준 격차가 큰 이유가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추정소득이 여성은 \$27,734, 남성은 \$58,309이다.

총점수를 보면 여성 HDI가 0.881, 남성 HDI가 0.941로 집계되고 있어 2016년에 비해 2020년 여성은 0.020p 증가했으며 남성은 0.015p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HDI 순위는 189개 국 중 23위(0.916점)로 높은 편이나³¹⁾, GDI 순위가 109위로 낮은 것은 HDI 성별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30) 자료: UNDP(2020). Human Development Report-Technical notes. p6.
http://hdr.undp.org/sites/default/files/hdr2020_technical_notes.pdf (2021년 12월 12일 접속)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통계 기준연도는 2019년이다.

31)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Data Center.
<http://hdr.undp.org/en/data> (2021년 12월 12일 접속)

〈표 IV-15〉 한국의 GDI 수준

발표 연도	기준 연도	순위/대상	GDI	인간개발지수 (HDI)		출생시 기대여명(년) ¹⁾		평균 교육년수(년) ²⁾		기대 교육년수(년) ³⁾		추정소득 (2011 PPP\$) 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20	2019	3그룹 (111/189)	0.936	0.881	0.941	86.0	79.9	11.4	12.9	15.9	17.0	27,734	58,309	
2019	2017	3그룹 (109/189)	0.934	0.870	0.932	85.8	79.7	11.5	12.9	15.8	16.9	23,228	50,241	
2018	2017	3그룹 (108/189)	0.932	0.866	0.929	85.3	79.2	15.9	17.1	11.4	12.9	22,572	49,297	
2017	2015	3그룹 (104/188)	0.929	0.863	0.929	85.2	78.8	11.5	12.9	15.8	17.3	21,308	47,934	
2016	2014	3그룹 (104/161)	0.930	0.861	0.926	85.0	78.5	11.2	12.7	16.0	17.7	21,896	46,018	
2014-2019 점수 변화			-	△0.006	△0.020	△0.015	△1.0	△1.4	△0.2	△0.2	▽0.1	▽0.7	△5,838	△12,291

주: 1) 출생시 기대여명 : 0세의 평균 기대수명

2) 평균 교육년수 :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

3) 기대 교육년수 : 학령기 아동이 기대하는 평균 기대 교육년수

4) 1인당 GNI : 1인당 국민소득을 미국 달러 기준의 구매력평가 환율로 변경한 소득

기존 GDI의 한국 수준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2009년의 경우 155개 국가 중 25위로 HDI 순위인 26위보다 한 계단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GDI의 한국 수준이 높은 이유는 첫째, 교육수준 지표에서 사용한 문맹률의 남녀차이가 없었기 때문이고, 둘째, HDI 수준을 기준으로 남녀차이를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개선된 GDI는 해당 국가의 절대적인 HDI 수준에 무관하게 남녀차이만을 순수하게 보여주려 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표 IV-16〉 기존 GDI의 한국 수준

연도	대상 국가	순위	평균 수명(년)		성인 문해율(%)		초중고 취학률(%)		추정소득 (PPP\$)		HDI 순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00	143	30	76.2	69.0	95.9	99.0	84.0	94.0	8,342	18,529	31
2005	144	27	80.6	73.3	99.0	99.0	87.0	100.0	11,698	24,167	28
2009	155	25	82.4	75.8	99.0	99.0	90.6	105.8	16,931	32,668	26

2) 주요 국가의 GDI 수준

2014년에 개편된 GDI는 이전의 GDI와 달리 해당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비례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즉 이전의 GDI는 추정소득이 높을수록 GDI 점수가 높게 나와 해당 국가의 GDP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새로 바뀐 GDI는 남녀의 차이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관관계가 약화되었다.

2020년 발표된 OECD 국가의 GDI 현황을 보면 HDI 순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에 비해 GDI 순위는 넓게 퍼져있다. 라트비아가 점수가 1순위로 가장 높은 반면 한국은 전체 OECD 국가 36개국 중 35위, 터키가 36위로 최하위이다. 등급별 분포를 보면 GDI 점수가 가장 높은 라트비아는 1등급, 리투아니아는 2등급이며³²⁾, 에스토니아부터 룩셈부르크까지 19개 국가가 GDI 1등급에 속하고 있다. 반면 4등급인 터키와 3등급인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모두 2등급을 보였다.

지표별 차이를 보면 GDI 1등급의 국가 중 상당수가 평균 교육년수에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미국, 노르웨이, 핀란드, 포르투갈,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아일랜드, 일본, 호주가 여성 평균 교육년수가 남성보다 길다. 2등급 국가의 경우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가 남성보다 긴 국가는 리투아니아, 이스라엘, 독일이다. 평균 기대교육년수 지표 역시 한국은 여성이 15.9, 남성이 17.0년으로 1.1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1등급 국가의 경우 포르투갈과 일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에서 여성의 평균 기대 교육년수가 남성보다 길다.

32) 1등급 범주인 0.975-1.000과 1.000-1.025의 범위를 벗어나서 2등급임. 즉 여성의 HDI가 남성이 비해 높은 경우에도 격차에 따라 등급화하고 있음.

〈표 IV-17〉 OECD 회원국의 GDI 현황(2019년*)

국 가 명	등급	순위	GDI 성비	HDI		출생시 기대여명(년)		기대 교육년수(년)		평균 교육년수(년)		추정소득 (PPP US\$)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대한민국	3	111	0.936	0.881	0.941	86	79.9	15.9	17.0	11.4	12.9	27,734	58,309
라트비아	2	1	1.036	0.879	0.849	80	70.2	16.8	15.5	13.4	12.6	25,758	35,584
리투아니아	2	2	1.03	0.894	0.868	81.4	70.3	17.1	16.2	13.1	13	30,987	41,389
에스토니아	1	7	1.017	0.896	0.882	82.7	74.4	16.8	15.2	13.6	12.7	27,086	45,984
폴란드	1	15	1.007	0.880	0.874	82.6	74.8	16.9	15.3	12.5	12.4	24,827	38,850
슬로베니아	1	21	1.001	0.916	0.914	84	78.6	18.3	16.8	12.6	12.7	33,885	42,312
미국	1	29	0.994	0.922	0.928	81.4	76.3	16.9	15.7	13.5	13.4	50,590	77,338
슬로바키아	1	33	0.992	0.855	0.862	81	74	15	14	12.6	12.8	24,618	40,014
노르웨이	1	35	0.99	0.949	0.959	84.4	80.4	18.8	17.4	13	12.8	58,548	74,280
핀란드	1	35	0.99	0.932	0.942	84.7	79.1	20.2	18.6	13	12.6	40,759	56,485
포르투갈	1	39	0.988	0.858	0.868	84.9	79	16.5	16.6	9.4	9.1	28,937	39,571
프랑스	1	40	0.987	0.895	0.907	85.5	79.7	16	15.3	11.3	11.7	39,478	55,375
캐나다	1	41	0.986	0.922	0.935	84.4	80.4	16.7	15.7	13.4	13.3	39,459	57,734
스페인	1	41	0.986	0.896	0.909	86.2	80.8	18	17.2	10.2	10.3	32,881	49,356
체코	1	45	0.985	0.893	0.906	81.9	76.8	17.5	16.1	12.5	12.9	29,480	47,012
스웨덴	1	49	0.983	0.936	0.953	84.6	81	20.4	18.6	12.7	12.4	47,709	61,287
덴마크	1	49	0.983	0.931	0.948	82.9	78.9	19.6	18.3	12.8	12.4	49,296	68,134
아일랜드	1	53	0.981	0.943	0.961	83.9	80.7	18.8	18.6	12.9	12.4	55,540	81,401
헝가리	1	53	0.981	0.844	0.861	80.3	73.2	15.5	14.9	11.7	12.2	23,170	40,316
일본	1	60	0.978	0.906	0.927	87.7	81.5	15.2	15.3	13.1	12.6	30,584	55,869
호주	1	63	0.976	0.932	0.955	85.4	81.5	22.4	21.5	12.8	12.7	39,287	56,954
룩셈부르크	1	63	0.976	0.901	0.923	84.3	80.2	14.3	14.2	12	12.6	58,642	86,488
벨기에	2	68	0.974	0.918	0.943	83.9	79.3	20.7	18.8	11.9	12.2	41,948	62,427
이스라엘	2	70	0.973	0.904	0.929	84.5	81.3	16.8	15.6	13.1	13	29,665	50,819
독일	2	71	0.972	0.933	0.96	83.7	78.9	16.9	17	13.9	14.4	45,277	65,599
영국	2	74	0.97	0.916	0.944	83	79.6	18	17	13.2	13.2	33,323	59,135
아이슬란드	2	75	0.969	0.933	0.963	84.5	81.5	20.2	18	12.6	13	46,413	62,883
스위스	2	76	0.968	0.934	0.965	85.6	81.9	16.2	16.4	12.7	13.6	57,840	81,137
이탈리아	2	76	0.968	0.875	0.905	85.5	81.3	16.4	15.8	10.2	10.6	31,639	54,529
네덜란드	2	80	0.966	0.926	0.96	84	80.6	18.8	18.2	12.2	12.7	46,815	68,685

국 가 명	등급	순위	GDI		HDI		출생시 기대여명(년)		기대 교육년수(년)		평균 교육년수(년)		추정소득 (PPP US\$)	
			성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뉴질랜드	2	85	0.964	0.912	0.946	84	80.6	19.7	17.9	12.7	12.9	31,233	50,693	
오스트리아	2	85	0.964	0.903	0.937	83.9	79.2	16.4	15.8	12.2	12.9	39,386	73,528	
그리스	2	87	0.963	0.869	0.902	84.7	79.8	17.5	18.1	10.3	10.8	24,062	36,476	
칠레	2	87	0.963	0.833	0.865	82.4	77.8	16.7	16.2	10.5	10.7	16,398	30,322	
멕시코	2	90	0.96	0.76	0.792	77.9	72.2	15	14.6	8.6	8.9	12,765	25,838	
터키	4	118	0.924	0.784	0.848	80.6	74.7	16	17.1	7.3	9	17,854	37,807	

주: *발표연도가 아닌 통계 기준연도를 의미
 GDI 1그룹 0.975 이상, 2그룹 0.950~0.975 미만, 3그룹 0.925~0.950 미만, 4그룹 0.900~0.925 미만, 5그룹 0.900 미만
 자료: UNDP(2020). Human Development Report 2020.

다. 성불평등지수 소개³³⁾

1)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이하 GII) 특징³⁴⁾

GII는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2010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 1995년 이래 발표했던 여성개발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이하 GDI)와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이하 GEM)를 대체하는 지수이다. GII는 생식건강, 권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이익을 파악하도록 지표가 구성된다. GII는 성평등할 때 인간개발이 최적화될 수 있다는 개념하에,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인간개발의 손실로 접근한다.

GII는 기존 GDI와 GEM의 한계와 비판을 수용하여 개발되었기에 지표의 선정과 지수산정 방법에 있어 차별화된다. 지표 선정은 기본적으로 개념적 연관성³⁵⁾(Conceptual relevance), 해석의 명확성³⁶⁾(Non-ambiguity), 통계의 신뢰성³⁷⁾(Reliability), 가치

33) GII지표 구성과 소개는 거의 변화가 없어 주재선, 정성미, 한진영, 박송이(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p. 93-96, 김경희, 이민아, 이은아, 김은경(2020), 「2020년 국가 성평등보고서」, pp. 74-84, 주재선(2021), “국제성평등지수로 보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의 원문을 대부분 발췌 및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34) 본 절은 주재선(2021), “국제성평등지수로 보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의 원문을 대부분 발췌 및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35) 인간개발 정의와 이론과 강력한 관련성. 즉, 지표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36) 해석이 단순해야 한다는 것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지표 값이 높을수록(혹은 낮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부가³⁸⁾(Value added)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국가의 발전 수준에 의존하지 않는 지표로 구성하였다. GII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비교변수가 아닌 여성만의 생식건강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GII가 발표되기 이전 UNDP에서 발표해오던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가 경제 분야와 정치 분야에서 대표성과 관련된 지표 즉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국회의원 여성 비율, 전문기술직 여성 비율 등의 지표를 포함시켰던 점을 상기한다면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의 GEM 지표 중 위의 지표들이 소수 엘리트 여성의 상태만을 제한적으로 반영한다는 비판을 수렴한 결과로 보인다. 즉, 국회의원 여성 비율을 제외한 다른 지표들을 없애는 대신 대부분의 여성에게 해당하는 모성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이라는 보다 인간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표로 교체하였다.

둘째, GII는 기존 지수 추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던 자료 대체(Imputation)에 의존하지 않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GDI와 GEM의 지표 중 소득은 절대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와 순위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국가의 3/4 이상은 소득을 추정하여 지수를 산정하였다. 특히 소득은 GDI에 있어 HDI와 격차를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추정에 의한 측정은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였다. 이에 GII는 소득수준이 성격차를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임에도 지표구성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셋째, GII는 성불평등 수준만을 고려하여 지수를 산정하도록 하여, 국가의 발전 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GII는 세 가지 영역에서 성 불평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성취의 손실을 파악한다. 따라서 지수는 인간개발에서 불평등이 전혀 없는 경우 '0'에서, 완전불평등한 경우 '1'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넷째, GII 측정은 영역 간의 불이익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즉, 영역들이 서로 보완적(Complementarities)임을 고려하여 영역 간의 남녀불평등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때, 불평등 수준이 더 커지도록 설계하였다. 즉, 교육 분야의 불평등은 취업 기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고, 이는 여성 빈곤으로 이어져 모성 사망비 증가 등으로 복합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일때 불평등이 더 높아지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와 같은 측정방법은 GII의 주요한 특징으로, 특정 영역의 낮은 성취는 다른 영역의 높은 성취에 의해서 완전하게 보상될 수 없게 구성한 것이다.³⁹⁾

37) 정의, 통계의 질, 생산과정 등에서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는 개념이다

38) 각 지표는 명확히 새로운 정보를 주어야 한다.

39) GII는 영역간의 상관관계가 정(+)의 방향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구축한 지수이다. 기존의 국제성평등지수의 경우 성불평등 해소 정책을 어떤 영역이나 지표를 대상으로 추진

그리고 GGI 등 대부분의 성평등지수는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어떠한 영역이나 지표를 대상으로 추진해도 동일한 상승효과를 보이거나, GII는 불평등 정도가 높은 영역 혹은 지표에 추진할 경우 보다 높은 상승효과를 나타낸다.

2) 지표의 구성과 선정 근거

GII는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 참여의 3개 영역으로 구축되어 있고 총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지표구성을 보면 첫째, 생식건강 영역은 모성 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영역의 지표들이 남녀를 비교한 데 비해, 이 영역의 지표는 여성 특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두 지표의 선정 근거는 여성특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관련된 여성의 건강이 남녀의 격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출산과 관련된 산모의 사망 위험은 기초교육, 적절한 영양, 피임에 대한 접근성, 의료서비스, 숙련된 출산조력자를 통해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대부분 큰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에도, 상당수의 여성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고 있어 여성의 건강유지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청소년 출산율로 측정되는 조기 출산은 건강에 대한 문제와 아울러 산모의 미래의 인간개발 기회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지표로 선정되었다. 청소년 출산은 산모와 아기 건강에 대한 높은 위험과 관련이 있고, 출산여성의 교육 중단과 그로 인한 저숙련 일자리 취업의 가능성이 높다.

둘째, 여성 권한 영역은 여성의원 비율과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비율이라는 두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의원 비율은 대부분의 성평등지수에서 선택하고 있는 지표로써 정치 분야의 권한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영역의 여성의 지위와 권한을 보여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은 권한 영역에서 교육 분야의 성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택한 지표이다. 교육수준은 경제와 정치 등 향후 여성의 지위와 연관된 지표로, GII지수는 중등 및 고등교육 성취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참여 영역은 경제활동참가율로 측정하고 있다. GII는 GDI, GEM, GGI 등 대부분의 지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득변수를 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득통계가 국가별로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 추정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도, 성불평등 개선 정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면, GII의 경우 어떤 영역 혹은 지표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정책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다.

〈표 IV-18〉 GII의 영역과 지표

영역(차원)	지표	내용
생식건강	모성 사망비	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해 출생 10만 명당 사망하는 여성의 수
	청소년 출산율	15~19세 여성인구 1,000명 당 출산 수 (UN의 출산율 전망치 활용)
여성권한	여성의원 비율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성별 인구 비율
노동참여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UNDP(2020), Human Development Index 2020, p.364.

3) 지표별 자료원

지수산정에 활용된 자료원은 모성사망비는 유엔 모성사망 추정 집단 결과(2019)를 활용했고, 청소년 출산율은 유엔 경제사회국(UNDESA, 2019)의 자료를 활용했다. 여성의원 비율은 국제의원연맹(IPU)의 데이터베이스(2020)를 근거로 하였고,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은 유네스코 통계연구소(2020)와 Barro and Lee(2018)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국제노동기구(ILO, 2020)의 노동시장 지표에서 수집하였다.

〈표 IV-19〉 GII 지표별 자료원

영역	지표	자료원
생식건강	모성사망비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World Bank Group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9).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2000 to 2017: Estimates by WHO, UNICEF, UNFPA, World Bank Group and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청소년 출산율	Adolescent birth rate (ABR): • UNDESA(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Rev 1. New York.

영역	지표	자료원
여성권한	여성의원비율	Share of parliamentary seats held by each sex (PR): • IPU(2020). Parline database: Monthly ranking of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비율	Population with at least some secondary education (SE):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2020). Data Centre. • Barro and Lee(2018). Dataset of Educational Attainment, June 2018 Revision.
노동참여	경제활동 참가율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LFPR): • ILO(2020). ILOSTAT database.

자료: UNDP(2020). Human Development Report-Technical notes. p8.
http://hdr.undp.org/sites/default/files/hdr2020_technical_notes.pdf (2021년 12월 12일 접속).

4) 측정방법

GII는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지표 간 연관에서 변화에 민감하도록 설계하였다. 지수산정은 Atkinson 불평등지수 산정방식을 원용하고 있다. 지수는 성별차이를 균등배분(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지수⁴⁰⁾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표준화하여 측정하게 된다. 단계별 측정 과정은 다음의 다섯 단계를 거친다(UNDP, 2020: 9).

첫 번째 단계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다루는 단계이다. 기하평균을 계산할 때는 0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지표의 최소값을 0.1로 지정한다. 모성사망비 추정인 경우는 100,000명 출생 당 최소값 10, 최대값 1,000으로 조정한다. 이는 사실상 모성사망비가 1,00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가 모성건강을 위한 조건과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10명 이하인 경우는 국가 간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판단에 기반한다.

두 번째 단계는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전체영역의 성별 지표를 계산함으로써 여성(G_F)과 남성(G_M) 각각에 대해 차원 간 통합을 한다. 먼저 여성 지표값 산출을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40) 개별지표를 균등배분지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평등에 대한 혐오수준을 정해야 한다. 불평등 혐오수준(ϵ)은 만약에 불평등에 대한 혐오가 없으면 $\epsilon=0$ 으로 설정하며, 혐오가 높을수록 ϵ 값을 높인다. GII는 불평등 혐오수준(ϵ)을 GDI 산정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epsilon=2$ 를 설정하여 계산하고 있다.

$$G_F = \sqrt[3]{\left(\frac{10}{MMR} \cdot \frac{1}{AFR}\right)^{\frac{1}{2}} \cdot (PR_F \cdot SE_F)^{\frac{1}{2}} \cdot LFPR_F}$$

MMR : 모성사망비

ABR : 청소년 출산율

PR_F : 여성의원 비율

SE_F :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여성 비율

$LFPR_F$: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지표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G_M = \sqrt[3]{1 \cdot (PR_M \cdot SE_M)^{\frac{1}{2}} \cdot LFPR_M}$$

PR_M : 남성의원 비율

SE_M :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남성 비율

$LFPR_M$: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서 산출한 수치에 대해 조화평균을 이용하여 여성과 남성 지표를 계산한다. 기하평균의 조화평균은 여성과 남성의 불평균 측정하고 영역간 연관성을 수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HARM(G_F, G_M) = \left[\frac{(G_F)^{-1} + (G_M)^{-1}}{2} \right]^{-1}$$

네 번째 단계는 생식건강, 권한, 노동시장 영역에 대한 산술평균에 대해 기하평균을 계산한다.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하여(즉, 남녀를 동일하게 쳐우함) 남녀 지수 값을 합산함으로써, 불평등정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참고수준(Reference standard)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지수 값을 합산한다. 여기서 참고수준은 영역 내 지표를 산출평균한 후 영역 간 동일가중치를 사용하여 기하평균으로 구한다.

$$G_{F, \bar{M}} = \sqrt[3]{\overline{Health} \cdot \overline{Empowerment} \cdot \overline{LFPR}}$$

위 산출 공식의 각 구성요소를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overline{Health} = \left(\sqrt{\frac{10}{MMR} \cdot \frac{1}{ABR}} + 1 \right) / 2$$

$$\overline{Empowerment} = \frac{(\sqrt{(PR_F) \cdot (SE_F)} + \sqrt{(PR_M) \cdot (SE_M)})}{2}$$

$$\overline{LFPR} = \frac{(LFPR_F + LFPR_M)}{2}$$

마지막 단계는 $HARM(G_F, G_M)$ 을 $G_{F, \overline{M}}$ 으로 나눈 후 다음의 식으로 성불평등 정도를 산출한다. 이는 Atkinson 지수 산정 방법과 같다.

$$GII = 1 - \frac{HARM(G_F, G_M)}{G_{F, \overline{M}}}$$

라. GI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⁴¹⁾

1) 한국의 GII 수준

GI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높은 수준이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개발에서의 성불평등이 낮은 국가이다. 2020년 발표 기준으로 보면 2019년 한국의 GII는 0.064점으로 189개국 중 11위를 차지한다. 0이면 완전 평등한 것이고, 1이면 완전 불평등한 것으로 작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므로, 불평등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019년 발표된 10위 0.058점과 비교하면 순위가 한 단위 하락하고 성불평등이 약 0.006점 더 높아진 것이지만, 2014년과 비교하면 점수와 순위 모두 개선된 결과이다.

성불평등이 약간 증가한 주요한 원인으로는 국회 여성의원 비율(%)과 중등교육 이상 받은 여성 인구(%)의 하락 때문으로 추측된다.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2018년 17.0%에서 2019년 16.7%로 0.3%p 감소하였고,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에서 여성의 비율이 2018년 89.8%에서 2019년 80.4%로 9.4%p 하락하였다. 그 외의 지표들 경우, 모성사망비와 청소년출산율은 전년도 값을 유지하였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도 52.8%에서 올해 52.9%로 0.1%p 증가하였다.

영역별로 보면 생식건강은 모성사망비가 11명, 청소년출산율이 1.4명으로 성불평등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여성의원 비율과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비율 등의 여성권 영역은 비교적 높은 성불평등 수준을 보이며, 노동 참여 영역 또한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41) UNDP(2020). 「Human Development Report 2020」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2020년도 GII의 통계 기준연도는 2019년이다.

지표별로 보면, 모성사망비는 2015년 이래 10만명 당 11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청소년출산율은 2012년 이래 계속 감소하여 2018년 이래 1.4명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의원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전반적으로 개선 추이를 보여, 2019년 16.7%를 보인다. 2019년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비율은 전년 대비 남녀 모두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의 경우 매년 상승 추이를 유지하여 성별 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성별 격차가 20.2%p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한국의 순위 변화를 보면, 2012년의 27위에서 2013년에 17위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2014년은 23위로 다시 하락하였고, 2015년부터 10위로 급상승한 이후 2018년도까지 10위를 유지하였다. 2019년은 한 단계 하락한 11위이지만 여전히 10위권 내외에 드는 높은 순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의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순위에서 한국이 최하위권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승된 결과로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표 IV-20〉 한국의 GII 수준 추이

발표 연도	기준 연도	순위/대상	점 수 ¹⁾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	
				모성 사망비 ²⁾	청소년 출산율 ³⁾	국회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⁴⁾		경제활동참가율(%)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2020	2019	11/189	0.064	11	1.4	16.7	80.4	95.5	52.9	73.1
2019	2018	10/189	0.058	11	1.4	17.0	89.8	95.6	52.8	73.3
2018	2017	10/189	0.063	11	1.6	17.0	89.9	95.6	52.2	73.2
2017	2015	10/188	0.067	11	1.6	16.3	88.8	94.6	50.0	71.8
2016	2014	23/155	0.125	27	2.2	16.3	77.0	89.1	50.1	72.1
2015	2013	17/152	0.101	16	2.2	15.7	77.0	89.1	49.9	72.0
2014	2012	27/148	0.153	16	5.8	15.7	79.4	91.7	49.2	71.4
2012-2019	점수 변화	-	▽0.089	▽5	▽4.4	△1	△1	△3.8	△3.7	△1.7

주: 1) 점수가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임.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
 2) 모성사망비: 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하여 출생 10만명 당 사망하는 여성의 수
 3) 청소년 출산율: 15~19세 여성인구 1,000명 당 출산 수
 4)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비율: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중등 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

2) 주요 국가의 GII 수준

2020년 발표된 GII의 순위별 국가를 보면 스위스(1위, 0.025), 덴마크(2위, 0.038), 스웨덴(3위, 0.039), 네덜란드(4위, 0.043) 및 벨기에(4위, 0.043), 노르웨이(6위, 0.045), 핀란드(7위, 0.047), 프랑스(8위, 0.049), 아이슬란드(9위, 0.058), 슬로베니아(10위, 0.063)에 이어 우리나라는 0.064로 11위이다. 한편, 미국, 캐나다, 영국은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낮은 순위를 보인다. 아시아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높은 편이고 일본(24위, 0.094)의 경우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다.

지표별로 1위인 스위스와 비교하면 스위스의 모성사망률은 10만명 당 5명으로 우리나라의 11명에 비해 6명이 적다. 청소년 출산율은 15~19세 여성인구 1,000명당 2.8명으로 우리나라의 1.4명에 비해 1.4명 많다. 청소년 출산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성의원 비율을 보면 스위스는 38.6%로 우리나라의 16.7%보다 21.9%p가 높다. 또한 스위스는 중등 이상 교육받은 인구가 여성은 95.6%, 남성은 96.8%로 거의 100%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 여성은 80.4%로 스위스와 15.2%p 격차를 보이지만 남성은 95.5%로 1.3%p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스위스는 여성이 62.9%로 우리나라의 52.9%에 비해 10.0%p 높은 반면 남성은 스위스는 73.8%, 우리나라는 73.1%로 스위스와의 격차가 0.7%p 차이에 그쳤다.

〈표 IV-21〉 OECD 회원국의 GII 현황(2019년*)

국 가 명	순 위	점 수	생 식 건 강		여 성 권 한			노 동 참 여	
			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국회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대한민국	11	0.064	11	1.4	16.7	80.4	95.5	52.9	73.1
스위스	1	0.025	5	2.8	38.6	95.6	96.8	62.9	73.8
덴마크	2	0.038	4	4.1	39.1	91.2	90.9	58.2	66.3
스웨덴	3	0.039	4	5.1	47.3	89.3	89.5	61.4	67.8
네덜란드	4	0.043	5	3.8	33.8	87.6	90.3	58.3	69.1
벨기에	4	0.043	5	4.7	43.3	84.7	88.4	48.6	58.7
노르웨이	6	0.045	2	5.1	40.8	95.4	94.9	60.4	67.2
핀란드	7	0.047	3	5.8	47	100	100	55.5	62.8

국 가 명	순 위	점 수	생 식 건 강		여 성 권 한			노 동 참 여	
			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국회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프랑스	8	0.049	8	4.7	36.9	81.7	86.8	50.8	59.9
아이슬란드	9	0.058	4	6.3	38.1	100	100	70.8	79.2
슬로베니아	10	0.063	7	3.8	22.3	97.2	98.3	53.4	63.4
룩셈부르크	12	0.065	5	4.7	25	100	100	54.9	63.7
오스트리아	14	0.069	5	7.3	38.5	100	99.8	55.1	66.6
이탈리아	14	0.069	2	5.2	35.3	75.9	83.4	40.8	59
스페인	16	0.07	4	7.7	41.9	75.4	80.2	51.9	63.4
포르투갈	17	0.075	8	8.4	38.7	53.9	54.8	54.2	64.1
캐나다	19	0.08	10	8.4	33.2	100	100	60.8	69.4
독일	20	0.084	7	8.1	31.6	95.9	96.3	55.3	66.6
에스토니아	21	0.086	9	7.7	29.7	100	100	57.1	71
아일랜드	23	0.093	5	7.5	24.3	81.9	79.9	56	68.4
일본	24	0.094	5	3.8	14.5	95.3	92.3	52.7	71.3
호주	25	0.097	6	11.7	36.6	91	90.9	60.3	70.9
이스라엘	26	0.109	3	9.6	23.3	87.9	90.7	59.7	68.5
폴란드	28	0.115	2	10.5	27.9	83.1	88.5	48.6	65.5
그리스	29	0.116	3	7.2	20.7	62	73.2	44.2	59.8
영국	31	0.118	7	13.4	28.9	78	79.3	57.6	68.1
뉴질랜드	33	0.123	9	19.3	40.8	97.4	96.9	64.8	75.3
리투아니아	34	0.124	8	10.9	21.3	94.3	97.4	56.5	67.7
체코	36	0.136	3	12	20.6	100	99.9	52.9	68.5
라트비아	41	0.176	19	16.2	30	100	100	55.7	68.4
슬로바키아	45	0.191	5	25.7	20	99.2	100	52.2	67.4
미국	46	0.204	19	19.9	23.7	96.1	96	56.1	68.2
헝가리	51	0.233	12	24	12.6	96.4	98.4	48.5	65.5
칠레	55	0.247	13	41.1	22.7	77.8	81.1	51.8	74
터키	68	0.306	17	26.6	17.4	50.2	72.2	34	72.6
멕시코	71	0.322	33	60.4	48.4	62.2	64.2	44.2	78.5

주: *발표연도가 아닌 통계 기준연도를 의미

3. 국제성평등지수 비교와 한국 성평등 수준 차이

가. 국제성평등지수 간 차이 비교⁴²⁾

국제기구의 국가성평등지수인 GGI와 GDI, GII는 각 지수의 세부 영역과 지표가 상이하어 지수별로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GGI 경우 한국은 전체 156 국가 중 102위로 낮은 순위를 차지했고, OECD 국가 내에서는 37개국 중 35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 성취’에 있어 특히 성평등 수준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GDI 역시 GGI와 마찬가지로 낮은 순위가 나타났다. 즉, 전체 189개 국가 중 111위로 나타나 3그룹에 속하는 등 저조한 결과를 보였고, OECD 국가 36개국 중에서는 35위로 집계되면서 낮은 성평등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GII는 GGI와 GDI의 결과와 달리 전체 국가 189개 국가 중 11위이며, OECD 국가 중 11위라는 다른 성평등지수에 비해 매우 높은 순위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출산율의 점수가 전체 국가 중 1위가 전체 순위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표 IV-22〉 국제성평등지수별 OECD 회원국 내 한국의 순위

국제성평등지수	영역	순위
GGI(2020)	전체 영역	35위/37위
	경제 참여와 기회	36위/37위
	교육 성취	37위/37위
	건강과 생존	8위/37위
	정치 권한	28위/37위
GDI(2019)	전체 영역	35위/36위
	기대 여명	10위/36위
	기대 교육연수	36위/36위
	평균 교육연수	35위/36위
	추정 소득	35위/36위

42) 국제성평등지수 차이 비교는 김경희, 이민아, 이은아, 김은경(2020), 「2020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 95-99의 원문을 발췌, 인용 또는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국제성평등지수	영역	순위
GII(2019)	전체 영역	11위/36위
	모성사망비	30위/36위
	청소년 출산율	1위/36위
	여성의원 비율	35위/36위
	중등교육 이상 교육받은 비율	35위/36위
	경제활동참가율	32위/36위

주: 괄호 안 연도는 발표연도가 아닌 통계 기준연도를 의미
 자료: GDI(2019), GII(2019) 순위 = 김경희, 이민아, 이은아, 김은경(2020). 「2020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p95

〈표 IV-23〉 국제기구 및 한국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비교

대분류	GGI	GDI	GII	국가성평등지수
건강	-	기대여명	-	건강 관련 삶의 질
	-	-	출생 성비	-
	-	-	건강 수명	-
	모성 사망률	-	-	-
	청소년 출산율	-	-	-
교육	-	기대교육연수	-	-
	-	평균교육연수	-	평균 교육 연수
	-	-	-	-
	-	-	문해율	-
	-	-	초등교육 취학률	-
	-	-	중등교육 취학률	-
여성권한 (의사결정)	여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	-	국회의원 비율	국회의원 비율
	여성의원 비율	-	장관 비율	-
	-	-	(지난 50년 간)국가수장 재직기간	-
경제/기회	-	추정소득	추정소득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
	-	-	유사업무 임금 수준	성별 임금 격차
	-	-	-	상용근로자 비율
	-	-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	-	전문기술직 비율	관리자 비율

주: 한국의 성평등지수 항목 중 국제기구의 지표와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항목을 정리하였다.
 자료: 김경희, 이민아, 이은아, 김은경(2020). 「2020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p97

GDI, GII, GGI의 세부지표는 서로 다르지만 크게 건강, 교육, 정치 및 경제영역에서의 평등을 주요 영역으로 채택하고 있다. <표 IV-23>는 각 영역별 국제기구의 성평등 지표와 각 지표에 상응하는 한국의 국가성평등지수의 하위지표를 정리한 표이다. 국제기구의 성평등지수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공통된 함의는 한국의 성평등이 건강과 교육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지만, 정치와 경제영역에서는 낮은 수준의 성평등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GDI 점수가 낮은 이유로 성별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GII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의원 비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에서 낮은 값이 나타났고, GGI 역시 여성의원 비율을 포함하는 정치적 권한과 경제활동 참가율 포함 경제적 영역에서 낮은 점수가 나타난 바 있다.

나.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 성평등 수준 차이 해석⁴³⁾

국제기구에서 산정하는 대표적 성평등지수인 GII와 GDP, GGI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이 세 지수는 왜 한국의 성평등 수준에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GII와 GDP, GGI 지수는 측정 목적과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GII는 인간개발과정에서의 성불평등으로 인한 성과의 손실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따라서 GII는 성불평등에 따른 성과의 손실이 적은 국가에 높은 순위를 부여한다. 반면 GDP는 인간개발지수(HDI)를 성별로 구분하여 성비를 측정하기 위해 발표하는 지수이다. 따라서 인간발전 수준에 대한 성별 격차가 작은 국가일수록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부여한다. 한편 GGI는 경제, 정치, 교육, 건강영역의 성평등 수준을 성 격차로 측정하는 지수로, 자원들에 대한 접근수준보다 남녀 간 자원에 대한 접근 격차가 작은 국가에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순위를 부여한다.⁴⁴⁾

둘째, 세 지수는 지표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GII는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의 3개 영역에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GGI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 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등 네 가지 영역에 대해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GDI는 건강한 삶, 교육(지식), 적절한 표준적 삶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한 4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GGI는 교육영역을 두고 관련 지표를 통해 영역 지수를 산정하지만, GII

43) 본 절은 주재선(2021), “국제성평등지수로 보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의 원문을 발췌, 인용 또는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44) GII와 GGI는 각각 성불평등 수준과 성격차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측정됨에 따라 두 지수 모두 국가의 발달 수준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거한 성평등 점수의 순위로 보여준다.

지표에서는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비율이라는 지표가 여성권한 영역에 활용된다. 반면 GDI는 교육 영역이 분리되어 평균 교육년수와 기대 교육년수로 각각 측정되지만, 정치 영역이나 여성의 권한에 대한 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GII 지표의 경우 노동시장 영역의 지표로 경제활동참가율만 활용하고 있어 하나의 지표로 노동시장의 수준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성평등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소득과 관련한 지표 또한 빠져있다.

셋째, 세 지수는 측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GII는 영역 간의 남녀불평등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때, 불평등 수준이 더 커지도록 설계하여 특정 영역의 낮은 성취가 다른 영역의 높은 성취에 의해서 완전하게 보상될 수 없게 접근하고 있다. 또한 지표 산정시 여성 수준에 좀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반면 GGI는 모든 지표에 대해 성별 격차 정도를 각각 측정하며, 각 영역별로 측정된 성격차 수준에 대해 영역간 단순 평균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최종값을 산출한다. 따라서 특정 영역의 높은 성격차가 다른 영역의 낮은 성격차와 서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GDI 역시 남성의 HDI 값 대비 여성의 HDI의 비율로 환산한 것으로 성별격차(성비)에 영향을 좀 더 크게 받게 된다. 그러나 성격차의 산출 방법은 GGI와 다른데, GDI는 여성과 남성에 대해 각각 영역간 기하평균으로 여성 값과 남성 값의 분리 환산한 후 최종적으로 남녀의 비를 환산한다. 따라서 GGI와 마찬가지로 영역간 성취 수준의 차이가 서로 보상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각 영역내 성격차 수준이 아닌 남녀 인간개발의 전체 성취 수준에 있어 격차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어 있다.

〈표 IV-24〉 GGI, GDI, GII 차이 비교

구분	GGI	GDI	GII
측정 목적	• 자원의 접근기회와 권한 배분에 대한 성 격차 측정	• 인간 개발수준에 대한 성격차 측정	• 인간개발 과정에서의 성 불평등으로 인한 성과의 손실 측정
지표구성	• 경제참여와 기회 • 교육 성취도 • 건강과 생존 • 정치적 권한	• 건강한 삶 • 교육(지식) • 적절한 표준적 삶	• 생식건강 • 여성권한 • 노동참여
측정 방법	• 지표 산정시 여성 수준에 더 큰 영향을 받음 • 영역간 지표들의 상관관계가 높을 때 불평등이 높아 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특정 영역의 낮은 성취가 다른 영역의 높은 성취에 의해 완전 보상되지 않음	• 지표 산정시 성격차 수준에 더 큰 영향을 받음 • 남녀 인간개발의 전체 성취 수준에서 성격차를 산출하며, 영역간 성취 수준의 차이가 서로 보상 가능하도록 구성됨	• 지표 산정시 성격차 수준에 더 큰 영향을 받음 • 하위 영역별 성격차의 단순 평균 방식으로 산출하며, 영역별 높은 성격차가 낮은 성격차 값을 서로 보상 가능하도록 구성됨
측정 결과 (한국 순위)	102위/156위	111위/189위	11위/189위

이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개발과정에서의 성 불평등은 낮지만, 인간발전 수준 또는 참여·기회·배분 영역에서의 성 격차는 매우 큰 국가’로 요약할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의 GII 순위는 2020년 발표 기준 189개국 중 11위로 높은 순위를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GII의 측정방식과 생식건강 영역의 낮은 불평등에 기인한 효과이다. 세 영역 중 여성 권한과 노동 참여 영역의 불평등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모성사망비와 청소년 출산율 등으로 구성된 생식건강 영역의 불평등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즉, 기하평균으로 계산되는 영역간 측정방식으로 인해 극히 낮은 생식 건강 영역의 불평등 수준이 다른 영역의 불평등 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성불평등지수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다시 말해 GII의 높은 순위는 측정방법과 생식 건강 영역의 지표의 낮은 통계가 가져온 효과로 볼 수 있다.

GII에 비해 GGI는 2021년 발표 기준 156개국 중 102위로 매우 낮은 순위를 보인다. GGI는 영역별 순위를 보아도, 건강과 생존 54위, 정치적 권한 68위, 교육적 성취 104위, 경제참여와 기회 123위로 4개 영역 모두에서 54위~123위로 중위 혹은 하위권

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점수적 측면으로 보면 교육적 성취(0.973점)와 건강과 생존(0.980점)은 완전 평등 상태 '1'에 가까우므로, 실제 GGI의 낮은 순위는 경제참여 및 기회와 정치적 권한 영역이 낮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GDI 경우 GII와 비교할 때 전체 189개국 중 111위로 낮은 순위가 나타난다. 여타 OECD 국가가 대부분 1그룹 또는 2그룹에 속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3그룹에 속하는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다. 특히 2020년 우리나라 HDI 순위는 189개국 중 23위(0.916점)로 높게 나타났음에도, HDI의 성별 격차를 나타내는 GDI 순위는 111위로 낮게 나타났으므로 HDI 성별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에는 특히 남녀 추정소득 격차가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등 국가의 절대 소득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상대적 소득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 때문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국제성평등지수마다 성평등에 대한 목표와 접근, 측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성평등지수로 보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상이한 위치를 갖는다. 이에 국제 성평등지수는 지수가 지향하는 성평등 달성 목표와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GII는 성불평등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GDI는 인간개발 수준에 대한 성 격차로, GGI는 자원의 접근 기회와 권한 배분에 대한 성 격차로 성평등을 해석해야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국제 성평등지수는 점수 자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점수의 증감과 국가 비교의 참고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성평등지수는 국가 간 비교 시 통계수집의 한계로 인해 전망치 통계 혹은 서베이 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국가별 실제 통계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한 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설명하는 데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제 성평등지수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성평등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임은 분명한 만큼, 국제성평등지수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성불평등한 영역에 대한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V

국가성평등 수준 평가와 제고 전략

- | | |
|------------------------|-----|
|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 | 101 |
| 2. 국가성평등지수와 성평등 정책의 연계 | 103 |
| 3. 국가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 115 |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⁴⁵⁾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은 2015년 70.4점이래 2020년까지 매년 0.8~1.0점 정도로 상승하였고 2020년은 전년 대비 1.0점 개선된 74.7점을 보인다. 분야별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보건 분야가 97.0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직업훈련 분야(94.2점), 문화·정보 분야(86.4점), 복지 분야(78.0점), 경제활동 분야(76.1점), 안전 분야(71.0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결정 분야가 37.0점으로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았고, 가족 분야(63.6점)는 성평등 수준이 70.0점 이하로 나타났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상승 원인을 보면, 먼저 2015년과 비교하여 성평등 개선이 높은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9.8점), 가족 분야(7.0점), 안전 분야(6.1점), 경제활동 분야(4.8점)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상승인 높은 분야는 복지로 2.4점이 개선되었고 가족(2.0점 ↑), 안전(1.8점 ↑), 의사결정(1.1점 ↑), 교·직업훈련(0.3점 ↑) 순으로 높은 개선을 보였다. 또한 2015년과 비교하여 약간 하락했던 것과 달리 보건과 문화·정보 영역에서도 전년 대비 0.1점과 0.2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의 개선은 이전에 비해 개선 정도가 약간 높았는데, 이는 각 분야에서 모두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2.0점)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았고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5.0점),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69.1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2015년 64.0점에서 2020년 69.1점으로 5.1점 개선되었고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동기간 3.2점,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동기간 3.5점 상승했다.

1) 성평등한 사회참여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경제활동 분야, 교육·직업훈련 분야, 의사결정 분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2020년 기준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직업훈련 분야로 94.0점이고, 경제활동 분야 76.1점, 의사결정 분야 37.0점 순이다.

경제활동 분야는 2015년 71.3점, 2017년 73.2점, 2019년 75.7점이었고 2020년 76.1점으로 전년 대비 0.4점 상승했다. 2015년 대비 경제활동 참가율, 임금 성비, 상용직 비율은 각각 2.5점, 4.9점, 6.9점 개선되었다. 특히 상용직 비율 성비 개선은 지난 5년간 높은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을 끌어올리는 주된 역할을 하였다.

45) 본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연도는 지표의 통계 생산(혹은 추정)년도를 기준으로 제시된 것임.

의사결정 분야는 2015년 27.2점에서 2020년 37.0점으로 9.8점 상승한다. 상승 원인은 구성 지표 모두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개선 때문이다.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 성비는 2015년 50.9점에서 2020년 64.1점으로 동기간 23.2점 상승하며, 관리자 성비는 동기간 9.0점 상승, 국회의원 성비는 동기간 3.9점 상승, 4급 이상 공무원 성비는 동기간 13.0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2015년 93.4점에서 2020년 94.2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세 지표 모두의 성평등 수준 변화가 높지 않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15년부터 완전평등상태(100.0점)를 보이며, 평균 교육년수 격차는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개선 수준은 높지 않다. 직업교육훈련경험 또한 변화는 크지 않지만, 성비의 등락으로 인해 이 분야의 성평등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2)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보건 분야, 복지 분야, 안전 분야로 측정된다. 2020년 기준 이 영역은 82.0점으로 세 영역 중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성평등 수준은 보건 분야가 97.0점으로 가장 높았고, 복지 분야는 75.6점, 안전 분야는 71.0점으로 모두 70점 이상의 성평등을 보인다.

보건 분야는 2015년 97.1점에서 2020년 97.0점으로 동기간 0.1점 하락한다. 건강검진수검률 성비와 비스트레스인지율 성비가 5년 전과 0.3점씩 낮아진 것이 하락 원인이다.

복지 분야는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비빈곤 인구 성비, 장애인 고용률로 구성되며, 2015년 73.6점에서 2020년 78.0점으로 4.4점 상승한다. 이 분야의 상승 원인은 공적연금 가입자와 장애인 고용률의 개선 때문이다.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의 경우 2015년 79.4점에서 2020년 88.4점으로 9.0점 개선되며, 장애인 고용률 성비는 동기간 5.4점 상승한다.

안전 분야의 구성 지표는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 성비와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로 구성된다. 안전 분야는 2015년 64.9점에서 2020년 69.2점으로 6.1점 상승했다. 상승의 주된 원인은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의 성비 개선이 높았기 때문이다.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 성비는 2015년 65.2점에서 2020년 76.7점으로 11.5점 개선된다.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는 2015년 64.6점 이래 성비가 등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2020년 65.3점으로 0.7점 상승한다.

3)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성평등한 의식·문화 영역은 가족 분야, 문화·정보 분야로 구성되며, 2020년 기준 75.0점으로 2015년 대비 4.3점 개선된다. 분야별로 보면 문화·정보 분야는 82.0점, 가족 분야는 63.6점이다.

가족 분야 성평등지수 값은 2015년 56.6점에서 2020년 63.6점으로 7.0점 상승한다. 점수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육아휴직 성비와 가사노동시간 성비 개선으로 나타난다. 육아휴직 성비는 2015년 5.9점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으나 2020년 30.7점으로 크게 상승하여 성평등 정도는 동기간 22.2점 개선되며, 가사노동시간 성비는 동기간 각각 6.7점 상승한다.

문화·정보 분야는 2015년 86.9점에서 2020년 86.4점으로 동기간 1.2점 하락한다. 문화·정보 분야는 2015년 이래 성비의 등락하면서 하락하며, 하락 원인은 여가 시간 성비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표 중 여가만족도 성비가 2015년 91.9점에서 2020년 95.2점으로 3.3점 높아지고 성별정보화격차는 2015년 90.9점에서 2020년 92.5점으로 1.6점 개선되나, 여가 시간 성비가 동기간 6.4점 낮아짐에 따라 이 분야 성평등이 낮아진 것이다.

2. 국가성평등지수와 성평등 정책의 연계⁴⁶⁾

국가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과 동시에 개선 정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실행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각 부처별 성평등 정책 혹은 여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세부사업 수준에서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지표와 연계하고 있다. 연계를 위해 활용된 주요 정책 목록은 <표 V-1>과 같다.

46) 본 절은 주재선 외(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 103-117 부분을 인용 및 수정 보완함.

〈표 V-1〉 연계표에 활용된 성평등 정책 목록

성평등 정책	출입말
현 정부 국정과제	국정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양평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18~2022)」	일가정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8~2022)」	건가

성평등 정책은 국가성평등지표와 연계하기 위해 정책 연번을 두고 있다. 정책연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경우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번호를 부여하고 지표와 관련된 세부사업을 제시하였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은 중과제 수준을 정책 번호로 부여하고 세부과제 내용을 세부사업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9-9-9’는 국정과제와 여성가족부, 합동부처 정책 이외 다른 행정부처의 여성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을 나타낸다. 정책연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18~2022)」⁴⁷⁾,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8~2022)」이다.

경제활동 분야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비율과 성별 임금격차는 2019년까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2020년은 약간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활동 분야와 연계되는 성평등 정책은 매우 많은 편이다. 국정과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에 경제활동 분야 여성정책과의 연계표는 〈표 V-2〉와 같다.

경제활동 분야의 경우 향후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성별 임금격차는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의 경력단절이 가장 주된 원인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과 더불어 기존에 고착화된 성별 직업분리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은 재취업할지라도 여성은 낮은 임금으로 이어지게 된다.

47)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2018~2022)은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으로 수립 발표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17.12.2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함.

〈표 V-2〉 국가성평등지수와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경제활동참가율	양평 2-1	고용 기회의 성평등 제고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여성 집중 직종의 남성 진출 확대
			성별 직업분리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양평 2-3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경력단절 여성 지원 인프라 확충
	국정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확대
고용 9-9-9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	새일센터 확대	
고용 9-9-9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	분야별 일자리 기회 확대	
저출산 1-2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성평등한 일터 조성 여성 집중 돌봄노동 분야 일자리 질 개선	
저출산 3-1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 기반 강화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정책 강화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 미래 여성핵심인력 양성 기반 구축	
성별 임금격차	양평 2-2	고용현장의 성차별 개선	성별 임금격차 해소
	국정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국정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임금격차 해소
	일가정 9-9-9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양질의 일자리 환경 구축 (임금격차 개선)
			출산·육아의 사각지대 해소,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
일가정 9-9-9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고용유지 촉진	
일가정 9-9-9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고용유지 촉진	
상용근로자 비율	양평 2-2	고용현장의 성차별 개선	여성 집중 직종의 근로환경 개선
	국정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 기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정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자료: 주재선·정성미·한진영(2018), 『2018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 113, 인용 및 수정.

따라서 경제활동 분야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지원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경력단절 이후 일자리는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 안정성이 낮은 직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감축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임금차별 시정 움직임을 지원하고 동일 직무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확산시키는 보다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채용-임직원-임금 현황으로 체계화하여 경영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정책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 분야는 지난 5년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이나 여전히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다. 국회의원 여성 비율과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표의 절대적 수준이 매우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 관리자 여성 비율은 2016년부터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취업자 중 관리자 비율 성비는 2015년 15.8점에서 2016년 14.9점으로 낮아지나, 이후 상승하여 2020년 2018년 20점을 넘기고 2020년 24.8점까지 개선된다. 하지만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선진국 수준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분야는 단기간에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치, 행정, 경제 등의 민간 사업체에서 여성의 지위 개선을 위한 여성비율 목표제 혹은 적극적 개선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 V-3〉의 의사결정 분야와 양성평등정책들을 연계해서 살펴보면 양성평등기본계획은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민간기업의 여성 대표성 제고와 여성리더십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정과제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과제로 여성 대표성 제고와 차별 없는 균형 인사를 세부 사업으로 점검한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사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대상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015년과 비교하면 공공분야 여성 대표성은 비교적 크게 상승한 편임에도 여전히 낮은 공공분야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및 관리직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부서 배치, 업무 내용 등 일자리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더불어 2017년 이래 반등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인 여성 관리자 비율은 성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내 여성 관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승인 시 차별에

대한 지속적 지도 감독,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의 확대 등 민간과 공공기업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육성과 같은 고용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V-3〉 국가성평등지수와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국회의원 비율	양평 3-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양평 3-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차세대 여성 정치 리더 양성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양평 3-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정부·공공기관에서의 적극적 조치
	국정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성 대표성 제고
관리직 비율	양평 3-2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기업의 성평등 조직혁신 지원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의 확대
			전문직 직능단체 등의 여성 지위 강화
	양평 3-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여성 관리자 양성 지원
	국정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차별 없는 균형 인사
	국정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성 대표성 제고
정부위원회 위원 성비	양평 4-1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확대
			정부위원회에서 적극적 조치

자료: 주재선·정성미·한진영·박송이(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107, 인용 및 수정.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8개의 성평등 분야 중 2번째로 높은 분야이며, 관련 지표가 상대적으로 성별 격차가 낮은 분야이다. 이 분야의 지표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교육년수의 경우 남성이 더 길지만, 여성의 교육년수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아 성 격차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성비 또한 개선되고 있다. 고등교육 기관 진학률은 2008년 이래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특징을 보임에 따라 완전평등 상태인 100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정책은 교육수준을 높이는 정책보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사회취약계층 교육지원,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 교육 등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재직자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경력단절 예방 지원강화

차원의 정책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의 성평등 정책은 세부사업별로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표 V-4〉 국가성평등지수와 교육·직업훈련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평균 교육년수	국정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 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
	국정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
	국정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사회취약계층 교육 지원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국정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대입제도 개선 및 공정성 제고
	국정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입 지원
	양평 1-2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 강화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비율	양평 2-3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일가정 9-9-9	여성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강화	여성 사회적 경제 기업가 양성 (여성 사회적기업가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일가정 9-9-9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 재고용·고용유지 촉진 (고학력 경력단절 특화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강화)
	저출산 3-2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체계적인 생애경력개발 지원 평생교육·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확대 누구나 평생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자료: 주재선·정성미·한진영·박송이(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110, 인용

복지 분야의 경우 꾸준히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분야이다. 지표별로 보면 여성 빈곤율은 2016년 이후 점차 상승 추이를 보인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남성 빈곤율도 상승함에 따라 빈곤율의 성별 격차는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즉, 여성의 빈곤율은 높아지나, 성격차는 낮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서 공적연금 가입률은 여성 가입자 수의 빠른 증가로 인해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2020년 세 연금의 가입률이 여성은 60.8%로 남성(68.8%)에 비해 8.0%p 낮다. 더욱이 장애인고용률은 2020년 여성이 22.7%로 남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여성 장애인 고용률 또한 개선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표 V-5〉는 복지 분야와 성평등 정책을 연계하고 있다. 빈곤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언급했듯, 여성 인구 빈곤율은 개선이 되지 않은 지표로 이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과제에 따른 세부 사업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으로 구성되어있고 빈곤 여성인구에 대한 특화된 정책이 부족한 편이다. 향후 국정과제의 추진 과정에서 빈곤 여성인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률을 꾸준히 높이기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함과 동시에 남성의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강화될 필요가 있다.

〈표 V-5〉 국가성평등지수와 복지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비빈곤 인구 비율	국정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저소득층 등 통신비 경감
	국정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국정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국정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공적임대주택 공급
	저출산 2-1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기초연금,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국정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정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적정수준 보장
	저출산 2-1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	공·사적연금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급여 수준제고, 퇴직연금의 연금성 강화 등
장애인 고용률	국정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차별 없는 균형 인사

자료: 주재선·정성미·한진영·박송이(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111, 인용 및 수정.

보건 분야는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보건 분야 정책에 있어 한국은 선진국 수준이고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성별 격차가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성 지표별로는 여전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관련 지표별 정책과제를 검토·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보건 분야와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보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은 성평등한 건강증진 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여성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여성 건강 개선에 접근하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노인의 건강지원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V-6〉 국가성평등지수와 보건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지표명	정책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양평 5-4	성평등 건강증진 기반 강화	성인지적 보건의료 정책기반 마련
			성인지적 건강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
			안전한 피임과 임신·출산에서의 건강권 보장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국정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국정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저출산 2-2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거동불편 고령자를 위한 방문형 건강관리·의료 서비스 활성화	
건강검진 수검률	양평 5-4	성평등 건강증진 기반 강화	성인지적 보건의료 정책기반 마련
	국정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사전 예방적인 중고령자 건강관리 강화
	저출산 2-2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원 (국가 건강검진 확대 등)
스트레스 인지율	양평 5-4	성평등 건강증진 기반 강화	성인지적 보건의료 정책기반 마련

자료: 주재선·정성미·한진영·박송이(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112, 인용 및 수정.

안전 분야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성평등 수준이 하락하다가 2019년부터는 다시 상승하는 특징을 보인다. 안전 분야는 최근을 기준으로 지난 5년과 비교하여 6.1점p

성비가 상승하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1.8p 상승한다. 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개선된 이유는 2016년 이래 여성 대상 폭력(특히 성폭력)이 증가하여 놓아진 여성들의 불안감이 2018년 이래 낮아졌기 때문이다.

안전 분야의 현재 성평등 정책들을 살펴보면 젠더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대응력 제고 및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으로 젠더폭력에 대한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다양한 젠더폭력을 대응하는 전략들로 요약된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강력범죄 피해자 수를 줄이기 위해 관련된 정책과제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다양해진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력 강화, 군 장병 인권 보장 측면에서의 성폭력 처벌 강화로 주로 젠더폭력 예방과 처벌에 초점을 두고 세부사업들이 추진된다.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세부 사업 시행으로 최근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의 수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전체 범죄피해자 수를 줄이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예방 정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치료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표 V-7〉 국가성평등지수와 안전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지표명	정책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의식	양평 5-1	젠더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젠더폭력 수사·사법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국정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젠더폭력 방지 기반 구축 (2018년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양평 5-1	젠더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젠더폭력 수사·사법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양평 5-2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력 제고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 대응 강화 스토킹·데이트 폭력 대응 강화 조직 내 젠더폭력 대응 강화
	양평 5-3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계·협력 강화 젠더폭력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및 인식 제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문제 해결

지표명	정책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국정 14	민생차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젠더폭력 근절)
	국정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젠더폭력 방지 기반 구축 (2018년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국정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군 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 및 무관용 원칙 엄중 적용

자료: 주재선·정성미·한진영·박송이(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p.113~114, 인용 및 수정.

가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으나, 지난 5년간 성평등 개선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육아휴직자는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이 증가하여 가족 분야 성평등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2020년 성비는 32.4점으로 여전히 낮다. 출생 시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를 보기 위한 셋째 아 출생성비는 남아선호가 사회에서 거의 사라짐에 따라 2015년 이래 거의 완전평등 상태에 접근했다. 가족관계만족도의 성 격차는 높은 편은 아니나, 2019년까지 하락추세를 이어갔다. 2020년은 전년 대비 성비가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성의 가족관계만족도는 6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다. 가사노동시간의 경우 성별 격차가 축소되고는 있으나 절대적 차이는 여전히 큰 상태이다.

〈표 V-8〉은 가족 분야의 양성평등 정책을 연계한 표이다. 가족 분야의 정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과 성평등한 가정문화 조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여성뿐 아니라 특히 남성의 가사와 육아 참여 지원을 통해 일·생활 균형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는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차원에서 육아·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과제가 추진 된다. 또한,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경우 가족 상담 활성화, 양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일·가정양립제도, 남성의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와 같이 일·생활 균형과 가족문화 조성에 대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 V-8〉 국가성평등지수와 가족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지표명	정책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양평 1-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
	양평4-3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 기업에 대한 일·생활 균형 지원 및 지도 강화 일·생활 균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
	국정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육아·돌봄 지원 확대
	건가 1-2	가족상담 활성화	가족상담 서비스 확대
	건가 5-4	양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양성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서비스 확대 양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캠페인 확산
	저출산 4-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 강화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양평 5-4	성평등 건강증진 기반 강화
육아휴직자	양평 4-1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남성 가사·육아 참여권리 보장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개선
	양평 4-2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법정근로시간 준수 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 근로자의 휴가 활성화
	건가 4-1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	육아휴직 활성화 및 복귀 강화
	건가 4-2	남성의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남성 맞춤형 정보·교육지원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저출산 9-9-9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양립 실천 여건 강화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저출산 1-1	모두가 누리는 워라벨	일-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

자료: 주재선·정성미·한진영(2018), 『2018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 121, 인용 및 수정.

문화·정보 분야는 2019년 기존 상승 추세에서 하락하지만 2020년 소폭 상승했다. 지표별로 보면 여가시간과 여가만족도는 2017년 이래 하락 추세를 보이며, 성별 정보 격차는 2017년부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여가시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감소하는 추세이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여가를 보내는 것도 변하지 않는다. 여가만족도는 남녀 모두 상승 추세를 보이지만 만족도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항상 더 높게 나타나며, 2018년 이래 성비도 낮아지는 추세이다. 정보의 접근, 역량, 활용으로 산정하고 있는 정보화 격차는 남성의 경우 2016년 이래 소폭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여성은 점차 상승하면서 성별 격차가 좁혀지는 추이를 보인다.

문화·정보 분야의 지표와 정책을 연계해 보면 <표 V-9>와 같다. 여가는 국민기초문화생활 보장,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 산업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책들이 추진되며, 정보 분야는 인프라 조성 및 융합 확산/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정책 목적으로 추진된다. 국정과제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과 여가시간에 대한 성별 차이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세부사업이 없다. 단,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여가 활용에 가족 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가족여가 인프라 구축·활용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표 V-9> 국가성평등지수와 문화·정보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지표명	정책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여가시간 성비	국정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국민 기초문화생활 보장
	국정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대체공휴일 확대 관광산업 육성
	건가 1-3	가족여가활동 확대	가족참여 프로그램 확대 가족여가 인프라 구축·활용
여가만족도 성비	국정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대체공휴일 확대
성별 정보화 격차	국정 7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인프라 조성 및 융합 확산/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자료: 주재선·정성미·한진영·박송이(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117, 인용.

시간이라는 제한된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사노동시간이 긴 여성의 여가시간은 상대적으로 남성과 비교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가족 분야의 가사노동시간에서 성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

체계 구축과 성별 수요를 반영한 여가모델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과 남성 모두 여가만족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삶의 질 제고의 측면에서 문화향유 실태를 파악하고 문화행복지수를 개발하고 측정해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별 정보화 격차를 통해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3. 국가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작성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성평등 수준과 개선 정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국가 성평등 정책과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에 국가성평등지수가 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수의 활용과 관리방안⁴⁸⁾을 제안한다.

첫째, 국가성평등지수가 법적 근거를 두고 개발·공표되는 지수로서, 향후 관리와 개발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지수와 지표는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주기를 같이해 영역과 분야별로 통계지표의 수정과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연계하고 산정 방법론 등 지수와 관련된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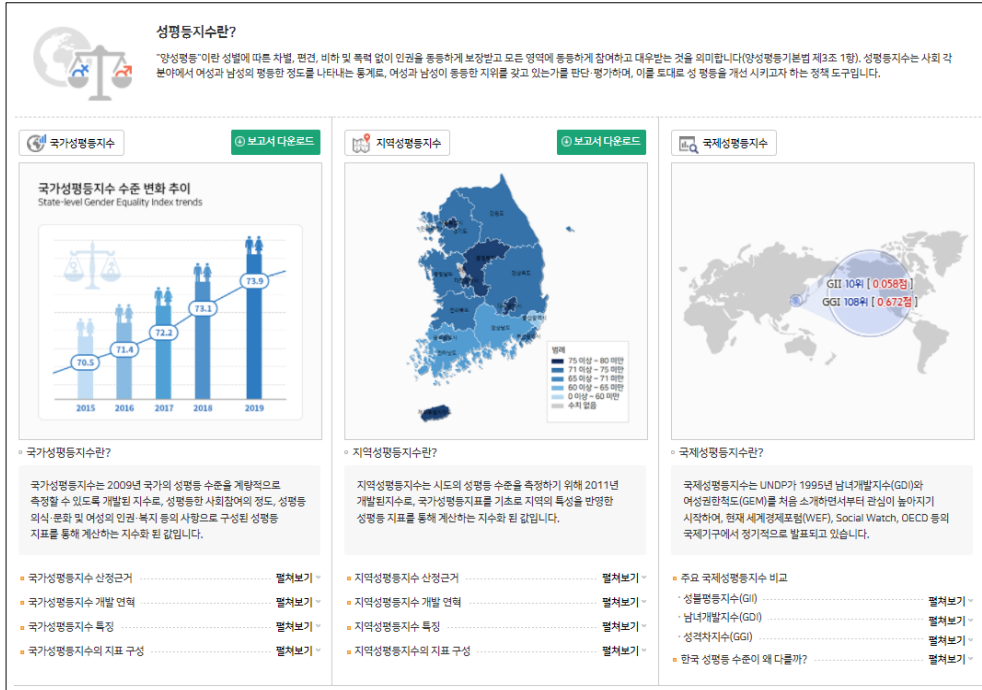
둘째, 여성가족부는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지표별 성평등 수준을 점검하고 불평등이 심화된 지표에 대해 관련 부처와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측정에 활용되는 25개의 대표지표와 이에 관련된 지표(관리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지표는 각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변화 추이, 변동 요인 등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가지는 지표임과 동시에, 성평등지수를 측정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이다. 그리고 관리지표는 대표지표와 더불어 행정부처가 성평등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을 위해 지표이다. 대표지표는 측정 지표로, 성 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구성되지만, 관리지표에는 여성특화지표와 같이 성비를 산정할 수 없으나 여성 지위 향상에 필요한 지표도 포함하고 있다. 관리지표는 대표지표가 확정된 이후 2010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리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 지었으나, 이후 성평등 측정 결과를 관리지표와 연계하여 분석하거나 점검하는 과정은 없었다. 이로 인해 국가성평등지수 작성은 국가 성평등 수준을 파악한다는 기본적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결과를 활용하여 국가 성평등

48) 본 제안은 주재선 외(2016, 2017, 2018, 2019),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에서 제안했던 일부를 인용, 수정 및 보완하여 제시하고 있음.

정책과 전략을 지원한다는 원래의 목적은 이루지 못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측정 결과보다 측정된 결과를 성평등 정책으로 연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평등 지표 모두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를 전면 재편한 만큼 향후 지표의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최소 8개 부처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이 있는 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성평등지수의 관리는 지역성평등지수와 더불어 웹 DB를 구축하고 상시 공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제5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6.22.>)⁴⁹⁾”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공표 등) 제4항은 국가성평등지수를 관보 혹은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 혹은 지역 단위의 성평등지수를 발표하는 국가 중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독일 등의 국가는 성평등지수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성평등 지도(Gender Equality Map)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 지통계시스템을 통해 성평등지수를 구축·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국가, 지역, 국제 성평등지수와 지표를 통합 구축하여 보여주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연구와 연계하여 구축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지수가 정책입안자뿐만 아니라 연구자, 교수, NGO 등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고 시의성을 갖추도록 보다 공식적 서비스로 성평등 지수 DB 서비스가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12.3.(<http://www.law.go.kr/>)



[그림 V-1] 성인지능계시스템의 성평등지수 서비스 화면

넷째, 성평등지수의 지표 중 성별 불평등이 높거나 개선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과의 연계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성평등지수는 많은 지역에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국가성평등지수는 각 부처의 성별영향평가 혹은 성인지 예산과 연계되어 분석되는 비율이 높지 못하다. 국가성평등지수의 활용은 성주류와 제도와 결합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성평등 지수가 측정되면 성 불평등이 높거나 개선된 지표 혹은 성평등이 낮거나 개선되지 않은 지표로 분류하고, 성불평등이 높아진 지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수준과 관련된 사항을 작성해 양성평등위원회와 여성정책조정회의 등에 보고하고 성평등 수준이 부진한 분야와 지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점검 방법으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불평등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공동으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2013~2018), 『공무원연금통계』.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2018), 『교육통계연보』.
- 국민연금공단(2013~2018), 『국민연금통계연보』.
- 김경희, 이민아, 이은아, 김은경(2020), 『2020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여성가족부.
- 김은경·김복태·이수연·김민정·전선영(2020), 『국회 여성 비례대표 의원의 역할 인식과 활동성과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태홍 외(2010), 『2010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여성가족부.
- 김태홍·이택면·주재선(2011), 『성별 고용평등지표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 김태홍·전기택·주재선(2011),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여성가족부.
- 김태홍·윤덕경·김영택·주재선·배호중(2013),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 김태홍·김영택·주재선·배호중(2014),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대검찰청(2013~2018), 『범죄분석』.
- 미래창조과학부(2013~2018), 『정보화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2013~2018), 『건강보험통계』.
- 보건복지부(2013~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 사학연금관리공단(2013~2018), 『사학연금통계』.
- 여성가족부(2018),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 전기택·문유경·주재선(2009),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평등 지수 관리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재선·김난주·박건표·동제연(2013), 『주요 정책 부문별 성인지 통계 개선·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 주재선·문유경·박건표(2015), 『2015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여성가족부
- 주재선·윤덕경·김영택·김영란·김난주(2017), 『국가 성평등 수준 점검 지표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재선·김태홍·김영란·한진영(2018), 『2018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주재선·윤덕경·정성미·송치선(2018), 『2018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주재선·정성미·한진영(2018), 『2017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주재선·송치선·한진영(2019), 『2018년 한국의 성인지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재선(2021), “국제성평등지수로 보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
- 한국고용정보원(2013~2018), 『고용보험통계』.
- 통계청(2013~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2013~2018), 『사회조사』.
- 통계청(2009,2014), 『생활시간조사』.
- 통계청(2013~2018), 『인구동향조사』.
- Grieg, F., Hausmann, R., Tyson, L. D., and S. Zahidi. (2006). ‘The Gender Gap Index 2006: A New Framework for Measuring Equality’ in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6.
- IMD(2018),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8.
- OECD(2008). Gend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aximising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Tole of Women.
- UNDP(2014). Human Development Report-Technical notes.
- UNDP(2020). Human Development Report-Technical notes.
- UNDP(2018). Human Development Report 2018.
- World Bank(2001), Engendering development: through gender equality in rights, resources, and voice, pp. 2~3.
- World Economic Forum(2012),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2.
- World Economic Forum(WEF, 2018a),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8.
- World Economic Forum(WEF, 2018b),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 World Economic Forum(WEF, 2019),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0.

〈통계DB시스템〉

- 고용노동부(2019), 고용노동통계 DB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성인지통계시스템 DB
- 통계청(2019), 국가통계포털(KOSIS)
- 법제처(2021), 국가법령정보센터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Data Center, Frequently Asked Questions-GDI.

〈언론매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11.25.일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시행(2006년) 이후 여성 근로자 비율 6.92%p, 관리자 비율 10.7%p 증가'

여성신문(2021.5.14.일자), ESG 경영 첫단추는 '여성 관리자 키우기'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1.9.17.일자), '공공부문 모든 분야에서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

중앙일보(2021.8.3.일자), '성과 추구하는 경영자라면 여성인재로 눈 돌려라', 중앙일보 오피니언



부 록

- ▶ <부록 1> 분야별 성평등 지표의 통계표 125
- ▶ <부록 2>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159

〈부록 1〉 분야별 성평등 지표의 통계표

가. 경제활동

〈부표 1-1〉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66.2	65.5	65.9	66.2	66.5	66.8	68.0	68.4	68.7	69.2	69.3	69.5	68.6
여성	54.8	54.0	54.5	54.9	55.2	55.6	57.1	57.9	58.3	59.0	59.4	60.0	59.1
남성	77.4	77.0	77.2	77.5	77.7	77.8	78.9	78.9	78.9	79.3	79.1	78.8	77.9

주: 15세-64세 인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2〉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단위: 천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여성	1,413	1,422	1,477	1,548	1,654	1,705	1,742	1,781	1,869	1,946	2,087	2,197	2,239
남성	2,265	2,284	2,361	2,444	2,569	2,664	2,761	2,837	2,918	3,010	3,135	3,241	3,306
임금격차	62.4	62.3	62.6	63.3	64.4	64.0	63.1	62.8	64.1	64.7	66.6	67.8	67.7

주: 1) 1인 이상 기준

2) 월급여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

3)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여성근로자의 월급여총액/남성근로자의 월급여총액×1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부표 1-3〉 상용근로자

(단위: 천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9,105	9,479	10,178	10,786	11,250	11,847	12,319	12,716	13,062	13,428	13,772	14,216	14,521
여성	2,981	3,079	3,444	3,768	4,022	4,287	4,555	4,747	4,980	5,196	5,425	5,680	5,855
남성	6,124	6,401	6,734	7,018	7,227	7,560	7,765	7,969	8,082	8,232	8,347	8,536	8,667

주: 15세 이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4〉 정규직 근로자

(단위: 천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10,826	11,475	11,662	11,987	12,426	12,869	13,166	13,262	13,428	13,431	13,078	13,020	12,927
여성	3,928	4,264	4,313	4,488	4,686	4,925	5,063	5,096	5,186	5,195	5,038	4,994	4,985
남성	6,898	7,210	7,349	7,500	7,740	7,944	8,103	8,166	8,242	8,236	8,040	8,027	7,941
여성비율	36.3	37.2	37.0	37.4	37.7	38.3	38.5	38.4	38.6	38.7	38.5	38.4	38.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5〉 고용률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59.8	58.8	58.9	59.3	59.6	59.8	60.5	60.5	60.6	60.8	60.7	60.9	60.1
여성	48.9	47.8	47.9	48.3	48.6	48.9	49.7	50.1	50.3	50.8	50.9	51.6	50.7
남성	71.2	70.2	70.3	70.7	71.1	71.1	71.7	71.4	71.2	71.2	70.8	70.7	69.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6〉 전문직(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여성비율

(단위: 천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4,425	4,465	4,602	4,727	4,845	4,968	5,129	5,189	5,291	5,427	5,491	5,557	5,480
여성	1,921	1,987	2,043	2,123	2,192	2,278	2,384	2,474	2,519	2,625	2,652	2,718	2,626
남성	2,504	2,478	2,559	2,604	2,653	2,690	2,746	2,714	2,772	2,802	2,839	2,839	2,855
여성비율	43.4	44.5	44.4	44.9	45.2	45.9	46.5	47.7	47.6	48.4	48.3	48.9	47.9

주: 12년까지는 한국표준직업분류 6차개정(2007년) 기준, 13-18년까지는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개정(2018년)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7〉 30대 고용률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0대 전체	73.0	71.4	72.0	72.2	72.8	73.3	74.1	74.4	74.7	75.3	75.7	76.0	75.3
30대 여성	54.8	52.8	53.8	53.8	54.6	55.5	56.3	56.9	58.2	59.4	60.7	62.0	61.3
30대 남성	90.3	89.1	89.4	89.8	90.3	90.2	90.9	90.9	90.2	90.2	89.7	89.0	88.1

주: 30대는 30-39세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8〉 대졸자 실업률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2.6	3.1	3.1	2.8	2.9	3.0	3.2	3.3	3.6	3.7	3.6	3.3	3.1
여성	2.9	3.1	3.6	3.0	3.3	3.3	4.0	3.7	4.1	4.1	3.8	3.8	3.8
남성	2.5	3.1	2.9	2.6	2.7	2.8	2.9	3.1	3.3	3.5	3.5	3.1	2.7

주: 4년제 이상 졸업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9〉 평균 근속년수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6.0	6.2	6.2	6.1	6.2	6.4	6.0	6.2	6.4	6.3	6.5	6.7	6.8
여성	4.0	4.4	4.4	4.3	4.4	4.6	4.5	4.6	4.8	4.7	4.9	5.1	5.2
남성	7.0	7.1	7.0	7.0	7.1	7.3	6.9	7.1	7.3	7.2	7.4	7.7	7.8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부표 1-10〉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184.5	189.0	187.0	180.8	173.7	167.9	165.5	173.5	171.1	168.5	156.4	152.4	163.6
여성	178.3	182.9	181.2	174.0	166.4	159.9	157.1	165.0	163.2	160.1	148.6	144.6	155.0
남성	188.2	192.6	190.6	185.0	178.3	173.0	171.0	179.2	176.5	174.4	161.8	157.9	169.5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부표 1-11〉 청년층 고용률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청년층 전체	41.9	40.6	40.4	40.4	40.3	39.5	40.5	41.2	41.7	42.1	42.7	43.5	42.2
여성	43.2	41.9	41.9	41.8	41.8	41.0	42.2	42.9	43.4	44.0	44.6	44.7	43.5
남성	40.6	39.3	38.8	39.0	38.7	37.9	38.7	39.5	40.1	40.1	40.8	42.4	41.0

주: 청년층은 15-29세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12〉 비정규직 여성 사회보험가입률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민연금	38.7	38.0	37.5	37.7	38.1	39.0	39.1
건강보험	42.7	42.7	43.2	44.0	45.5	46.8	47.7
고용보험	42.6	42.3	42.5	43.2	43.8	45.0	46.0

주: 1) 2014-2016년까지는 하반기 자료임
 2)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분석.

〈부표 1-13〉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체의 의무이행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무 사업장 수	791	790	833	832	919	1,074	1,204	1,143	1,153	1,253	1,389	1,445	1,432
이행 사업장 수	476	523	578	604	683	877	903	605	940	1,086	1,252	1,303	1,301
어린이집 설치	60.2	66.2	69.4	72.6	74.3	81.7	75.0	52.9	81.5	86.7	90.1	90.2	90.9
	269	284	312	326	359	534	635	578	729	839	957	987	980
수당	34.0	35.9	37.5	39.2	39.1	49.7	52.7	50.6	63.2	67.0	68.9	68.3	68.4
	160	195	208	231	253	242	175	0	0	0	0	0	0
위탁	20.2	24.7	25.0	27.8	27.5	22.5	14.5	0.0	0.0	0.0	0.0	0.0	0.0
	47	44	58	47	71	101	93	27	211	247	295	316	321
	5.9	5.6	7.0	5.6	7.7	9.4	7.7	2.4	18.3	19.7	21.2	21.9	22.4

자료: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부표 1-14〉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

(단위: 개소,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고용유지율	67.5	67.3	67.6	69.0	71.2	74.6	76.4	75.5	76.8	79.1
육아휴직 후 복직자	19,238	20,342	27,521	35,457	46,262	53,688	58,694	68,383	75,916	78,460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동일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	12,982	13,696	18,596	24,466	32,933	40,053	44,817	51,619	58,339	62,044

주: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자료」.

나. 의사결정

〈부표 1-15〉 국회의원 비율

(단위: 명, %)

구분	2004	2008	2012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299	299	300	300	300	300	300	300
여성	39	41	47	51	51	51	50	57
남성	260	258	253	249	249	249	250	243
여성비율	13	13.7	15.7	17	17	17	16.7	19.0

자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 IPU 홈페이지

〈부표 1-16〉 4급 이상 공무원

(단위: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8,106	8,443	7,256	7,444	7,634	7,917	7,979	8,093	8,235	8,244
여성	684	783	640	719	810	961	1,057	1,186	1,330	1,464
남성	7,422	7,660	6,616	6,725	6,824	6,956	6,922	6,907	6,905	6,780
여성비율	8.4	9.3	8.8	9.7	10.6	12.1	13.2	14.7	16.2	17.8

자료: 인사혁신처 「행정부국가공무원인사통계」 내부자료.

〈부표 1-17〉 관리자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552	551	567	519	469	409	404	358	335	313	371	408	395
여성	52	48	53	52	52	47	45	37	33	39	54	63	62
남성	499	503	514	467	417	362	359	321	302	274	317	345	334
여성비율	9.4	8.7	9.3	10.0	11.1	11.5	11.1	10.3	9.9	12.5	14.6	15.4	15.7

주: 15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1-18〉 기업의 과장급 이상 관리직 수

(단위: 명)

구분	근로자 전체			관리직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05년 12월(1,000인 이상)	1,597,617	458,584	1,139,033	169,983	14,178	155,805
2006년 12월(1,000인 이상)	1,748,552	536,445	1,212,107	166,009	15,373	150,636
2007년 12월(500인 이상)	2,430,320	775,922	1,654,398	217,717	22,887	194,830
2008년 12월(500인 이상)	2,566,715	825,850	1,740,865	254,598	35,836	218,762
2009년 12월(500인 이상)	2,598,082	846,957	1,751,125	230,008	29,404	200,604
2010년 12월(500인 이상)	2,731,934	933,286	1,789,648	270,234	34,616	235,618
2011년 12월(500인 이상)	2,897,173	986,053	1,911,120	287,062	33,280	253,782
2012년 12월(500인 이상)	3,050,363	1,055,336	1,995,027	292,978	37,227	255,751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적극적 조치 고용대상 기업체).

〈부표 1-19〉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중앙행정기관)

(단위: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위촉위원수	9,462	9,867	8,875	7,647	7,585	6,873	8,305	7,543	7,725	7,901	9,060	8,700	9,129
여성위원수	2,558	2,428	1,983	1,900	1,949	1,902	2,630	2,575	2,805	3,028	3,548	3,522	3,607
여성위원비율	27.0	24.6	22.3	24.8	25.7	27.7	31.7	34.1	37.8	40.2	41.9	43.0	43.2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부표 1-20〉 초·중·고등학교 교장

(단위: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초등학교	전체	5,761	5,791	5,818	5,830	5,855	5,875	5,897	5,934	5,962	5,998	6,023	6,051	6,084
	여성	653	747	832	895	977	1,095	1,299	1,701	2,058	2,417	2,697	2,934	3,097
	남성	5,108	5,044	4,986	4,935	4,878	4,780	4,598	4,233	3,904	3,581	3,326	3,117	2,987
	여성비율	11.3	12.9	14.3	15.4	16.7	18.6	22.0	28.7	34.5	40.3	44.8	48.5	50.9
중학교	전체	2,731	2,777	2,800	2,837	2,859	2,880	2,907	2,934	2,940	2,946	2,956	2,971	2,982
	여성	394	463	493	522	556	577	618	680	713	747	796	829	828
	남성	2,337	2,314	2,307	2,315	2,303	2,303	2,289	2,254	2,227	2,199	2,160	2,142	2,154
	여성비율	14.4	16.7	17.6	18.4	19.4	20.0	21.3	23.2	24.3	25.4	26.9	27.9	27.8
고등학교	전체	2,106	2,129	2,177	2,199	2,223	2,278	2,286	2,299	2,297	2,319	2,315	2,325	2,344
	여성	122	126	139	155	174	199	204	218	228	242	253	282	286
	남성	1,984	2,003	2,038	2,044	2,049	2,079	2,082	2,081	2,069	2,077	2,062	2,043	2,058
	여성비율	5.8	5.9	6.4	7.0	7.8	8.7	8.9	9.5	9.9	10.4	10.9	12.1	12.2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표 1-21〉 대학 교수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계	73,072	75,469	77,697	82,190	84,910	86,656	88,163	90,215	90,371	90,902	90,288	89,345	89,475
	총(학)장	393	395	395	424	416	415	409	413	397	401	393	401	411
	교수	32,162	33,592	34,731	36,632	37,740	38,830	39,977	41,239	42,306	43,225	43,531	43,502	43,255
	부교수	16,990	17,607	18,093	19,165	19,612	19,972	19,924	20,013	20,155	20,197	19,816	19,851	20,067
	조교수	14,465	14,707	15,193	15,779	16,322	27,439	27,853	28,550	27,513	27,079	26,548	25,591	25,742
	전임강사	9,062	9,168	9,285	10,190	10,820	-	-	-	-	-	-	-	-
여성	계	14,479	15,360	16,458	17,863	19,118	20,018	20,947	21,984	22,403	22,879	23,181	23,430	24,125
	총(학)장	41	45	47	54	48	40	45	43	47	49	48	48	51
	교수	4,371	4,584	4,844	5,096	5,331	5,644	5,958	6,245	6,568	6,925	7,170	7,414	7,659
	부교수	3,112	3,407	3,606	3,951	4,281	4,505	4,689	4,864	5,174	5,408	5,599	5,884	6,246
	조교수	3,618	3,872	4,291	4,643	5,016	9,829	10,255	10,832	10,614	10,497	10,364	10,084	10,169
	전임강사	3,337	3,452	3,670	4,119	4,442	-	-	-	-	-	-	-	-
남성	계	58,593	60,109	61,239	64,327	65,792	66,638	67,216	68,231	67,968	68,023	67,107	65,915	65,350
	총(학)장	352	350	348	370	368	375	364	370	350	352	345	353	360
	교수	27,791	29,008	29,887	31,536	32,409	33,186	34,019	34,994	35,738	36,300	36,361	36,088	35,596
	부교수	13,878	14,200	14,487	15,214	15,331	15,467	15,235	15,149	14,981	14,789	14,217	13,967	13,821
	조교수	10,847	10,835	10,902	11,136	11,306	17,610	17,598	17,718	16,899	16,582	16,184	15,507	15,573
	전임강사	5,725	5,716	5,615	6,071	6,378	-	-	-	-	-	-	-	-

주: 계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의 합.

2013년부터 전임강사 폐지에 따라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조사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표 1-22〉 공무원 수

(단위: 명, %)

구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2008	599,037	289,388	48.3	274,626	79,746	29.0
2009	615,490	284,022	46.1	339,813	108,835	32.0
2010	622,737	293,917	47.2	341,421	110,791	32.4
2011	621,313	292,038	47.0	343,722	112,770	32.8
2012	622,424	299,539	48.1	347,165	116,441	33.5
2013	621,823	299,101	48.1	354,630	120,873	34.1
2014	634,051	310,860	49.0	357,492	126,483	35.4
2015	637,654	315,290	49.4	363,691	132,981	36.6
2016	650,149	323,575	49.8	371,253	139,942	37.7
2017	656,665	329,808	50.2	377,897	148,232	39.2
2018	669,077	338,489	50.6	390,773	158,152	40.5
2019	681,049	345,773	50.8	406,690	170,262	41.9
2020	746,267	357,170	47.9	362,355	174,986	48.3

자료: 인사혁신처, 「통계연보」.

〈부표 1-23〉 고위공무원단(일반직) 여성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고위공무원단 전체	948	936	976	1,033	991	1,011	1,031	1,051	1,050	1,064	1,082	1,087
고위공무원단 여성 수	18	22	31	38	37	34	38	52	55	59	60	70
여성 비율	1.9	2.4	3.2	3.7	3.7	3.4	3.7	4.9	5.2	5.5	5.5	6.4

주: 2014년부터 인사혁신처 자료를 활용함.

자료: 인사혁신처, 「통계연보」.

〈부표 1-24〉 여성장관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0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16	24	17	17	17	17	18	18	18
여성장관 수	2	3	2	1	1	2	5	5	6
여성 비율	12.5	12.5	11.8	5.9	5.9	11.8	27.8	27.8	33.3

주: 각년도 1월 기준

자료: 안전행정부, 내부자료

〈부표 1-25〉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공공기관 수	109	111	117	302	316	323
전체 임원	1,257	1,307	1,356	3,149	3,204	2,983
여성 인원	111	112	126	367	390	375
비율	8.8	8.6	9.3	11.7	12.2	12.6

주: '13년까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4년부터 공공기관 전체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부표 1-26〉 여성 사업체 대표자

(단위: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3,355,459	3,470,023	3,602,461	3,676,859	3,812,800	3,874,156	3,950,169	4,019,872	4,103,172	4,176,549
여성	1,247,853	1,300,274	1,355,844	1,388,895	1,435,865	1,454,054	1,496,942	1,538,145	1,576,427	1,608,089
남성	2,107,606	2,169,749	2,246,617	2,287,964	2,376,935	2,420,102	2,453,227	2,481,727	2,526,745	2,568,460
여성비율	37.2	37.5	37.6	37.8	37.7	37.5	37.9	38.3	38.4	38.5

주: 2016년 이후 10차 산업분류 적용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다. 교육·직업훈련

〈부표 1-27〉 평균 교육년수

(단위: 년)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전체	10.3	10.5	11.2	11.6	12.1	12.6
여성	9.4	9.8	10.5	10.9	11.4	11.9
남성	11.2	11.5	12.1	12.4	12.8	13.2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표 재분석.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부표 1-28〉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단위: %)

구분	계	여성	남성
2010	79.0	80.5	77.6
2011	72.5	75.0	70.2
2012	71.3	74.3	68.6
2013	70.7	74.5	67.4
2014	70.9	74.6	67.6
2015	70.8	74.6	67.3
2016	69.8	73.5	66.3
2017	68.9	72.7	65.3
2018	69.7	73.8	65.9
2019	70.4	74.5	66.6
2020	72.5	76.2	69.3

주: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포함), 각종고등교육기관 진학자.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표 1-29〉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단위: 건, %)

구분	전체	여성(A)	남성(B)	외국인	분류불능	여성비율 (A/(A+B))
2006	2,875,555	698,756	2,176,799	20,009	18,049	24.3
2008	3,987,065	1,151,546	2,835,519	19,314	270	28.9
2009	4,878,247	1,433,593	3,425,726	17,841	1,087	29.5
2010	4,208,310	1,404,051	2,791,245	13,005	9	33.5
2011	3,308,391	1,134,368	2,147,316	26,693	14	34.6
2012	3,419,898	1,154,786	2,239,825	25,282	5	34.0
2013	3,557,559	1,530,028	2,002,954	24,566	11	43.3
2014	3,399,908	1,554,207	1,845,298	-	403	45.7
2015	2,836,142	1,080,408	1,755,734	-	-	38.1
2016	3,170,454	1,180,535	1,989,895	-	-	37.2
2017	3,720,168	1,429,233	2,290,934	-	-	38.4
2018	4,914,227	1,949,525	2,964,696	-	-	39.7
2019	3,970,953	1,689,371	2,281,582	-	-	42.5

주: 사업주능력개발(유급휴가훈련포함), 근로자능력개발지원(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

〈부표 1-30〉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2010	68.9	67.2	70.4
2011	68.3	67.0	69.3
2012	67.5	66.7	68.3
2013	67.0	66.7	67.3
2014	66.1	66.2	66.1
2015	65.9	66.5	65.4
2016	65.7	67.1	64.5
2017	65.9	67.7	64.4
2018	65.9	68.1	63.8
2019	66.1	68.6	63.7
2020	68.6	71.3	66.1

주: 1) 적령 인구수: 만 18~21세.

2) 취학률 = 취학적령 학생수 / 취학적령 인구 * 1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표 1-31〉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자

(단위: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280,341	293,967	298,883	294,952	301,606	322,413	334,643	335,650	323,735	323,883	324,004
여성	134,161	141,329	145,079	144,003	149,125	160,348	167,933	168,940	161,955	161,351	162,510
남성	146,180	152,638	153,804	150,949	152,481	162,065	166,710	166,710	161,780	162,532	161,494
비율	47.9	48.1	48.5	48.8	49.4	49.7	50.2	50.3	50.0	49.8	50.2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표 1-32〉 초·중·고 여성 교장·교감 현황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교감		교장		교감		교장		교감	
	교원수	비율	교원수	비율	교원수	비율	교원수	비율	교원수	비율	교원수	비율
2008	653	11.3	1,207	19.8	394	14.4	594	22.2	122	5.8	120	5.5
2009	747	12.9	1,374	22.7	463	16.7	636	23.7	126	5.9	135	6.0
2010	832	14.3	1,623	26.9	493	17.6	687	25.6	139	6.4	174	7.6
2011	895	15.3	1,964	32.7	522	18.4	698	25.7	157	7.0	195	8.5
2012	978	16.7	2,382	39.3	556	19.4	713	26.2	176	7.8	205	8.9
2013	1,096	18.6	2,730	45.1	577	20.0	724	26.6	199	8.7	221	9.7
2014	1,299	22.0	2,981	49.2	618	21.3	763	28.1	204	8.9	235	10.3
2015	1,701	28.7	3,295	54.3	680	23.2	811	30.1	218	9.5	258	11.3
2016	2,058	34.5	3,455	56.7	713	24.3	850	31.8	228	9.9	316	13.9
2017	2,417	40.3	3,640	59.3	747	25.4	884	32.8	242	10.4	350	15.7
2018	2,697	44.8	3,673	59.7	796	26.9	912	34.2	253	10.9	393	17.5
2019	2,934	48.5	3,631	58.5	829	27.9	986	37.0	282	12.1	379	17.3
2020	3,097	50.9	3,565	57.1	828	27.8	1,069	39.9	286	12.2	432	19.6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표 1-33〉 대학 전공별 여교수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사범계
2008	교수	13.6	20.6	6.6	8.7	17.2	31.6	27.8
	부교수	18.3	23.0	12.3	10.7	27.1	32.4	37.2
	조교수	25.0	31.1	19.5	15.5	31.9	32.5	47.1
2010	교수	13.9	20.5	7.2	8.5	18.3	31.8	28.9
	부교수	19.9	25.8	14.0	11.4	28.1	31.9	40.9
	조교수	28.2	34.0	24.9	16.3	34.1	36.6	48.2
2011	교수	13.9	20.3	7.6	8.2	18.8	31.8	30.1
	부교수	20.6	26.7	15.7	11.8	28.4	31.7	43.4
	조교수	29.4	35.8	26.0	17.1	35.9	36.9	49.8
2012	교수	14.1	20.7	7.9	8.4	19.0	31.8	30.9
	부교수	21.8	28.1	16.8	12.6	29.5	32.4	46.0
	조교수	30.7	37.3	27.4	17.8	39.0	36.6	50.7
2013	교수	14.5	21.2	8.4	8.6	19.7	32.1	33.1
	부교수	22.6	29.8	18.4	12.7	30.1	32.5	46.2
	조교수	35.8	40.0	30.8	20.9	50.4	36.9	54.0
2014	교수	14.9	21.5	8.7	8.8	20.5	32.6	32.9
	부교수	23.5	30.0	19.8	13.3	31.0	33.1	47.1
	조교수	36.8	40.7	30.9	21.1	53.2	38.4	54.6
2015	교수	15.1	22.3	9.2	9.0	20.8	32.8	33.2
	부교수	24.3	31.0	21.0	13.7	32.6	33.2	48.5
	조교수	37.9	42.1	31.8	21.5	55.9	38.6	54.2
2016	교수	15.5	22.7	9.9	9.1	21.4	32.6	36.1
	부교수	25.7	33.0	22.2	14.1	35.8	33.1	51.0
	조교수	38.6	42.0	32.9	21.7	57.6	38.9	56.2
2017	교수	16.0	23.0	10.6	9.4	22.0	32.8	37.1
	부교수	26.8	35.2	23.0	14.9	37.5	33.6	51.4
	조교수	38.8	42.2	33.5	20.9	57.8	39.3	59.2
2018	교수	16.5	23.6	11.7	9.6	22.3	32.5	38.4
	부교수	28.3	35.2	24.6	15.5	40.4	35.0	53.4
	조교수	39.0	43.1	34.0	20.4	59.0	40.2	60.0
2019	교수	17.0	24.3	12.8	9.8	23.2	32.7	40.2
	부교수	29.6	37.2	26.3	16.2	42.5	35.9	53.9
	조교수	39.4	43.5	34.5	20.1	59.8	40.2	61.7
2020	교수	17.7	25.2	13.8	10.1	24.1	32.9	42.0
	부교수	31.1	39.6	27.7	16.6	44.5	37.6	56.0
	조교수	39.5	44.1	35.3	20.0	60.5	40.2	61.4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표 1-34〉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단위: 천 원)

구분	교육비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2009	계	242	245	260	217	269
	여성	243	243	252	234	282
	남성	241	248	267	204	257
2010	계	240	245	255	218	265
	여성	247	246	253	242	285
	남성	234	244	257	197	247
2011	계	240	241	262	218	259
	여성	247	246	253	242	281
	남성	234	236	269	197	240
2012	계	236	219	276	224	265
	여성	238	215	276	235	276
	남성	235	223	276	214	254
2013	계	239	232	267	223	262
	여성	243	233	271	233	268
	남성	235	230	264	214	257
2014	계	242	232	270	230	269
	여성	251	235	276	251	284
	남성	234	229	265	209	254
2015	계	244	231	275	236	276
	여성	250	229	282	252	286
	남성	239	233	269	221	267
2016	계	256	241	275	262	304
	여성	263	244	287	273	312
	남성	249	239	264	251	296
2017	계	271	253	291	284	330
	여성	275	253	288	298	340
	남성	267	253	294	268	319
2018	계	291	263	312	321	376
	여성	301	267	318	345	392
	남성	282	259	307	299	359
2019	계	321	290	338	365	425
	여성	331	297	341	387	441
	남성	312	283	336	344	411
2020	계	289	221	328	388	448
	여성	294	220	334	409	467
	남성	285	223	323	371	432

자료: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부표 1-35〉 전공계열별 대졸 취업률

(단위: %)

구분	전체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계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2006	73.4	70.3	62.7	59.1	71.4	70.1	70.2	68.0	77.1	72.3	68.1	64.0	84.4	83.2	79.0	77.4
2008	73.4	70.1	63.3	59.3	72.2	70.6	65.7	64.2	77.7	73.3	69.3	64.5	85.4	84.4	79.3	77.8
2009	73.0	70.1	62.7	58.8	72.0	71.0	64.7	63.2	76.8	73.6	69.3	65.0	85.3	84.6	78.4	77.0
2010	55.0	51.9	44.3	43.6	54.8	55.2	52.9	55.4	64.7	59.8	52.5	49.4	72.2	71.4	36.1	33.3
2011	67.6	64.5	58.9	57.6	65.2	64.8	63.7	66.7	76.4	71.6	64.3	61.5	83.2	83.9	54.9	51.8
2012	68.1	65.7	59.7	59.1	65.0	64.8	66.3	69.1	76.0	71.3	64.6	62.6	82.0	82.5	58.6	56.4
2013	67.4	65.1	57.9	56.7	63.9	63.7	67.9	70.4	74.9	70.1	63.8	61.6	80.8	81.1	59.6	57.7
2014	67.0	65.2	57.3	56.4	63.9	63.4	68.6	70.8	73.1	68.7	63.6	61.5	80.8	81.4	59.6	57.8
2015	67.5	66.1	57.6	57.1	64.3	64.0	68.6	71.2	72.8	69.5	63.9	62.0	82.2	82.8	61.9	60.0
2016	67.7	66.4	57.6	56.9	64.7	64	66.8	69.3	71.6	68	64	61.7	83.4	83.9	63.6	61.9
2017	66.2	64.8	56	54.5	62.6	61.5	63.7	66.3	70.1	66.3	62.5	60.1	82.8	83.2	63.0	61.6
2018	67.7	69.6	57.1	56.0	64.2	62.8	64.1	66.5	71.7	66.9	64.2	61.3	83.3	83.4	64.2	62.5
2019	67.1	65.2	56.2	54.7	63.4	61.5	62.7	64.4	69.9	65.5	63.8	60.5	83.7	83.6	64.5	62.6

주: 전문대 및 교육대를 포함한 총괄임. 2010년 이후 취업률은 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임.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부표 1-36〉 교육전문직 여성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			교육장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2005	3,881	850	21.9	182	18	9.9	727	71	9.8	2,972	761	25.6
2006	3,896	937	24.1	182	14	7.7	736	79	10.7	2,978	844	28.3
2007	3,945	1,012	25.7	180	14	7.8	752	88	11.7	3,013	910	30.2
2008	4,150	1,185	28.6	180	16	8.9	784	119	15.2	3,186	1,050	33.0
2009	4,173	1,278	30.6	181	17	9.4	788	119	15.1	3,204	1,142	35.6
2010	4,202	1,373	32.7	124	7	5.6	860	139	16.2	3,218	1,227	38.1
2011	4,196	1,491	35.5	132	17	12.9	852	157	19.4	3,212	1,317	41.0
2012	4,246	1,587	37.4	167	20	12.0	838	175	20.9	3,241	1,392	42.6
2013	-	-	-	-	-	-	866	178	20.6	3,239	1,444	44.6

주: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 교원연수원, 학생교육원, 공공도서관 및 기타 포함.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부표 1-37〉 평생학습 참여비율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27.6	26.4	28.0	30.5	32.4	35.6	30.2	36.8	40.6	35.7	34.4	41.2	41.7	40.0
여성	29.4	28.4	30.5	32.3	34.0	39.4	31.3	36.1	39.8	37.1	36.4	42.9	42.6	40.3
남성	25.7	24.4	25.5	28.7	30.7	31.8	29.1	37.5	41.3	34.4	32.4	39.5	40.8	39.7

주: 2007~2015년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각 연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부표 1-38〉 기술사, 기능장 현황

(단위: 명, %)

구분	성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술사	전체	44,070	45,154	46,233	47,583	49,207	51,126	53,353	55,266
	여성	1,081	1,140	1,210	1,293	1,359	1,488	1,611	1,737
	남성	42,989	44,014	45,023	46,290	47,848	49,638	51,742	53,529
	여성비율	2.5	2.5	2.6	2.7	2.8	2.9	3.0	3.1
기능장	전체	31,811	35,465	39,142	45,731	52,067	56,929	61,294	66,872
	여성	1,349	1,528	1,706	1,971	2,223	2,453	2,674	2,928
	남성	30,462	33,937	37,436	43,760	49,844	54,476	58,620	63,944
	여성비율	4.2	4.3	4.4	4.3	4.3	4.3	4.4	4.4

주: 1975년부터 각 연도까지 각각 누적된 자격증 취득자수임.
 자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통계연보」.

〈부표 1-39〉 가구주 직업훈련 참가자 수

(단위: 천 명, %)

구분	성별	가구주 중 임금근로자	가구주 중 직업훈련 참여자	참여비율
2007.3	전체	8,995	6,184	31.3
	여성	1,772	1,401	20.9
	남성	7,223	4,784	33.8
2008.3	전체	9,205	6,815	26.0
	여성	1,840	1,477	19.7
	남성	7,365	5,338	27.5
2009.3	전체	9,230	3,031	32.8
	여성	1,777	437	24.6
	남성	7,453	2,594	34.8
2010.3	전체	9,262	3,208	34.6
	여성	1,773	471	26.6
	남성	7,489	2,737	36.5
2011.3	전체	9,458	3,511	37.1
	여성	1,828	507	27.7
	남성	7,630	3,004	39.4
2012.3	전체	9,524	3,787	39.8
	여성	1,839	545	29.6
	남성	7,685	3,242	42.2
2013.3	전체	9,768	4,764	48.8
	여성	1,864	680	36.5
	남성	7,904	4,084	51.7
2014.3	전체	10,107	5,099	50.5
	여성	1,990	814	40.9
	남성	8,118	4,285	52.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라. 복지

〈부표 1-40〉 빈곤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14.5	-	-	-	-	-	-
여성	16.6	16.6	15.8	15.9	17.8	19.2	20.5
남성	12.0	12.0	11.1	11.4	12.9	14.5	15.3

주: 1) 빈곤인구는 전가구의 경상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빈곤율을 사
용함.
2) 빈곤선은 상대빈곤선을 적용, 중위소득 50%이하 인구를 기준으로 함.
3) 농어가 가구는 제외함.
4) 2017년부터 분기별 자료로 빈곤율이 공표되고 있으며, 2018년 빈곤율은 4사분기 평균값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부표 1-41〉 공적연금가입자

(단위: 명)

구분	2010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계	15,448,980	16,999,768	17,915,989	18,432,294	19,080,383	19,436,115	20,093,494	20,458,317	20,558,200
	여성	5,951,043	6,970,843	7,574,426	7,938,292	8,367,307	8,646,882	9,035,169	9,271,909	9,385,592
	남성	9,497,937	10,028,925	10,341,563	10,494,002	10,713,076	10,789,233	11,058,325	11,186,408	11,172,608
국민연금*	계	14,129,092	15,663,881	16,554,121	17,056,789	17,659,255	17,998,055	18,612,582	18,939,569	19,009,014
	여성	5,397,122	6,395,846	6,967,593	7,315,852	7,707,145	7,968,295	8,322,391	8,531,930	8,619,802
	남성	8,731,970	9,268,035	9,586,528	9,740,937	9,952,110	10,029,760	10,290,191	10,407,639	10,389,212
공무원연금	계	1,052,407	1,064,472	1,081,147	1,093,038	1,107,972	1,120,458	1,160,586	1,195,051	1,221,322
	여성	428,179	445,641	468,031	480,124	493,705	506,810	536,205	558,708	579,527
	남성	624,228	618,831	613,116	612,914	614,267	613,648	624,381	636,343	641,795
사학연금	계	267,481	271,415	280,721	282,467	313,156	317,602	320,326	323,697	327,864
	여성	125,742	129,356	138,802	142,316	166,457	171,777	176,573	181,271	186,263
	남성	141,739	142,059	141,919	140,151	146,699	145,825	143,753	142,426	141,601

주: 국민연금가입자 내 지역가입자에서 납부예외자 제외.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부표 1-42〉 장애인고용률

(단위: %)

구분	2010	2011	2013	2014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36.0	35.5	36.0	36.0	37.0	34.8	36.1	36.5	34.5	34.9	34.9
여성	23.0	22.7	20.9	20.9	19.8	21.0	20.8	22.4	21.4	20.3	22.7
남성	45.6	44.8	46.9	46.9	49.4	44.7	47.1	46.8	44.1	45.6	43.8

주: 15세 이상 인구 기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부표 1-43〉 기초생활수급자 수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1,458,198	1,379,865	1,300,499	1,258,582	1,237,386	1,554,484	1,539,539	1,491,650	1,653,781	1,792,012	2,046,213
여성	626,798	594,955	562,115	547,324	543,391	854,262	839,804	808,757	908,475	988,510	1,125,892
남성	831,400	784,910	738,384	711,258	693,935	700,222	699,735	682,893	745,306	803,502	920,321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부표 1-44〉 장애인 교육수준

(단위: %)

구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
1995	여성	53.7	28.9	9.1	6.3	2.0
	남성	18.8	31.6	18.3	21.8	9.5
	전체	35.1	30.3	14.0	14.6	6.0
2000	여성	39.4	31.7	10.4	14.4	4.1
	남성	13.4	30.0	16.0	28.8	11.6
	전체	23.5	30.7	13.9	23.3	8.7
2005	여성	29.1	35.5	13.4	16.9	5.1
	남성	7.8	27.7	18.7	31.3	14.4
	전체	16.5	30.8	16.6	25.5	10.6
2008	여성	28.9	38.4	11.8	16.4	4.6
	남성	7.8	29.2	18.8	30.1	14.1
	전체	16.5	33.0	15.9	24.4	10.2
2011	여성	22.1	40.2	15.1	16.6	5.9
	남성	4.4	27.5	20.6	31.0	16.5
	전체	11.8	32.9	18.3	25.0	12.0
2014	여성	21.0	36.8	14.2	19.3	8.6
	남성	4.7	23.0	17.7	34.5	20.2
	전체	11.6	28.8	16.2	28.1	15.3
2017	여성	19.1	36.5	14.5	20.9	9.0
	남성	4.0	20.5	18.3	37.6	19.7
	전체	10.4	27.3	16.7	30.4	15.1

주: 25세 이상 장애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부표 1-45〉 장애인 등록자 수

(단위: 명)

구분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2,246,965	2,517,312	2,519,241	2,511,159	2,501,112	2,494,460	2,490,406	2,511,051	2,545,637	2,585,876	2,618,918
여성	901,408	1,048,979	1,052,781	1,050,669	1,047,506	1,045,582	1,043,464	1,053,463	1,070,087	1,089,578	1,105,712
남성	1,345,557	1,468,333	1,466,460	1,460,490	1,463,606	1,448,878	1,446,943	1,457,588	1,475,550	1,496,298	1,513,206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부표 1-46〉 고용보험 가입자

(단위: 명)

구분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9,385,239	10,131,058	10,675,437	11,152,354	11,571,213	11,930,602	12,363,063	12,655,202	12,958,825	13,432,497	13,864,138
여성	3,374,119	3,820,635	4,105,637	4,367,654	4,599,514	4,815,795	5,064,769	5,244,088	5,431,205	5,717,676	5,989,964
남성	6,011,120	6,310,423	6,569,800	6,784,700	6,971,699	7,114,807	7,298,294	7,411,114	7,527,620	7,714,821	7,874,17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마. 보건

〈부표 1-47〉 건강관련 삶의 질(EQ-5D)

(단위: 점)

구분	전체	여성	남성	격차(여성/남성)
2005	0.939	0.926	0.953	0.972
2010	0.948	0.931	0.966	0.964
2011	0.947	0.932	0.962	0.969
2012	0.948	0.934	0.963	0.970
2013	0.945	0.929	0.962	0.966
2014	0.948	0.934	0.963	0.970
2015	0.95	0.94	0.962	0.977
2016	0.953	0.941	0.965	0.975
2017	0.956	0.947	0.966	0.980
2018	0.953	0.941	0.966	0.974
2019	0.955	0.945	0.966	0.978
2020(추정)	0.956	0.947	0.967	0.979

주: 19세 이상.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부표 1-48〉 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65.3	66.0	68.2	72.6	72.9	72.1	74.8	76.1	77.7	78.5	76.9	74.1
여성	62.9	64.0	66.5	71.0	71.3	70.3	73.1	74.6	76.5	77.2	75.8	72.6
남성	67.3	67.8	69.6	73.9	74.2	73.7	76.2	77.5	78.9	79.7	78.0	75.6

주: 1) 수검률 = $\frac{\text{건강검진수검인원}}{\text{건강검진대상인원}} \times 100$

2) 건강검진대상인원 = 1차건강검진대상인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부표 1-49〉 주관적 건강상태(15~64세)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6	2018
전체	51.6	47.2	46.8	48.5	44.3	42.4	47.7	46.3	48.1
여성	46.7	44.7	42.6	41.4	40.2	39.0	43.7	42.3	44.9
남성	56.7	53.9	51.1	49.8	48.5	47.2	51.8	50.4	5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분석.

〈부표 1-50〉 요양급여 (청구)수급자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8,506,065	9,322,539	10,452,402	11,062,559	11,981,351	12,742,633	14,039,627	13,897,278
여성	4,643,349	5,100,227	5,732,406	6,113,060	6,662,258	-	-	-
남성	3,862,721	4,222,312	4,719,996	4,949,499	5,319,093	-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부표 1-51〉 평균 수명(0세 기대여명)

(단위: 세)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79.6	80.0	80.2	80.6	80.9	81.4	81.8	82.1	82.4	82.7	82.7	83.3	83.5
여성	83.0	83.4	83.6	84.0	84.2	84.6	85.0	85.2	85.4	85.7	85.7	86.3	86.5
남성	76.2	76.7	76.8	77.3	77.6	78.1	78.6	79.0	79.3	79.7	79.7	80.3	80.5

자료: 통계청, 「생명표」.

〈부표 1-52〉 모성사망비

(단위: 출생아 10만명 당,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모성사망수	58	60	74	81	48	50	48	38	34	28	37	30
모성사망비	12	13.5	15.7	17.2	9.9	11.5	11.0	8.7	8.4	7.8	11.3	9.9
모성사망률	0.4	0.45	0.55	0.61	0.37	0.38	0.37	0.30	0.20	0.20	0.30	0.25

주: 2008년 이전 자료는 보건복지부 「영아모성사망조사」, 2009년 이후는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부표 1-53〉 청소년 출산율

(단위: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출산율	1.192	1.149	1.226	1.244	1.297	1.187	1.205	1.239	1.170	1.052	0.977	0.918	0.837
청소년 출산율	1.7	1.7	1.8	1.8	1.8	1.7	1.6	1.4	1.3	1.0	0.9	0.8	0.7

주: 15~19세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 수.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부표 1-54〉 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구분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19세 이상	35.1	27.1	31.0	29.8	27.9	27.0	23.8	25.5	29.6	27.9	29.1	27.3	28.6
	65세 이상	31.2	26.8	25.5	22.0	23.2	21.2	22.0	17.0	18.5	18.5	21.8	18.2	17.5
여성	19세 이상	35.2	30.3	33.3	31.4	30.4	30.3	25.7	27.2	30.5	28.8	30.7	29.6	29.8
	65세 이상	36.8	33.9	30.6	29.4	29.8	27.4	28.3	21.0	23.2	23.4	26.8	21.7	22.7
남성	19세 이상	35.0	23.7	28.6	25.1	25.4	23.5	21.8	23.6	28.6	27.0	27.5	24.9	27.4
	65세 이상	22.8	16.3	18.0	11.4	13.8	12.3	13.2	11.4	12.2	11.9	15.1	13.4	10.7

주: 19세 이상 인구,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부표 1-55〉 주요 암 환자 수

(단위: 명)

구분	2009		2011		2013		2015		2016		2017		2018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위	9,911	20,144	10,434	21,571	10,020	20,474	9,710	19,723	10,065	20,672	9,864	20,175	9,414	19,865
대장	10,148	15,412	11,179	17,509	11,232	16,917	11,052	16,156	11,569	16,890	11,612	16,877	11,223	16,686
간	4,042	11,982	4,238	12,184	4,010	12,030	4,084	11,869	4,053	11,884	3,962	11,651	4,008	11,728
유방	13,652	62	16,152	75	17,472	63	19,295	79	21,871	94	22,513	97	23,547	100
자궁 (경부, 체부)	5,590	0	5,767	0	5,969	0	6,090	0	6,406	0	6,516	0	6,682	0

자료: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국가암등록통계」.

〈부표 1-56〉 만성질환 유병률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비만	34.1	28.8	39.6	35.5	29.2	41.8	34.8	28.4	41.1	35.0	28.1	41.9	34.4	27.3	41.4
고혈압 (30세이상)	32.0	29.1	35.1	33.5	29.4	37.7	31.2	27.6	35.0	33.3	30.4	36.4	32.9	31.2	34.7
당뇨병 (30세이상)	11.4	10.4	12.5	14.4	13	15.8	13.4	11.7	15.1	13.8	11.8	15.9	14.5	12.7	16.3
이상지혈증 (30세이상)	19.5	22.1	16.9	22.1	23.6	20.6	23.7	26.4	21.0	23.8	25.9	21.6	25.8	28.8	22.6
폐쇄성폐질환 (40세이상)	13.4	5.8	21.6	13.6	6.6	21.1	13.7	7.3	20.7	11.4	5.5	17.8	12.7	7.1	18.6
B형 간염 (10세이상)	3.3	2.9	3.7	3.1	2.9	3.2	3.2	3.1	3.3	2.6	2.1	3.1	2.3	2.1	2.5
빈혈 (10세이상)	6.8	10.4	3.2	7.6	12.4	2.8	7.6	12.3	3.0	7.2	11.8	2.6	7.7	12.0	3.4
만성콩팥병 (30세이상)	4.1	3.9	4.3	4.6	5	4.2	3.9	3.8	4.0	3.2	2.7	3.7	11.4	11.4	11.3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부표 1-57〉 활동제한일수

(단위: 일)

구분	2003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전체	0.8	0.8	0.7	0.6	0.6	0.7	0.8	0.5	0.5
여성	0.8	0.7	0.6	0.6	0.6	0.7	0.9	0.4	0.5
남성	0.9	0.8	0.8	0.6	0.6	0.8	0.8	0.5	0.5

주: 0세 이상 인구, 2주간, 평균와병일수.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부표 1-58〉 자살 생각률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2001	19.1	22.8	14.4
2005	18.5	23.0	13.9
2007	15.0	20.4	9.4
2008	17.4	22.9	11.8
2009	16.4	22.2	10.5
2010	15.0	20.3	9.5
2011	13.9	17.5	10.1
2012	13.3	17.2	9.4
2013	4.6	5.7	3.5
2015	5.1	6.3	3.8
2017	4.7	5.2	4.2

주: 1) 19세 이상.
 2)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바. 안전

〈부표 1-59〉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단위: %)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전체	11.3	13.8	9.5	13.2	20.5	31.8
여성	9.2	11.4	7.4	10.6	16.6	27.6
남성	13.4	16.2	11.7	15.9	24.5	36.0

주: 13세 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부표 1-60〉 강력범죄(흉악범죄) 피해자

(단위: 건,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1995	7,947	2,377	5,570	29.9
2000	8,765	6,245	2,520	71.2
2005	18,583	14,847	3,736	79.9
2010	25,333	20,930	4,403	82.6
2011	28,097	23,544	4,553	83.8
2012	26,135	22,381	3,754	85.6
2013	29,019	25,400	3,619	87.5
2014	24,959	21,722	3,237	87.0
2015	33,145	29,617	3,528	89.4
2016	30,868	27,542	3,326	89.2
2017	33,937	30,490	3,447	89.8
2018	32,851	29,313	3,538	89.2
2019	36,286	32,759	3,527	90.3
2020(추정)	37,049	33,527	3,522	90.5

주: 미상 제외.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부표 1-61〉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강간) 발생 건수

(단위: 건)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건수
2005	11,757	10,365	24.1
2006	13,573	12,501	27.7
2007	13,634	12,361	27.7
2008	15,094	13,577	30.5
2009	16,156	14,902	32.5
2010	19,939	17,652	39.8
2011	22,034	18,591	43.4
2012	21,346	17,892	41.9
2013	26,919	23,839	52.6
2014	29,863	28,420	58.2
2015	31,063	29,981	60.3
2016	29,357	28,197	56.8
2017	32,824	31,585	63.4
2018	32,104	30,706	62.2
2019	32,029	30,550	61.9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부표 1-62〉 가정폭력 처분인원 및 기소율

(단위: 건, %)

구분	처분인원	기소	기소율
2004	17,294	2,429	14.0
2005	15,498	2,161	13.9
2006	13,531	1,972	14.6
2007	12,807	1,757	13.7
2008	13,370	1,841	13.8
2009	12,193	1,262	10.4
2011	6,227	1,103	17.7
2013	19,561	2,959	15.1
2015	44,819	3,856	8.6

자료: 법무부, 「법무부 여성통계」, 대검찰청, 「범죄분석」.

〈부표 1-63〉 가정폭력 피해자

(단위: 건,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100	100	159	327	312	173	215	195	190	339	371
남성	10	6	6	24	26	17	19	26	6	30	41
여성	90	94	153	303	286	156	196	169	184	309	330
여성비율	90.0	94.0	96.2	92.7	91.7	90.2	91.2	86.7	96.8	91.2	88.9

주: 미상은 제외.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부표 1-64〉 성매매 범죄자 기소율

(단위: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 수	36,705	49,151	76,551	29,510	23,758	18,190	17,469	23,672	20,489	44,326	25,491	17,770	15,149
처 분 계	38,542	49,288	77,682	30,639	22,467	19,186	17,918	22,971	20,770	43,493	26,657	17,560	14,749
기 소	7,169	8,177	12,388	5,839	5,506	5,831	6,548	9,027	8,151	10,803	8,290	5,845	4,868
불 기 소	28,655	39,418	61,572	22,419	15,409	11,684	9,590	11,660	9,831	25,844	14,353	8,729	7,244
기 타	2,718	2,693	3,722	2,111	1,552	1,671	1,780	2,284	2,788	6,846	4,014	2,986	2,637

주: 2004. 9. 23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자료: 법무부, 「법무부 여성통계」.

〈부표 1-65〉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 건수

(단위: 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3세 미만	1,180	1,057	1,127	1,172	1,208	1,272	1,231	1,270	1,283	1,376
13세~20세	6,218	6,883	7,834	8,719	8,322	7,753	7,342	8,079	7,308	7,108

주: 13세 미만은 13세미만자 대상 성폭력특별법 위반 건수임.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부표 1-66〉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단위: 개소,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운영방법	계	16	16	17	18	18	18	18	18	18	18
	위탁	13	13	14	15	15	15	15	15	16	16
	직영	3	3	3	3	3	3	3	3	2	2
종사자수	계	146	181	192	224	222	235	253	269	281	291
	상근직	146	181	192	224	222	235	253	269	281	291

자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사. 가족

〈부표 1-67〉 성별, 취업여부별 평균 가사노동 시간

(단위: 시:분)

구분	1999		2004		2009		2014		2019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전체	3:57	1:26	3:44	1:22	3:38	1:24	3:30	1:27	-	-
여성	5:14	2:50	4:54	2:36	4:41	2:34	4:02	2:27	3:50	2:24
남성	0:54	0:27	0:55	0:30	1:04	0:36	0:54	0:40	1:06	0:49

주: 20세 이상 인구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시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부표 1-68〉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단위: 명, 여아 백 명당)

구분	계	여아	남아	성비
2007	46,412	21,514	24,898	115.7
2008	44,315	20,456	23,859	116.6
2009	41,834	19,517	22,317	114.3
2010	49,900	23,664	26,236	110.9
2011	51,642	24,655	26,987	109.5
2012	50,580	24,177	26,403	109.2
2013	45,233	21,746	23,487	108.0
2014	43,712	21,151	22,561	106.7
2015	42,443	20,650	21,793	105.5
2016	39,636	19,112	20,524	107.4
2017	34,962	16,940	18,022	106.4
2018	28,164	13,673	14,491	106.0
2019	25,654	12,627	13,027	103.2
2020	22,564	10,919	11,645	106.6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부표 1-69〉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전체	-	56.1	54.8	55.7	54.6	56.5	56.7	58.8
여성	47.7	54.6	53.1	54.2	53.8	54.7	54.4	56.1
남성	53.1	57.7	56.6	58.2	56.6	58.3	59.0	61.5

주: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관계의 만족정도, 13세 이상 인구. (2010년 이전은 15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부표 1-70〉 육아휴직자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9,145	35,400	41,733	58,137	64,069	69,616	76,833	87,339	89,795	90,122	99,199	105,165	112,040
여성	28,790	34,898	40,914	56,735	62,279	67,323	73,412	82,467	82,179	78,080	81,537	82,868	84,617
남성	355	502	819	1,402	1,790	2,293	3,421	4,872	7,616	12,042	17,662	22,297	27,42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부표 1-71〉 경제활동상태별 노인부양 평균 시간

(단위: 시:분)

구분		1999			2004			2009			2014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비 취업자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2	0:01	0:02	0:02	0:02	0:02	0:02	0:01	0:01	0:01	0:01
	부모 및 조부모 간호	-	-	-	0:01	0:01	0:00	0:01	0:02	0:01	0:00	0:00	0:00
	기타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	-	-	0:01	0:01	0:01	0:01	0:01	0:01	0:00	0:01	0:00
취업자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0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부모 및 조부모 간호	-	-	-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	-	-	0:01	0:01	0:01	0:01	0:00	0:01	0:00	0:00	0:00

주: 20세 이상 남녀 인구의 요일평균 노인부양 시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부표 1-72〉 유배우 가구의 남녀 가구주 비율

(단위: 가구, %)

구분	2000	2005	2010	2015
전체 가구	10,739,411	11,120,410	11,546,820	12,110,142
여성 가구주	439,662	624,815	1,079,082	1,397,378
남성 가구주	10,299,749	10,495,595	10,467,738	10,712,764
여성 가구주 비율	4.1	5.6	9.3	11.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부표 1-73〉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및 아동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11	어린이집수	39,842	2,116	1,462	870	14,134	20,722	89	449
	아동수(현원)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286	24,987
	이용률	83.2	90.8	79.4	82.1	82	84.9	83.9	76.8
2012	어린이집수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아동수(현원)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이용률	86.4	91.8	80.3	83	84.9	90.9	83.5	77.8
2013	어린이집수	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아동수(현원)	1,486,980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이용률	83.4	90.8	77.9	82.3	82.1	86	81.2	77
2014	어린이집수	43,742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아동수(현원)	1,496,671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774	39,265
	이용률	83.1	88.5	76.3	80	81.9	87.1	80.6	76
2015	어린이집수	42,517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아동수(현원)	1,452,813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이용률	81.1	87.9	73.5	77.4	79.4	86.1	84.0	75.6
2016	어린이집수	41,084	2,859	1,402	804	14,316	20,598	157	948
	아동수(현원)	1,451,215	175,929	99,113	45,374	745,663	328,594	4,240	52,302
	이용률	82.1	89.1	73.9	77.5	80.4	87.6	83.9	75.1
2017	어린이집수	40,238	3,157	1,392	771	14,045	19,656	164	1053
	아동수(현원)	1,450,243	186,916	96,794	43,404	738,559	321,608	4,508	58,454
	이용률	82.6	89.1	73.4	76.8	80.6	89.2	81.9	76.1
2018	어린이집수	39,171	3,602	1,377	748	13,518	18,651	164	1,111
	아동수(현원)	1,415,742	200,783	92,787	41,298	711,209	302,674	4,360	62,631
	이용률	81.7	87.1	72	75.2	80.2	87.9	80	76.9
2019	어린이집수	37,371	4,324	1,343	707	12,568	17,117	159	1,153
	아동수(현원)	1,365,085	232,123	86,775	38,538	664,106	273,399	4,121	66,023
	이용률	80.9	86.1	70.0	74.5	79.7	85.9	77.8	77.3
2020	어린이집수	35,352	4,958	1,316	671	11,510	15,529	152	1,216
	아동수(현원)	1,244,396	253,251	78,322	34,066	578,196	230,444	3,716	66,401
	이용률	76.4	83.8	65.7	69.8	74.8	79.4	74.9	73.7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부표 1-74〉 출산휴가 사용 건수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원	41,104	75,742	90,290	93,394	90,507	88,756	95,259	90,467	81,710	77,062	74,095	71,942
금액	46,041	192,565	232,916	241,901	235,106	236,845	259,011	248,035	243,400	249,330	269,686	287,16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고용보험시스템)」.

아. 문화·정보

〈부표 1-75〉 성 및 취업상태별 여가시간

(단위: 시:분)

구분		1999	2004	2009	2014	2019
미취업자	요일평균	6:36	6:38	6:20	6:13	-
	여성	5:59	6:02	5:45	5:38	4:27
	남성	8:07	8:03	7:45	7:33	6:31
취업자	요일평균	3:47	4:01	3:46	3:36	-
	여성	3:14	3:34	3:16	3:15	2:39
	남성	4:09	4:20	4:06	3:51	3:20

주: 20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부표 1-76〉 여가 만족도(전 연령)

(단위: %)

구분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계	21.8	19.3	27.0	26.0	27.2	28.8
여성	20.5	18.0	25.8	24.9	26.9	28.2
남성	23.2	20.7	28.4	27.1	27.6	29.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부표 1-77〉 성별 정보화 격차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여성	94.7	94.4	94.0	94.4	96.4	95.3	93.6	95.0	95.9	95.1	96.1
남성	105.3	105.8	106.0	105.6	103.6	104.8	106.4	105.1	104.1	104.9	103.9
여성/남성 ×100	89.9	89.2	88.7	89.4	93.1	90.9	88.0	90.4	92.1	90.7	92.5

주: 전체를 100.0으로 두었을 때 남성과 여성의 수준을 구함, 복합지수는 접근지수, 역량지수, 활용지수(양적, 질적)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부표 1-78〉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단위: %)

구분	관람률	공연장 이용	음악· 연주회	연극· 마당극· 뮤지컬	무용	영화	전시장 관람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관람	
2004	계	51.0	87.4	22.8	20.8	2.4	90.1	32.1	77.6	54.3	19.5
	여성	51.0	91.5	26.2	24.4	2.9	89.1	35.3	75.5	57.9	10.9
	남성	51.0	83.2	18.9	16.5	1.8	91.2	28.6	80.5	49.5	28.5
2007	계	54.3	86.8	26.6	26.0	2.5	85.0	36.6	75.4	56.8	18.4
	여성	55.0	90.2	29.0	29.6	3.1	84.4	39.1	73.0	59.8	10.8
	남성	53.6	83.2	23.8	21.9	1.8	85.8	33.9	78.4	53.0	26.6
2009	계	55.0	89.5	26.1	26.2	2.3	91.0	32.5	77.0	56.2	20.5
	여성	55.2	93.2	29.4	31.0	2.9	90.1	36.0	74.1	61.1	12.1
	남성	54.9	85.6	22.4	20.8	1.5	92.1	28.8	80.6	49.9	29.3
2011	계	58.6	-	25.2	25.0	2.6	81.8	-	26.4	20.7	24.3
	여성	59.2	-	28.7	30.2	3.3	85.5	-	28.4	24.4	14.9
	남성	58.0	-	21.4	19.6	1.9	77.8	-	24.3	16.8	34.2
2013	계	63.4	-	21.7	24.2	2.4	85.9	-	25.8	19.4	22.0
	여성	63.8	-	25.0	29.2	3.0	88.1	-	27.3	22.8	12.8
	남성	63.0	-	18.2	18.9	1.8	83.6	-	24.2	15.9	31.6
2015	계	66.8	-	20.6	22.4	1.8	88.1	-	26.6	19.1	21.1
	여성	67.7	-	23.5	27.1	2.2	90.2	-	28.4	22.3	12.8
	남성	65.8	-	17.6	17.4	1.2	85.8	-	24.7	15.7	30.0
2017	계	66.5	-	20.8	22.6	1.9	88.4	-	25.1	20.3	25.2
	여성	67.1	-	24.3	27.5	2.6	90.4	-	27.2	24.5	15.5
	남성	66.0	-	17.1	17.4	1.3	86.2	-	22.9	16.0	35.2
2019	계	66.2	-	24.9	20.7	1.6	88.2	-	23.7	19.6	23.5
	여성	67.0	-	30.1	25.8	2	89.9	-	26.2	23.9	14.3
	남성	65.4	-	19.5	15.4	1.1	86.4	-	21.1	15.2	33.2
2021	계	24.1	-	12.3	12.1	1.6	67.7	-	18.0	19.3	21.0
	여성	24.5	-	14.2	15.0	1.8	70.6	-	19.4	23.7	9.2
	남성	23.7	-	10.3	9.0	1.2	64.6	-	16.5	14.7	33.5

주: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2011년 이후 공연장 이용과 전시장 관람 변수 없음.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부표 1-79〉 문화콘텐츠 산업종사자

(단위: 명, %)

구분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48,850	512,381	525,199	513,850	554,788	574,752	574,465	580,202	595,513	611,361	635,877	652,109
여성	198,781	216,106	220,938	207,041	225,326	252,661	245,281	247,861	248,671	264,700	285,805	289,012
남성	250,069	296,275	304,261	306,809	329,462	322,091	329,184	332,341	346,842	341,191	347,554	360,913
여성비율	44.3	42.2	42.1	40.3	40.6	44.0	42.7	42.7	41.8	43.3	44.9	44.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통계조사」.

〈부표 1-80〉 생활체육 참여율

(단위: %)

구분	구칙적 생활체육 참여율	한달에 2~3번 정도	주 1회	주 2회	주 3회	주 4회	주 5회	주 6회	매일	
2010	전체	41.5	4.4	8.8	9.5	11.7	5.2	6.6	2.9	5.6
	여성	40.5	2.9	4.8	8.3	12.7	4.9	6.8	2.9	4.9
	남성	42.5	5.9	12.7	10.7	10.7	5.5	6.5	2.9	6.2
2012	전체	34.9	5.0	8.3	7.4	10.6	4.2	6.4	2.3	4.0
	여성	34.9	3.0	5.1	6.4	11.5	4.1	6.7	2.1	4.1
	남성	35.1	7.0	11.5	8.5	9.7	4.3	6.1	2.6	3.9
2014	전체	43.5	10.8	11.2	10.2	12.7	5.2	5.9	4.0	5.5
	여성	43.9	7.9	8.2	9.2	14.4	5.3	6.2	3.8	5.0
	남성	43.3	13.7	14.3	11.2	11.0	5.1	5.7	4.3	6.0
2015	전체	45.3	9.6	10.6	10.4	12.7	6.0	6.5	2.5	7.2
	여성	46.7	6.1	7.2	10.8	14.0	5.7	6.9	2.2	7.1
	남성	44.0	13.2	14.1	10.1	11.5	6.4	6.1	2.7	7.2
2016	전체	49.2	11.0	10.2	12.3	16.9	4.6	9.8	2.5	3.1
	여성	49.3	10.0	7.4	11.4	18.3	4.4	9.9	2.2	3.1
	남성	49.2	12.0	13.1	13.2	15.5	4.8	9.8	2.7	3.2
2017	전체	48.1	11.9	11.0	10.1	17.1	5.7	9.3	1.6	4.3
	여성	50.8	8.8	7.7	10.7	20.3	5.7	9.0	1.3	3.8
	남성	45.7	15.0	14.5	9.5	13.9	5.8	9.7	1.9	4.9
2018	전체	52.4	-	9.8	11.8	18.2	7.3	8.1	2.4	4.6
	여성	56.2	-	6.7	10.5	21.1	8.0	8.9	2.4	5.3
	남성	48.6	-	12.9	13.0	15.4	6.6	7.2	2.5	3.9
2019	전체	52.2	-	14.4	15.7	19.2	5.9	5.9	1.4	4.1
	여성	55.6	-	9.5	15.9	21.5	6.1	6.4	1.5	4.2
	남성	48.8	-	19.3	15.5	16.8	5.7	5.5	1.4	3.9
2020	전체	47.1	-	13.1	14.3	16.4	5.6	6.3	1.7	2.8
	여성	50.8	-	9.5	15.0	18.4	6.3	6.8	1.5	2.8
	남성	43.2	-	16.7	13.6	14.3	4.9	5.8	1.9	2.7

주: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 2회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부표 1-81〉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시간

(단위: %, 시간)

구분		컴퓨터 활용 여부	인터넷 활용 여부	인터넷 주 평균 사용시간
2005	전체	74.2	72.8	13.3
	여성	68.7	67.2	12.1
	남성	79.7	78.5	14.3
2010	전체	78.4	77.8	14.7
	여성	73.1	72.4	13.5
	남성	83.7	83.2	15.8
2012	전체	78.7	78.4	16.3
	여성	73.7	73.2	14.8
	남성	83.8	83.6	17.5
2013	전체	75.8	82.1	13.9
	여성	70.6	78.0	12.4
	남성	81.0	86.2	15.3
2014	전체	74.1	83.6	13.6
	여성	68.4	79.8	12.3
	남성	79.7	87.3	14.9
2015	전체	73.4	85.1	13.6
	여성	68.2	81.9	12.4
	남성	78.6	88.4	14.8
2016	전체	72.2	88.3	14.3
	여성	66.9	85.6	12.9
	남성	77.6	91.0	15.6
2017	전체	72.4	90.3	15.7
	여성	67.0	87.7	14.5
	남성	77.8	92.7	16.9
2018	전체	71.6	91.5	16.5
	여성	66.1	89.1	15.2
	남성	77.1	93.9	17.6
2019	전체	73.0	91.8	17.4
	여성	68.6	89.6	16.5
	남성	77.3	93.9	18.3
2020	전체	73.7	91.9	20.1
	여성	69.3	89.7	18.7
	남성	78.2	94.0	21.4

주: 만 3세 이상, 단, 2006년 이전은 만 6세 이상.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부록 2〉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부표 2-1〉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Ⅰ 경제 활동 분야 (21개)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비(여성/남성)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성별 임금격차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의 성비(여성/남성)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자영업자 제외)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 의 금품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	1년
	상용근로자 비율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취업자 중 자영업자, 고용주, 무국가종중사자를 제외한 상용, 임시,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성별 정규직근로자의 비율	임금근로자 중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한 비정규직 형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성별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근로형태별)」	반기별 (3월, 8월)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유사업무에서의 남녀임금수준	동일직종 및 경력년수별 남성근로자 대비 여성 근로자 임금비율	고용노동부 * 미생산	-
	전문직 여성비율	15세 이상 여성취업자 중 전문직 비율 ※ 2010년 직업분류(제6차개정)상 전문직 ※ 관리부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성별 30대 고용률	만 30대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성별 대졸자 실업률	대졸 실업자가 대졸 경제활동인구(취업자+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성별 평균 근속연수	근로자가 현 사업체에 입사한 날로부터 조사 대상 기준일까지 근속한 평균 기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가구주 성별 소득격차	가구가 근로대가로 받는 일체의 보수, 임대료·배당금·이자 등 재산으로부터 얻은 수입, 사업 소득, 이전소득 등 실질적인 현금 및 현물소득의 합계에 대한 성별 격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년
	성별 월평균 근로시간	5인 이상 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사업체의 남녀 근로자 월 평균 근로시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년
	성별 청년층 고용률	15~29세 경제활동인구수 중 취업자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률	결혼, 임신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중 현재 취업자 비율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1년
	성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	고용노동부 * 미생산	-
	여성비정규직 사회보험가입률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1년
	성별 정규직 시간 선택제 일자리 근로자수	시간제 선택이 자발적이고 임금, 승인, 4대 보험,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근로자 규모	고용노동부 * 미생산	-
	부모의 주평균 노동시간	맞벌이 부모의 주평균 노동시간	통계청 * 미생산	-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현황	유형별(시간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근로,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재량근로 등) 유연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현황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체의 보육시설 설치 비율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중에서 의무 이행률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년
	성별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유지율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은 당해 연도 육아휴직을 종료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동일사업장에 있는 근로자의 비율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자료」	1년
② 의사 결정 분야 (13개)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인구 대비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DB	4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사통계」	1년
	관리직 비율	15세 이상 취업자 중 관리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 2010년 직업분류(제6차개정)상 관리직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등으로 구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중앙정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중앙정부 각종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위원 비율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1년
	AA대상 사업체의 여성 관리직 비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사업 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등 사업장에서 과장급 이상 여성근로자 비율	고용노동부, 「적극적고용개선조치 DB」	1년
	성별 초·중·고등학교 교장 비율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장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성별 대학교수 비율	초대졸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전임이상 교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성별 공무원의 수	전체 공무원 중 여성비율	안전행정부, 「안전행정통계연보」	1년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	정부 고위 공무원단에성의 여성비율	안전행정부, 「안전행정통계연보」	1년
	여성장관 비율	각년 7월 1일 현재 장관급 중 여성비율	IPU	비주기
	사법 및 경찰 고위직 여성비율	검사고위직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와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직 간부의 여성비율	공식통계 없음	비주기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공공기관 상임·비상임 여성임원 비율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1년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	5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 대표자 비율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년
③ 교육 직업 훈련 분야 (14개)	평균 교육연수	6세 이상 인구 중에서 재학중인 학생수를 제외한 전국민에 대한 평균 교육연수의 성비(여성/남성) ※ 각 학교급별 중퇴자의 경우는 초등중퇴 3년, 중학중퇴 7.5년, 고교중퇴 10.5년, 전문대 중퇴 13년, 대학중퇴는 14년, 석사·박사중퇴는 17년으로 계산함. ※ 국민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문맹률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문맹자가 거의 없으므로 국민 평균 교육수준만 지표로 채택하였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원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1년 (5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고등학교 졸업자 중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한 학생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포함), 각종 고등교육기관을 포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비율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재직자직업훈련에 참여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사업체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지원금, 사업주 능력개발(유급휴가훈련 포함), 수간지원금, 근로자능력카드제,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등의 고용노동부 지원을 통해 직업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고용통계DB 분석	1년
	성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초대졸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의 성비 취학률은 취학적령인구(추계연앙인구)대비 재직 학생수의 비율 ※ 고등교육기관의 취학적령연령은 UNESCO에서 5년간의 인구를 사용하도록 정의 되어 있어, 18~22세의 인구를 활용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고등교육(대학이상) 이수자 여성비율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여성비율 혹은 성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초중고 교장·교감의 여성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중 여성 비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대학 전공계열별 여교수 비율	전문대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전공대분류별(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사범계) 여교수 비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남녀 학생 1인당 교육비	초등학생 이상 학생이 있는 가구의 월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1년
	성별 전공계열별 대졸 취업률	전문대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전공대분류별(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사범계) 대졸자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외국인 유학생))*100으로 계산함.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교육전문직의 여성비율	교육장, 장학관/연구관, 장학사/연구사 등 교육 전문직으로 근무하는 여성 비율	교육부, 내부자료	1년
	성별 학업성취도 차이	학업성취도에서의 성별차이 ※ 학업성취도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해당 학년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교육부, 내부자료	-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성별 평생학습 참여자	25세 이상 인구 중 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육강좌, 직업훈련, 각종 강좌, 기타 학습에 참여한 인구의 성별 비율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실태조사」	1년
	성별 기술사, 기능장 수	기술사 및 기능장의 성별 규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1년
	고용노동부 지원 실업자 훈련 참여자 중 여성비율	신규실업자훈련, 전직실업자훈련, 여성가장훈련, 우선선정직종훈련, 자활훈련, 고용촉진훈련 등의 직업훈련생에 대한 성별 비율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1년
④ 복지 분야 (7개)	비빈곤인구 비율	전체 인구 중 비빈곤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 (여성/남성) *비빈곤인구: 경상소득 중간값 50% 이하 인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1년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15~59세 인구 중 공적연금*에 가입한 인구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공무원연금, 사립·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수 합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	1년
	장애인고용률의 성비	만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성비(여성/남성)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3년 (1년)
	성별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의 성별 비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1년
	장애인 성별 교육수준	장애인의 교육정도별 남녀 분포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3년
	성별 장애인 등록자 수	전체 장애인중 등록장애인의 성별 수 ※ 장애인복지법에 모든 장애인은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등록된 장애인을 의미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 통계연보」	1년
	성별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성별 규모, 고용보험은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해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⑤ 보건 분야 (12개)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의 성비(여성/남성) *건강관련 5개 지표, 즉, 자기관리(Self-care), 일상 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Pain/Disability), 그리고 불안과 우울(Anxiety and Depression)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결과를 종합한 값(19세 이상 인구 대상으로 조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검진 대상자 중 건강검진 수검자가 차지 하는 비율 *건강검진 대상자: 1차 대상 인원 합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1년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성별 비율	질병관리공단,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주관적 건강상태	15세 이상 인구의 자건강에 대한 주관적 상태 평가로 건강한 상태 비율(매우좋다+좋은편이다)	통계청, 「사회조사」	2년
	건강보험 진료급여 수급자의 성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 중 보험자 부담금(공단부담금)을 지급 받은 사람들의 성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1년
	건강수명 성비	건강수명은 출생 시 기대수명에서 질병의 경중에 따라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빴던 햇수를 뺀 기대수명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모성사망비	임신과 관련된 원인으로 임신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발생한 여성 사망자 수를 출생아 수 10만 명당 수치로 계산 한 통계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청소년 출산율	15~19세 여성인구 1,000명 당 출산 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년
	성별 5대 암 환자 발생률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환자의 성별 발생률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	1년
	성별 만성질환 유병률	과거 3개월 이상 앓았거나 앞으로 계속 앓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 혹은 질병을 앓고 있는 성별 환자 수	질병관리공단,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성별 활동제한일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혹은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성별 일수	질병관리공단,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성별 자살 생각률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의 성별 비율	질병관리공단,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⑥ 안전 분야 (9개)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13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 사회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전반적 사회안전: 국가안보(전쟁가능성, 복핵 문제 등), 건축물 및 시설물(붕괴, 폭발 등), 교통 사고, 먹거리(불량식품, 식중독 등), 정보보안	통계청, 「사회조사」	2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신종 전염 병(신종 바이러스, 조류독감 등), 범죄위험 *5개 척도: 안전(매우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불안(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비율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비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가정폭력 발생 시 여성의 피해율	가정폭력 즉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비율 ※ 가족폭력이란 [가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행위를 말함.	법무부, 「법무여성통계」	1년
	성매매 범죄자 기소율	성매매 범죄 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비율	법무부, 「법무여성통계」	1년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건수	아동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 또는 미검률	전체 성폭력사건중 동일한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에 의해 2회 이상 반복되어 행해진 발생된 성폭력 사건의 비율	경찰청, 내부자료	1년
	가정폭력 재범율	전체 가정폭력사건중 동일한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에 의해 2회 이상 반복되어 행해진 가정폭력사건의 비율	경찰청, 내부자료	1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수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지원시설의 수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1년
[7] 가족 분야 (9개)	가사노동시간	20세 이상 인구의 하루평균 평균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경제적 목적이 아닌 가사업무(음식준비, 청소 등)와 가족 보살피기(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부모 보살피기 등) 시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셋째 아이 이상 출생 성비	출생순위별로 셋째 출생아에 대한 성비(여성/남성)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년
	가족관계 만족도	만13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등에 대한 가족관계 만족도 *5개 응답척도: 만족(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통계청, 「사회조사」	2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자 수의 성비 역수(남성/여성) * 육아휴직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여성 육아휴직자 수의 10%에 도달하는 것을 완전 성평등 기준으로 설정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년
	경제활동상태별 남녀 노인부양 평균시간	취업·비취업 상태별 부모 및 조부모 등 노인을 간호하거나 보살핀 남녀의 시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가구유형별 남녀인구 비율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남녀 비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년
	성별 생계책임 의식	가계비의 책임에 대한 성별 의식	공식통계 없음	-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및 아동현황	설립주체별로 제공되는 보육시설 아동 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1년
	출산휴가 사용 건수	고용보험의 모성보호산업 중 하나인 출산전후 휴가를 피보험자가 사용한 건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1년
[8] 문화 정보 분야 (9개)	여가시간	20세 이상 인구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 *교제 활동, 미디어 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 구입, 일반인 학습 등과 관련된 교제와 여가활동 시간 ※ 여가시간이란 생활시간 이외의 자유로운 시간이며, 생계를 위해 필요한 의무적 시간이 아닌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한 자유로운 활동을 행하는 일을 말함.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여가만족도	13세 이상 인구 중 각종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5개 응답 척도: 만족(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통계청, 「사회조사」	2년
	성별정보화격차	정보화 수준에 대한 성비(여성/남성) *정보화 수준은 접근지수, 역량지수, 활용지수(양적, 질적)를 종합한 값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1년
	성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공연장(공연장, 음악, 연극, 마당극, 뮤지컬, 영화, 무용)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관람 등의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는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	2년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성비	문화산업 10개 분야 사업체(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및 비디오, 애니메이션, 광고, 방송, 캐릭터, 에듀테인먼트)에 종사하는 남녀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통계조사」	1년

분야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성별 생활체육 참여율	걷기, 헬스, 등산, 축구, 수영, 자전거, 싸이클 체조, 배드민턴, 농구, 줄넘기, 육상, 요가, 태권도, 테니스, 골프 등에 한 주 동안 참여하는 횟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실태조사」	2년
	성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시간 (평소 1주일)	평소 1주일 동안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1년
	성별 문화시설 이용률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의 문화 기반시설을 이용한 남녀 수	공식통계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구할 수 있음)	-
	성별 문화기반시설 기관장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중 정부 및 공공기관이 관장하는 시설 기관장의 성별 분포	공식통계 없음	-

2021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2021년 12월 17일 인쇄

2021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代)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146-10